


6-1998

1990-1996의 소망교회를 중심으로한 청중과 설교의 관련성의 대 한 연구

Eun Man Shin 신은만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Eun Man Shin 신은만, "1990-1996의 소망교회를 중심으로한 청중과 설교의 관련성의 대한 연구" (1998).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8.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8>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ENCE AND SERMON IN SOMANG PRESBYTERIAN CHURCH FROM 1990 TO 1996

written by

EUN MAN SHI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Ki Young Kim



Jeong Kii Min



Seyoon Kim

June 1,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ENCE AND SERMON
IN SOMANG PRESBYTERIAN CHURCH FROM 1990 TO 1996**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EUN MAN SHIN

JUNE 1998

1990-1996의 소망교회를 중심으로한
청중과 설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기 영 교수

신 은 만

1998년 6월

June 1998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gregation and Serm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omang Presbyterian Church from 1990 to 1996.

Eun Man Shin

Doctor of Ministry

199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is a study on Rev. Sunhee Kwak's Sermon and his congregation. First of all, the biblical texts and themes of his sermons were analyzed. The content analysis of this study showed the order of frequency from the Psalms, Genesis, to the Proverbs in the Old Testament, and from Matthew, Luke, to John in the New Testament. During seven years, 134 themes were extensively used, while they were intensively emphasizing the key point of the christian doctrine—belief, love, grace, gratitude, the Bible, freedom, and so on. At the same time the classification by homiletical structure of his sermons was characterized by "the textual sermon".

The next analysis was based on the form of his preaching. Above all, the mode of the titles expressed its direction within a few finite words. Their introductory part often delivered by using episode. Besides, the concluding remarks ended with the biblical passage.

According to Thomas G. Long, the professor of preaching i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 in preaching is to deliver appropriate sermon which is harmonized with the genre of biblical text. In this respect, Rev. Sunhee Kwak's sermons were consistent with Long's literary and rhetoric mode in all fields such as the psalms, the proverbs, narrative, parables,

epistles and the like.

The congregational analysis of the church showed the cause of Church Growth, the strong affinity between Sunhee Kwak's preaching and congregation. 15,061 church members enrolled in the church over a period between 1990 and 1996. Most of them were young people at their 20s and 30s dwelling in the apartment complex district around Kangnam-Gu, Seoul. They had stable jobs, the high level of income and of academic background. Rev. Sunhee Kwak prepared his intellectual excellency and spiritual profundity satisfying his congregation. 90.5 percent among 15,061 church members were upper middle class who were composed of catechumens and the newly baptized.

In conclusion, his peculiar sermon is one of the noteworthy example which meets purity of God's words and appropriateness of situation at a same time.

목 차

Abstract	ii
목 차	iv
표목록	vi
그림목록	vii
양식목록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사 고찰	7
제4절 연구의 방법	19
제5절 연구의 단계	26
제2장 교회성장과 설교의 관계성	28
제1절 성경에 나타난 교회성장과 설교	28
1.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공동체의 성장과 설교	28
2.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성장과 설교	37
제2절 신학적 측면에서 본 교회성장과 설교	52
제3절 역사적 측면에서 본 교회성장과 설교	63
제3장 소망 교회 주일 설교 분석	73
제1절 설교 분석 I-텍스트와 테마 분석	73
1. 성경 본문의 선택에 관한 분석	73
2. 설교의 주제에 관한 분석	83
3. 텍스트와 테마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86
제2절 설교 분석 II-설교의 형태적 특성 분석	90
1. 설교의 제목에 관한 분석	90
2. 설교의 서론에 관한 분석	96
3. 설교의 본론에 관한 분석	102

제3절 설교 분석 III-설교의 문학적·수사적 분석	105
1. 시편에 관한 설교	107
2. 잠언에 관한 설교	109
3. 이야기에 관한 설교	113
4.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설교	117
5. 서간문에 관한 설교	120
제4장 소망 교회 청중 분석	126
제1절 이론적 근거	126
제2절 분석 대상과 방법	129
제3절 신앙적 특성 분석	132
제4절 경제 및 문화적 특성 분석	136
1. 성(sex)	136
2. 연령(age)	137
3. 사회적 위치(social status)	139
4. 문화적 배경(cultural background)	141
5. 교육배경과 지적 수준	144
제5장 설교 분석과 청중 분석의 관계성	146
제1절 특수한 청중에 꼭 맞는 설교	146
제2절 새로운 청중과 새로운 설교	152
제6장 결 론	158
제1절 요약	158
제2절 더 연구할 분야	160
제3절 제언	161
부 록	165
참고문헌	193
Vita	205

표 목 록

(표 1-1) 10년마다의 한국교회 신자의 인구대비 비율	3
(표 1-2) 1993년부터 1995년 까지의 주요 교단별 성장통계표	4
(표 1-3)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 교인 증감율	5
(표 2-1) 한신 교회 교인수 증가표	62
(표 3-1) 1990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75
(표 3-2) 1991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75
(표 3-3) 1992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76
(표 3-4) 1993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76
(표 3-5) 1994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77
(표 3-6) 1995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77
(표 3-7) 1996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78
(표 3-8)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79
(표 3-9)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 교회 주일 설교 주제 빈도수	85
(표 3-10) 설교학적 구조에 따른 설교 유형 분석 결과	89
(표 3-11) 설교 제목의 표현에 따른 유형 분석 결과	93
(표 3-12) 설교의 서론 유형 분석 결과	97
(표 3-13) 설교의 결론 유형 분석 결과	103
(표 4-1)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월별 새 등록 교인수	130
(표 4-2)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신급 조사표	132
(표 4-3)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성별 조사표	137
(표 4-4)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연령별 조사표	138
(표 4-5)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주요 직업별 조사표	140
(표 4-6)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거주 지역별 조사표	141
(표 4-7)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주거 형태별 조사표	142
(표 4-8)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학력별 조사표	144

그림 목록

(도 3-1) 본문과 주제 관계에서 본 제목설교	87
(도 3-2) 본문과 주제 관계에서 본 본문설교	88
(도 3-3) 본문과 주제 관계에서 본 강해설교	88

양식 목록

(양식 3-1) 설교 특성 분석표(Ⅰ)	74
(양식 3-2-1) 설교 테이프 안내 카드	84
(양식 3-2-2) 설교 테이프 안내 카드	84
(양식 3-3) 설교 특성 분석표(Ⅱ)	93
(양식 4-1) 개인등록카드(앞면)	131
(양식 4-2) 개인등록카드(뒷면)	131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경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지상에 있던 인간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경형성의 과정에 대한 문외한으로 분류되는 수모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기까지는 전승의 단계와 문서화의 단계, 그리고 해석 및 편집의 단계를 거친 후 세계교회대회에 인정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적인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육십 육권으로 된 성경의 각 책은 각각의 독특한 삶의 자리(Sitz im Leben)가 있었으며 또한 그 당시의 상황 역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배경 등이 같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왜 육십 육권의 책을 인간에게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허공에다 말씀을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듣고 행하도록 주신 말씀이 성경인 것이다. 이 문제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동안 신약신학 학자들이 많은 공헌을 해왔거니와 실천신학의 한 분야인 설교학에서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통찰력이 다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선포였던 것처럼 오늘의 특정지역과 특정문화, 그리고 특정 환경 속의 사람들을 위하여 최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재선포 되어져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특정 상황의 교회와 그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연구의 대상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수많은 교회에서 매주일 설교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상황은 각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교회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그것도 범위를 좁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 그 대상을 찾으려 한다면 그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교회들로부터 단기간에 급성장한 교회로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인으로 삼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에 충족될 수 있는 교회로서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는 단연 제1순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망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나 교회 구성원들의 특성 분포도 그리고 교회 역사와 교인 수가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깊이 고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망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과 그 상황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의 관계성을 살피는 일은 매우 관심있는 일이며 또한 의미있는 일이 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도대체 소망교회의 성장은 어떤 곡선을 나타내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교인들의 삶의 자리에는 어떠한 특수성이 자리잡고 있는가? 그 상황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과연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가? 그 구조와 독특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일이 본 논문의 주요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가설(hypothesis)을 세워 본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소망교회의 말씀선포는 소망교회 교인들의 특정한 상황에 최적한 것이었다.’ 이 가설이 맞는지는 앞으로 밝혀지겠거니와 만약 맞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적인 탐구가 있게 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교회성장, 특히 숫적 성장이 한국교회에 열화같이 확산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그에 대한 열망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는 심각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내적인 성장이나 질적인 성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이고도 양

적인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와 같은 주장은 성경적 관점에서나 교회성장학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말은 내적이고도 질적인 성장을 도외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성장은 외적이고도 양적인 성장을 전제해야만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숫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와 그 교회의 말씀선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194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단위로 살펴본 한국교회(개신교) 신자의 인구대비비율을 보면 그것은 다음 표와 같다.¹⁾

(표 1-1) 10년마다의 한국교회 신자의 인구대비 비율

연 도	신 자 수	인구비율(%)
1940	372,000	1.5
1950	600,000	2.9
1960	1,257,428	5.0
1970	2,197,336	7.0
1975	4,019,313	19.1
1980	7,180,627	23.75
1990	10,312,813	

표 1에 의하면 신자수에 있어서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성장이 미미했던 반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좋은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1980년도에 이르러서는 탁월한 성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신자수의 성장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주요교단별 성장 통계표를 보면 더욱 절실히 느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²⁾

1) 이종윤, “교세 둔화, 원인과 대책”, 한국기독교공보 1996년 2월 24일자, 12.

2) Ibid.

(표 1-2)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주요 교단별 성장통계표

연도 교단	'93	'94	'95
예장 (통합)	2,049,117 (2.996)	2,101,295 (2.4%)	2,103,295 (0.01%)
예장 (합동)	2,157,642	2,158,794 (0.5%)	2,158,908 (0.005%)
감리교	1,289,242	1,289,626 (0.003%)	1,294,330 (0.07%)
기장	328,048	330,580 (0.99%)	1,294,330 (0.07%)
하나님의 성회(오순절)		1,214,798	334,473 (0.99%)
예장(고신)	349,208	363,620 (0.96%)	1,266,568 (0.4%)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94년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이외에는 단 1%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교단이 없다는 사실과, 1995년도에는 조사대상이 된 교단 중에 어느 교단도 1%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통계자료는 한국교회 성장에 대해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이제 범위를 좁혀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교세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통계자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1994년 9월 8일부터 그 해 9월 14일까지 서울 소망 교회당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9회 총회시에 보고된 통계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1993년 12월 31일 현재 교인 수는 2,101,295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49,917명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2.4%로 나타나고 있다.³⁾ 그리고 1995년 9월 21일부터 그 해 9월 26일까지 서울 명성 교회당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0회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 12월 31일 현재로 교인 수는 2,094,338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371명 증가와 증가율 0.01%로 기록되어 있으나⁴⁾ 제79회 총회보고서가 추후에 수정보고되지 않았다면 이와같은 보고는 잘못된 것으로서 오히려 6,957명이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79회 총회 보고서(1994), 305.

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80회 총회보고서(1995), 301.

감소한 것이 확실하다. 또 1996년 9월 12일부터 같은 해 9월 17일까지 서울 소망교회당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1회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12월 31일 현재 교인 수가 2,105,004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10,666명이 증가하고 증가율은 0.5%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⁵⁾

역시 1997년 9월 23일부터 그 해 9월 26일까지 서울 명성교회당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2회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교인 수는 2,191,395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89,391명의 증가와 4.2%의 증가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⁶⁾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교인 증감율

연 도	전체교인수	증	감	%	비 고
1993	2,101,295	49,917		+2.4	
1994	2,094,338		6,957	-0.3	
1995	2,105,004	10,666		+0.5	
1996	2,191,395	86,391		+4.2	
평 균				+1.7	

지나간 4년 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교인 증가율이 평균 1.7%의 수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교회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현실인식을 지니도록 요청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긴 하다. 대체적인 의견을 종합하면, 물질적 풍요와 레저 문화의 확산,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시대조류, 종교 다원화와 혼합종교운동의 영향, 교회 메시지의 한계,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세속화의 거센 물결, 생물학적 성장의 둔화 등을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 성장의 반(反) 요인적 상황들 속에서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오히려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현상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본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

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1회 총회보고서(1996), 223.

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82회 총회보고서(1997), 295.

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 교회는 1977년 10월 2일 창립예배를 드린 후로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만 19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주보상에 등재된 새 등록교인 숫자만 총 합계 30,15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⁷⁾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소망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7년 5월 20일 행해진 이 조사의 조사자수는 276명이었고 응답자는 231명이었으며, 회수율은 83.7%에 달했으므로 이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평가된다. 그 가운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는 몇 가지 설문과 통계결과를 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설문 5. 소망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 ① 2명, 교인들의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 ② 0명, 대표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 ③ 0명, 교인들의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④ 225명, 박선희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 ⑤ 4명, 무응답

설문 6. 박선희 목사님의 설교말씀은?

- ① 0명,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② 13명,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③ 214명, 너무 은혜로워서 소망 교회로 출석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 ④ 4명, 무응답

위의 설문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보면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첫째로 설문 5에서 소망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225명이 박선희 목사의 설교임을 지적함으로써 97%나 된다는 점, 둘째로 설문 6에서 박선희 목사의 설교가 소망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14명으로 92%에 달한다는 점이다.

7) 이 수치는 1997년 10월 2일 제1호 주보부터 1996년 12월 29일 제1007호 주보까지 새 등록 교인의 숫자를 합산, 집계한 결과이다.

이와같이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가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소망 교회의 성장이 꼭선회 목사의 설교와 직결된다는 명제이다. 그렇다면 그 설교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과 함께 그 설교에 응답하는 청중들의 특성도 아울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설교와 청중, 이 두 요소가 서로 합치됨으로써 소망 교회의 성장은 가능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가 되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주일 설교는 그 요인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청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와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특정 청중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설교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규명해 내려는 데 있다. 단, 연구의 한계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어서 20년 동안의 모든 주일 설교를 분석한다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현재까지의 소망 교회 역사를 등록교인 숫자 중심으로 세 구분하여 그 가운데 최근의 7년 기간, 즉 1990년부터 1996년까지만을 대상기간으로 제한하였다. 이 기간은 소망 교회가 현재 모습의 예배당으로 증축된지 2년후부터 7년 동안이 되며 그 기간 동안 매 해 평균 새신자 수는 2,151명에 이르러 소망 교회 성장이 본 궤도에 달한 기간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 기간 동안 선포된 주일 설교 343편과 이 기간 동안 등록한 새신자 15,061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제3절 연구사(研究史) 고찰

본 논문의 주제는 청중과 설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이다. 물론 여기서 성장하는 교회란 불특정 다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회 즉 소망 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이미 명확히 한 바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교회성장과 설교의 상관성, 설교분석 및 청중분석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교분석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따라 관련되는 이론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교분석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방법들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결과부터 언급해 본다면 소망 교회와 관련된 어떠한 연구논문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연구자들이 소망 교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자료들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교회성장과 관련해서만 본다면 할지라도 소망 교회는 교인 수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 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정확한 수치로는 발표되고 있지 않다. 인쇄되는 주보의 매수와 소모되는 주보의 매수를 가지고 교인 수를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전도용, 보관용 등의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소모되는 주보 수를 곧바로 교인 수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임을 알 수 있다. 단지 주일예배 회수와 좌석수를 어림잡아 1997년 9월 현재 약 30,0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까닭에 소망 교회의 성장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소망 교회의 태동에서부터 급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피상적으로나마 기록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 교회 100년사에 뿌리를 둔 교회들 가운데 7개의 교회에 대해 그 성장과 현황에 대해 밝힌다고 하면서 그 당시 크리스찬 신문사의 강정규 편집국장이 엮은 한국의 7대교회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약 50페이지의 분량을 할애하여 1977년 8월 24일 첫 기도회로 모인 일부터 시작하여 1982년 10월 3일 창립 5주년에 이르기까지의 소망 교회 성장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다. 성장 수치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수치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1977년 8월 가정에서 드려진 첫 기도회의 11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978년 5월 상가건물로 옮겨가 150명이 이전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지나 1980년에 2천명, 그리고 1982년 10월 새 예배당 헌당시의 4천 5백명으로까지 두려울 정도로 성장한 모습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⁸⁾ 또한 이 책은 이러한 소망 교회의 성장 원인으로 확선회 목사의 설교를 첫째로 꼽고 있다.

소망 교회와 강단, 확선회 목사와 설교, 바로 이 말 속에 소망 교회의 모든 것이 포함되고 소망 교회의 모든 것이 근원된다고들 말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해 소망 교회의 강단이 그만큼 “말씀”에 근접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선언들일 것이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소망 교회의 강단에 관하여 그렇게들 증언하고 있다. 소망 교인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바로 그 “말씀”에의 접근성 때문에 소망 교회를 택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 “말씀” 때문에 왔으며 “말씀” 때문에 머물렀고 “말씀” 때문에 봉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초신자들에게도 한결같다. 결국 소망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급성장은 “말씀”에 접근된

8) 강정규, 한국의 7대 교회-그 성장과 현황- (서울: 종로서적, 1983), 62-83.

곽선희 목사의 설교에 근원한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 소망 교회의 성장 형태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형태였다. “말씀”에 감동된 신자 하나하나가 자신에 넘친 전도의 주체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있게 전하였다. “한 번 와서 들어보라”. 소망 교인들은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 한 번 와서 들어보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냐하면 자신들이 매주일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⁹⁾

이 책은 계속해서 소망 교회가 속한 삶의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곽선희 목사의 설교 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흥미있는 설명을 더하고 있다. 먼저 소망 교회가 속한 삶의 자리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자.

이러한 상황의 변주곡들이 묶이어서 서울의 한강 남쪽 지역은 아파트가 주도하는 새로운 “삶의 자리”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일단 자리를 굳힌 이 “삶의 자리”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개성도 함께 묶어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외부로 노출하기 시작했다. 한 나라의 가장 밀도 높은 고수준의 교육자, 경제력의 집결처, 여기에 이들의 뒤를 가깝게 뒤쫓고 있다고 믿는 중간 계층들이 주도하여 이룩한 강남의 “삶의 자리”는 서구식 시설의 아파트가 표상하는 삶의 안락성과 삶의 은밀성에다 고층 건물이 상징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계층적 연대성과 소속감을 합하여 그 독특한 분위기를 한강 이남의 모든 주거 지역에다 확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남의 간섭이 싫은 안락성, 노출이 싫은 은밀성 등 현대인의 공통적인 기질에다가 사회적 우월감과 그와 대칭되는 “불안”의 뿌리를 안은 그들만의 특이한 상황을 한 데 합한 그러한 분위기였다.¹⁰⁾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독특함을 지니고 있는 상황 속의 청중들에게 곽선희 목사의 설교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전달되었을까? 이 책은 소망 교회를 위해 모였던 11명이 곽선희 목사와 함께 드렸던 첫 예배의 첫 설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곽 목사의 설교는 예나 지금이나 길지는 않았다. 그 날 밤의 설교는 특별히 더 짧았다. 10분을 조금 더 넘었을까 말까 한 길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의 파괴력은 11명의 첫 “문도”들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이었다. 음성이 작고 조용했기 때문에 더 깊이 신도들의 가슴 속에 와 닿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말씀의 두드림이 아니었다. 인간 심연의 복잡 미묘한 의식의 통로를 살살이 알아서 스쳐가는 대신, 깊이 있게 파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한 파여짐은 아픔이기도 했고 또한 영적 쾌감이기도 했다. 두껍게 층이 쌓여진 영혼의 겉껍질을 잘라 내고 훌러지게 하는 충격과와 같은 설교, 인간의 깊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흉내 낼 수

9) Ibid., 92-95.

10) Ibid., 60.

도 없는 그런 설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설교의 새로운 차원이 드러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¹¹⁾

그리고 그와같은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콕선회 목사의 설교는 엄청난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단지로 표현되는 현대 도시문화 계층이 호소하는 “말씀” 갈등이라는 부름에 콕선회 목사의 설교가 “말씀 됨”이라는 형태로 응답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 동시에 이 책은 소망 교회에 등록하는 등록교인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등록 교인의 50 퍼센트 이상이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등록 교인들은 스스로 등록의 필요성을 느껴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교회에 등록 서류를 내는 교인들은 새 교우라기 보다는 이미 소망 교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다. 등록 교인의 교회 출석 일수가 평균 반 년에서 일년의 출석 경력을 지녔음이 통계로 나타난다. 등록교인 중 부부 등록률이 지극히 높다. 이것은 소망 교회 교인 중 남자의 비율이 45 퍼센트 이상으로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수치가기도 하다.¹³⁾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책이 소망 교회의 존재 의의를 한국 교회의 미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소망교회,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미래에 거는 소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최소한 소망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국 교회의 평균적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미래 지향적인 것들이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소망 교회는 그 창립 과정에서 평신도들의 미래 지향적인 의지가 집약되어 그 추진력이 되었다는 지극히 소망스러운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평신도의 미래적 부름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한 목회자의 미래적 결단이 함께 호응하여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이 이루어졌다.

이 도전과 응전의 조화 속에서 창출된 소망 교회의 모든 것들은 그 후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 그 무엇들을 우리 앞에 제시해 왔다. 목회자 자신의 의도적인 반인간주의적 목회 전략(‘보이지 않는 목회’)에도 불구하고 인간주의적 목회 전략을 앞지른 외적 성장의 과시를 통해 양적 목회에 대한 질적 목회의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그 질적 목회의 핵심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 시도를 통하여 이룩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말씀”의 터 위에 선 교회의 근본 자세를 이 시대 문화권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 “말씀”의 시도가 “말씀” 시도자의 지적이며 인격적인 차원과

11) Ibid., 75.

12) Ibid., 95.

13) Ibid., 63.

도 깊이 관련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임을 보여 줌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 좌표와 그 현실적인 가능성을 아울러 밝게 보여 주고 있다는 것 등이다.¹⁴⁾

그러나 한국의 7대 교회 라는 책에 소개된 소망 교회의 성장과 현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크게 아쉬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는 이 책에서 다룬 기간이 1977년 8월부터 1982년 10월까지 5년 동안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1997년 10월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소망 교회의 역사 가운데 초창기 사분의 일 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일 뿐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둘째로 글의 형식이 논리적 전개와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은 대신, 한편으로는 다큐멘터리 형식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픽션의 형태처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글의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삶의 자리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등록 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광선회 목사의 설교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어떠한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글을 읽으며 파악되는 것은 교인들과의 인터뷰나 주보 자료의 활용, 목사와 비서 등 교회 직원들과의 대담 등을 주된 자료로 삼지 않았는가 하는 추정만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셋째로 위의 두 번째 비판과 연결되는 것으로써 결국 이 글은 감성적 설득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논리적 설득에는 공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교인 수의 증가 수치라든지, 초창기 교인들의 이름들 그리고 장소의 변경되는 과정에 대한 시기와 규모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숫자화된 자료들이 제시됨으로써 사실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 분석과 설교 분석 등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관적 직관을 통해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살펴 볼 분야는 소망 교회 광선회 목사의 설교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좋은 자료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단지 박종순 목사가 지은 한국 교회의 설교를 조명하다(I)라는 책의 한 부분에 12 페이지 분량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에 의하면, 광선회 목사의 설교는 ‘꾸며짐’에 있어서나 ‘들려짐’에 있어서 마치 심산계곡을 흐르는 여울물 소리와의 같다. 막히는 곳도 없고 걸리는 곳도 없이 유유히 골짜기를 흘러 내리는 청결한 개울물과도 같은 신선미를 느끼게 해준다. 그의 설교는 논리나 작위에 치우치거나 신경을 쓰는 흔적

14) Ibid., 102-103.

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논리적이며 기교에 치우치지 않았음에도 그 기교성이 뛰어난 독특한 설교의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¹⁵⁾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박선희 목사의 설교 한 편을 제시한 후 그 특성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설교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박선희 목사의 설교집에 실린 설교들 가운데 마태복음 26:57과 69-75이 본문으로 되어 있는 ‘떨쩍이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였다. 이 설교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네 가지 특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째로는 상황 설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 문화적 중산 계층으로 집합된 소망 교회 교인들을 설정하고 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참여자이면서 도피자이고 간섭자이면서 방관자이며 적극적이면서 소극적인 현대인들을 향해 ‘가까이 따라가자’고 외치는 메시지라는 것이다.¹⁶⁾

둘째로 설교의 흐름과 전개상의 특징은 다음의 열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1) 문장 구성과 구사가 간결하다.
- (2) 지성인들의 지성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하고 있다.
- (3) 현대 문명에 동질화 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심리 묘사가 적절하다. 예를 들면 ‘동숙자’라는 표현 등이다.
- (4) 난해한 표현을 피하면서도 기술적인 전개에 무리가 없다.
- (5) 강해식 설교 형태를 취하고 있다.
- (6) 표현이 명확하고 꾸밈이 없으며 청중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 (7) 목소리에 친근감이 있고 강조점이 분명하다.
- (8) 특별한 예화가 없으면서도 전개가 지루하지 않다.
- (9) 인물의 성격과 심리 묘사가 뛰어나다.
- (10) 논리적이다.¹⁷⁾

셋째로 설교의 은사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 이 책은 설교가 은사 중의 은사라는 것과 설교자는 천부적으로 그 소질을 타고 나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결국 위대한 설교가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 의

15) 박중순, 한국 교회의 설교를 조명한다(I) (서울: 신망애출판사, 1990), 67-68.

16) Ibid., 75-76.

17) Ibid., 76.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⁸⁾ 이 부분은 아무리 읽어 보아도 콕선희 목사라는 구체적 호칭이 빠져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콕선희 목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넷째로 설교가 줄 수 있는 감동과 변화에 관한 것이다. 위대한 설교는 청중을 변화시키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 살아 있는 설교란 거듭나게 하는 추진력과 새롭게 하는 생명력 그리고 뜨겁게 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¹⁹⁾ 물론 이 네 번째 특징 역시 콕선희 목사 라고 하는 명시성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문맥상 콕선희 목사의 설교 특성과 관련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특정한 설교자의 설교 특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편의 설교 분석으로 그 특성을 찾으려 했다는 것은 객관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설교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근거나 관점, 다시 말해서 분석의 척도나 분석의 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들려지는 대로 그래서 느껴지는 대로 설교 분석과 특성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설교분석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김창규 목사는 그의 책 교회 성장과 설교 방법론을 통해 콕선희 목사의 설교관과 콕선희 목사의 설교 특색에 대해서는 앞에 소개되었던 박종순 목사의 책 한국 교회의 설교를 조명한다(I)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별도 항목으로 콕선희 목사의 설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는 아주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콕선희 목사는 복음적인 설교로,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여 오실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의 설교집 인간됨의 현주소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사회적, 예언자적인 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행동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의 설교 맥락은 환경직 목사 설교와 같이 성서적이며 복음적인 즉 케리그마적 설교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다.²⁰⁾

18) Ibid., 97.

19) Ibid., 77-78.

20) 김창규, 교회 성장과 설교 방법론 (서울: 쿰란출판사, 1992), 210.

그러나 이러한 분석 역시 여러 가지 제한성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박선희 목사의 설교 분석이라는 거대한 명제를 밝히기 위해 그의 설교집이 단 한 권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연구 분량에 있어서의 충족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지만 설교 분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히 부분적인 측면만 분석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겠다. 물론 분석된 내용이 바르게 행해졌는지에 대한 검증도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본 논문의 전개를 통해서 차츰 윤곽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사 고찰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자료로서 교회성장 또는 설교와 관련된 박선희 목사 자신의 이론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의 것은 1993년 한국성서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성경과 설교라는 책 내용 중 ‘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설교’ 제하의 박선희 목사가 쓴 글이었다. 두 번째의 것은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에서 편집하여 1994년 도서출판 하나에서 초판 발행된 이렇게 설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책 내용 중 “30초 예술보다 더 확실한 적중도를 위하여” 제하의 역시 박선희 목사가 쓴 글이었다. 세 번째의 것은 1995년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에 소재하고 있는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Doctor of Ministry Program에서 박선희 목사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Contemporary Preaching이었다. 이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 글을 통해 박선희 목사는 교회 성장의 두 가지 요소로 교역자와 교역자의 설교를 지목하되, 먼저 교역자에 관하여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소유할 것과 말씀의 전문가가 될 것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설교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성경의 본 뜻을 항상 새롭고 생생하게, 그리하여 온전히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또 설교의 전달(delivery)에 관해서는 설교도 연출이라는 인식을 가질 것,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할 것, 설교는 예배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할 것 및 오늘의 문화 속에서 오늘의 언어로 올바른 말씀이 전달되어야 할

21) 박선희, “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설교”, 김지철 외 11명, 성경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3), 119-126.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²²⁾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교회성장의 지름길은 성경적 설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래에 그 내용을 직접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경적 설교는 신학적인 문제이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하는 설교가 조금 잘못하면 어느 사이에 성경을 떠나게 된다. 설교학에서는 “목사의 설교가 성경을 떠나면, 교인은 목사를 떠난다.” 라는 말이 있다.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부흥되느냐 하는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생명력이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중생하고 성화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별다른 수단이 필요없다. 얼마나 성경의 생명력을 바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바로만 전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교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교회의 본질에 가까운 교회상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다. 어느 교회나 성장되는 교회는 하나같이 목사의 설교가 성서적이다.²³⁾

두 번째 글을 통해 광선회 목사는 먼저 교회를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첫째, 프로그램과 행정; 둘째, 카리스마적 권위와 운동(movement); 셋째, 설교라는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설교에 대하여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설교; 둘째, 성경적인 설교; 셋째, 본문설교; 넷째, 청중에 적중하는 설교; 다섯째, 쉬운 설교; 여섯째, 교인들로 하여금 감격속에 교회 문을 나서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임을 주장하고 있다.²⁴⁾ 그리고 즐거운 마음과 교회 성장의 관계성에 대해 첫째,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해야 한다; 둘째, 목회자 자신이 행복한 마음으로 목회해야 한다; 셋째, 교회의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후, 끝으로 능력있는 설교를 위해 첫째, 성경 본문은 20번 이상 읽을 것; 둘째, 어떻게 잘 전달할까에 대한 정열을 가질 것; 셋째, 바른 언어를 구사할 것; 넷째, 온 인격으로 전할 것; 다섯째, 원고를 보지 않고 전할 것; 여섯째, 온 몸을 통해서 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⁵⁾ 위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시선을 끄는 대목은 설교의 형태와 관련하여 광선회 목사는 본문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 그의 주장을 직접 소개해 본다.

22) Ibid., 126-130.

23) Ibid., 124.

24) 광선회, “30초 예술보다 더 확실한 적중도를 위하여”, 신성종 외, 이렇게 설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6), 347-362.

25) Ibid., 363-370.

척 스미스 목사님은 제목설교를 아주 정죄한다. 그리고 제목설교를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야기한다. “제목설교란 성경본문을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설교학에서도 제목설교를 가르치지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자주 떠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주제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목설교가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본문설교를 해야 하는데, 본문설교와 성경강해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충실하라고 하면 주석을 쓰고 성경강해를 하기 쉽다. 그러면 따분해서 들을 말이 없다. 그뿐 아니다. 그렇게 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또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꾸 졸게 된다.²⁶⁾

세 번째의 자료는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Doctor of Ministry Program에서 콕선희 목사가 Contemporary Preaching 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한 내용으로서 크게 여섯 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1. 설교란 무엇인가?, 2.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3. 텍스트와 컨텍스트, 4 설교자와 설교의 관계, 5. 설교의 기술과 방법, 6. 교회성장과 설교이다. 그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요약해 보겠다.

“설교란 무엇인가”의 부분에서 콕선희 목사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 첫째, 이야기 또는 예화에 치중하므로써 본문과 관계없는 설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둘째, 생명력이 없는 철학적 설교를 삼갈 것; 셋째, 율법적 설교를 하지 말 것; 넷째, 선포적 설교를 할 것; 다섯째, 재해석이 된 설교를 할 것; 여섯째, 예배로서의 설교, 곧 설교를 들은 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할 것; 일곱째, 대화로서의 설교를 할 것; 여덟째 치유능력으로서의 설교를 할 것; 아홉째, 연출로서의 설교를 할 것 등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잘하는 설교란 원고를 보지 않고 하는 설교, 성경적인 설교, 청중의 언어로 하는 설교,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설교, 교인을 사랑하는 설교임을 주장하고 있다.²⁷⁾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부분에서는 첫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야 할 것; 둘째, 역사 속에 계시된 말씀을 읽을 것; 셋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할 것; 넷째, 설교는 사도적 증언의 특성을 본받을 것; 다섯째, 신앙으로 이성적 비판을 극복할 것; 여섯째, 성례도 상징화된 말씀으로 중요시 할 것; 일곱째, 설교란 설교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설

26) Ibid., 355.

27) Sun Hee Kwak, Contemporary Preaching (Pasadena, CA.: D. Min.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5), 2-7.

교의 마지막 결론을 핵심성경귀절인 키워드 낭독으로 끝낼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²⁸⁾

‘텍스트와 컨텍스트’ 부분에서는 첫째, 텍스트에 충실할 것; 둘째, 컨텍스트 속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설명되게 할 것; 셋째, 컨텍스트 안에 비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것;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문화 속에서 재해석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²⁹⁾

‘설교자와 설교의 관계’ 부분에서는 첫째, 인격적 설교자가 될 것; 둘째, 선택 받은 자로서의 겸손과 사명자로서의 영광을 소유할 것; 셋째, 지식도, 인격도, 경험도 설교를 위해서 쓸 것; 넷째, 실패된 과거도 주님 위해 쓸 것; 다섯째, 복음주의에 입각한 신앙고백적 설교를 할 것; 여섯째, 설교자는 진실성, 권위성, 전문성, 경건성을 지녀야 할 것 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³⁰⁾

‘설교의 방법과 성공 비결’ 부분에서는 첫째, 기독교의 기본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한 설교에서 한 테마만 다루는 본문 설교가 가장 좋다. 둘째, 친절하게 충분한 설명을 하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를 하라. 넷째, 하나님 말씀의 구원하는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다섯째, 설교자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왕의 직능과 하나님 편에서 계시를 전한다는 선지자적 기능 그리고 교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일시 하는 제사장의 직능, 이 세가지 직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설교하라. 여섯째, 화법에 있어서 대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라. 일곱째, 치유한다는 자세로 설교하라. 여덟째, 음성, 발음, 표정, 억양, 제스처, 단어 사용 등의 측면에서 연출자의 자세로 설교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³¹⁾

그리고 ‘교회성장과 설교’ 부분에서는 첫째로 은혜적인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성장시키는 교회는 은혜적이다...은혜적이란 하나님이 주도하고 사람이 응답한다...은혜를 놓치지 말라. 은혜를 쥐고 있어야 한다. 은혜로 결론을 내리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기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다 교만한 사

28) Ibid., 7-14.

29) Ibid., 14-18.

30) Ibid., 18-26.

31) Ibid., 26-31.

람에게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다 교만한 것이다. 신비주의는 철저한 인본주의이다. 은혜주의는 신본주의이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다.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랑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전쟁, 기근, 가난, 염병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³²⁾

즉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춘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 역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내가 깨달은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표본을 놓고 말할 때 사랑하라는 말을 교인들에게 하는 것 보다 당신이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는 점이다. 사랑받는다든 것을 느낀다면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다. …… 결국 케리그마로 가야 한다. 복음주의는 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종말론적인 존재와 사건으로 믿고 들어 가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 여기에서 교회성장이 이루어진다. 속죄, 구원, 사랑, 케리그마적인 신앙, 케리그마적 메시지, 그 쪽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 빛에 의하여 예수의 생애도 조명해야 한다. 예수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에 의하여 해석해 나가라. 출발점은 늘 십자가 사건이요, 구원 사건이어야 한다.³³⁾

이상과 같이 살펴 본 설교론에 대한 박선희 목사 자신의 논문들과 강의를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공통점 내지는 주요 강조점을 아래와 같이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교회성장은 설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로 설교자는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속에서 설교해야 한다. 셋째로 교회 성장을 위한 설교는 은혜적, 복음적, 인격적, 성경적, 예배적 설교여야 한다. 넷째로 텍스트와 테마의 관계에서 볼 때 설교 형태는 본문 설교가 가장 바람직하다. 다섯째로 컨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설교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섯째로 설교의 전달에 있어서는 대화적, 연출적, 치유적이어야 한다. 일곱째로 설교는 설교자의 진실성, 권위성, 전문성, 경건성을 바탕삼아 분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찾아서 간략히나마 소개했고 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우선 자료 자체가 많지 않았으며, 소망 교회의 성장 또는

32) Ibid., 31.

33) Ibid., 32.

곽선희 목사의 설교 분석 등의 연구 자료들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소망 교회의 청중 분석에 관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지 가치있는 자료가 있었다면 소망 교회를 성장시킨 당사자로서 곽선희 목사가 직접 전개한 교회 성장이론과 설교론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들은 앞으로 탐구하게 될 본 논문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분들이 비교, 대조 내지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소망 교회의 최근 7년 기간인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성장 내용이나 설교 분석 그리고 청중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어느 연구와도 중복되거나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기간과 분석하고자 하는 설교 분량 그리고 청중 수 등에 있어서 새롭고도 독립적인 연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7년간의 주일 설교를 대상으로 삼는 자료의 새로움, 성경 문학 유형과 관련된 설교 분석이라는 방법론의 새로움, 그리고 결론 부분에 제시될 연구 결과 등이 그 근거라 할 수 있겠다.

제4절 연구의 방법

소망 교회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없고 새 신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없으며 교인 총동원 주일을 위한 행사가 없다. 일년 내내 심령 대 부흥성회도 없고, 치유, 이적, 예언, 축복, 집회도 없으며 철야 기도회도 없다. 요즈음 흔히 유행하는 경배와 찬양 집회 조차도 잠깐 실시하다가 폐지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교회들을 휩쓸고 있는 위에 예시된 여러 가지 종교 현상들을 모두 배제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다. 경건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서의 설교가 청중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관심은 당연히 그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설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설교에 화답하는 청중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설교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며 그리하여 설교와 청중 사이에는 신앙의 역동적 일치성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는 엄청난 성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에 있다. 소망교회에서 행해지는 콕션회 목사의 설교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일에 네 차례에 걸쳐 선포되는 주일 예배시의 설교이고, 두 번째는 수요일 저녁 시간에 삼일 기도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행해지는 설교이며, 세 번째는 날마다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회에서 들려지는 설교이다. 모이는 예배의 종류에 따라 참석하는 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뒤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보다는 수요일 기도회 모임이, 또 수요일 기도회 모임 보다는 새벽 기도회 모임이 더 신앙 단계가 높은 수준의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교인들이 참석할 뿐 아니라 설교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두면서 준비하는 설교는 단연 주일 설교이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야 말로 교회 내적으로나 교회 외적으로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일 설교는 특정인에 한정될 수 없고, 특정 그룹만을 겨냥할 수도 없다. 주일 설교는 그래서 대중적이어야 하고 전체적이어야 한다. 청중의 컨텍스트도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 다양성 속에 있는 청중들을 텍스트의 재해석을 통해서 신앙의 일치성으로 이끄는 것이 주일 설교이다. 따라서 주일 설교는 설교자의 분명한 신학과 출중한 설교법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요청되기 마련이다. 주일 설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일 설교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필생의 연구과제이기 때문이다. 콕션회 목사의 설교는 이미 여러 권의 설교집으로 출판되었다. 그 설교집은 절기별로 라든지, 성경 책별로 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만으로 라든지 하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편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권의 설교집만을 분석한다면, 그것은 콕션회 목사의 설교 중 어느 특정 범위에 국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편성과 대표성을 지닌 설교 분석을 위해서 매주일 설교된 내용을 소책자로 배포하는 ‘소망의 말씀’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밝혀야 할 것은 청중 분석을 위한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청중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 방법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물론 설문 조사 방법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회수율의 저조에 따른 신뢰도의 문제, 특히 익명적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고의적으로 무책임하게 설문에 응하는 경우 등 중요한 단점들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청중이 알리고

싶은 내용 만이라도 객관성을 띄고 작성에 임하는 ‘개인 등록 카드’가 더 좋은 자료일 수 있다는 데에 착안하였다.

소망 교회에서 사용하는 ‘개인 등록 카드’의 양식에는 등록일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주소, 신급, 학력, 직업 그리고 가족 사항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런 항목들은 기록자의 주관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간혹 이런 항목들조차도 무슨 이유에선지 잘못 기록하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새 신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구자로 하여금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청중의 특성을 분석할 때 다수 청중 즉 전체로서의 청중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기에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청중들의 ‘삶의 자리’를 분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언급할 차례가 되었다. 그것은 연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장 서론 가운데 제3절 연구사 고찰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망 교회 성장이나 설교 분석 및 청중 분석에 관한 자료는 극히 미약할 뿐 아니라 일정한 분석적 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이미 지적했었다. 본 연구에서 행해지는 두 개의 큰 축 가운데 하나는 설교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청중 분석이다. 먼저 설교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해돈 로빈슨(Haddon W. Robinson)은 그의 저서 성경적 설교들 (Biblical Sermons)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열 두명의 설교자로부터 각각 한 편씩의 설교를 제공받아 그 설교들을 그대로 실어 준 후, 모든 설교마다 나름대로의 설교 분석을 행했으며 또 설교자와의 일문·일답을 소개함으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일문일답은 주로 설교 작성 시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설교를 행하는 시간, 주제, 준비 과정, 주석 사용 여부, 예화 문제, 원고 작성 문제, 본문 선택 문제, 서론과 결론 문제, 전개 논리의 스타일, 청중의 반응과 분석 문제, 서술 형태 문제, 테크닉의 문제, 어휘 선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다뤄지고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설교 분석에 관한 것이다. 알려진 대로 해돈 로빈슨은 강해설교 학자로서 이 책에서도 자신의 설교학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때, 그의 설교 분석의 기준은 강해설교의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설교 흐름은 과거의 제목 설교에서 탈피하여 강해설교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강해설교 역시 그 자체로서 지

니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모든 설교 형태의 최종 결론이라고 보아서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설교분석도 강해 설교의 척도로만 행해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텍스트와 테마의 관계를 고려하여 강해설교도 그 한 분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귀납적 설교 학자로 알려져 있는 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은 설교 연구에 있어 두 개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개의 초점은 청중들에게 맞추어져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제반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또 하나의 초점은 성경 본문에 맞추어져 하며 본문의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인 배경을 또한 포함해야 한다.³⁴⁾

특히 광선희 목사는 1995년 10월 파사데나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행한 Doctor of Ministry Program 과정의 현대 설교학 강의를 통해, 테마와 텍스트의 관계성에 따라 제목설교와 본문설교 그리고 강해설교로 구분한 후,³⁵⁾ 근래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기본 복음이라는 하나의 테마에 초점을 맞춘 본문설교가 가장 좋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³⁶⁾

따라서, 설교 분석을 위한 첫 번째 기준은 본문과 주제, 즉 텍스트와 테마 관계를 고찰하는데다 두게 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설교의 형태 분류로써 행해진 설교들이 제목설교인지, 본문설교인지, 강해설교인지 또 그 비율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설교 분석을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설교의 구성 내지는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교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설교 제목의 표현, 서론의 유형들, 결론의 유형들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은 헨리 브라운(H.C. Brown) 외 두 명이 집필한 설교의 구성론 (Steps to the Sermon)에 제시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본론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은 헨리 브라운의 본론구성에 대한 내용이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산만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설교 분석의 세 번째 기준인 수사법적 분석에서 본론 구조의 특성 여부도 포괄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다. 설교 분석을 위한 세 번째 기준인 수사법적 고찰은 수사법 자체가 지금까지 언어의 유희라든지 허황된 언어적 장식이라든지 인위적이고도 비도덕적인 표현 등으로 그 가치가 격하됨으로써 매우 부정적으로 인

34) Fred B. Craddock, 설교 (Preaching), 김영일 옮김 (서울: 컨콜디아사, 1990), 102.

35) Sun Hee Kwak, Ibid., 3.

36) Ibid., 27.

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디 엠 로이드 존스(D.M. Lloyd-Jones)는 그의 책 목사와 설교 (Preaching & Preachers)에서 회랍 철학과 기독교를 쇠퇴시킨 것은 미사여구로 꾸미려는 지나친 수사학 구사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에드윈 헤치(Edwin Hatch)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 점은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참된 설교에 미친 가식적인 설교주의(Pulpitism)의 나쁜 영향에 대해 지적하는 것과 아주 실제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식이 알맹이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웅변과 능변이 그 본질이 되어버려 결국 설교가 오락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리는 외면해 버려 그저 슬쩍 넘겨 버리고 중요한 것은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 점에 대한 반감을 체험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알맹이의 결핍대신 형식과 표현에 대한 과민으로 참된 설교를 저질로 떨어뜨린 다음 대중 설교 형태가 성행하던 20세기에 이 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표현한 바와 같이 직업주의로 탈바꿈을 했습니다.³⁷⁾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비판은 매우 신랄한 것으로서 수사법에 대해 과신하고 수사법적으로만 접근하려는 설교자들은 모두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수사법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퀘변론자들에 의해 남용내지는 오용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설교가들에 의해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약화되고 외적 장식만이 화려해진다면 그러한 설교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수사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대두되었다. 즉 수사법은 단순한 문장 꾸밈 차원이 아니라 설득의 과정에서 생겨진 기교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³⁸⁾ 이런 취지에서 신약신학자인 벌턴 L. 맥(Burton L. Mack)은 새로운 성경해석학의 한 시도로서 “수사학적 성서해석”을 주장한다. 즉 모든 신약성서의 기록들을 ‘수사학의 구조’라는 틀로 끼워 맞추고 있다. 물론 성서를 모두 다 수사학의 구조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³⁹⁾일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은 수많은 수사법으로 이루

37) D.M. Lloyd-Jones, 목사와 설교 (Preaching & Preacher), 서문 강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7-18.

38) Burton L. Mack, 수사학과 신약성서 (Rhetoric and the New Testament), 유태엽 역(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27-28.

39) 박희춘, “어거스틴의 설교학에 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1995), 55-56.

어진 문예본문(literary text)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⁴⁰⁾ 이와 관련해서 김지찬 교수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성경에 수사법이 많이 쓰였다는 점이 성경을 허구의 글이나 단순한 성경 기자의 창작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경은 역사적(historical) 요소와 신학적(theological) 요소와 문예적(literary) 요소가 통합적으로 잘 결합된 유기체이다.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일들(역사)을 성령의 영감과 계시를 받아 제대로 해석(신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도록 수사법이라는 설득의 장치(문예성)를 통해 표현된 것이 성경인 것이다. 따라서 수사법 운운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성과 영감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물론 개혁주의 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성경의 유기적 영감을 믿어온 전통적인 개혁 신앙의 신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설득의 장치나 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사진 찍듯이 기록한 연대기의 형태나, 종교적 사상들을 담은 추상적 논문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면, 성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수사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마저도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전인적 감동력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설득력에 기인하는 것이다.⁴¹⁾

이런 이유로 설교자들은 먼저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 성경 본문에 쓰여진 수사법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한다. 수사법은 내용과는 관계없는 형식적 요소, 장식적 겉치레가 아니라, 본문의 핵심 의미를 전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수사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성경 본문에 사용된 수사적 장치들을 찾아낸 후에, 이 장치들이 메시지 전달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세심히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수사학적 도구들을 사용해서 교인들에게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⁴²⁾

여기까지 도달함으로써 설교를 분석할 때에도 수사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성경 본문에 대해 역사 비평법(historical-critical approach)의 공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수사적 측면의 접근법을 더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40) 김지찬, “설교자는 수사학자가 되어야 한다(Ⅰ)”, 신학지남 제251호 (1997. 여름): 257-258.

41) Ibid., 272.

42) Ibid., 302.

이런 유형의 역사적 질문은 가끔 본문의 배후에 관한 철저한 조사처럼 보인다. 이 본문의 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이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러한 역사적인 질문과 관심을 버릴 필요는 없으나, 이 역사 비평에다가 다른 질문들을 더하여서 폭과 깊이를 증가하여야 한다. 그 질문들은, 본문 안에 있는 문학적 특징들과, 본문의 깊은 수준을 해석하기도 전에 본문과 독자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수사적인 동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에로 이끌어 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질문을 함은 전통적인 역사 비평의 경계선을 넘기도 하고, 넘지 않기도 한다. 본문의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측면에 관하여서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나,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은 우리의 접근법에다가 초점을 맞춰 줄 것이다.

1. 본문의 장르는 무엇인가?
2. 이 장르의 수사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3. 이 장르는 수사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여서, 어떤 문학적 방법 devices을 사용하는가?
4. 본문 안에 있는 문학적 배경을 고찰하여 볼 때에, 본문은 특히, 위의 세 가지 질문으로 서술한 본문의 특성과 동력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이러한 해석학적인 질문들에다가 우리는 설교학적인 질문을 하나 더할 수 있다.

5. 본문을 쓴 상황 안에서 본문이 말하고, 기능하던 바가 현대의 새로운 상황 안에서 하는 설교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는가?⁴³⁾

토마스 롱은 위의 다섯가지 질문을 시편, 잠언,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서간문에 적용함으로써 성서적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접근법이 성서에 있는 특정한 장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설교분석 중 수사학적 접근에 관하여는 토마스 롱의 이론에 준거를 두고 그가 선택한 성서의 문학 유형과 성서 본문에만 한정하려고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무 방대한 분량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거니와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계획에 의해 지난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소망 교회 주일 설교 가운데 시편, 잠언,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서간문을 대상으로 삼되 그 중에서도 토마스 롱의 책 성서의 문학 유형과 설교에서 실재를 다루고 있는 본문만을 발췌하여 그에 해당되는 설교문과 토마스 롱의 이론을 서로 비교하게 될 것이다.

43) Thomas G. Long, 성서의 문학 유형과 설교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박영미 옮김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5), 45-46.

청중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개인 등록 카드’에 기재된 내용들을 분야별로 분류한 후 통계 처리하는 작업을 일차적으로 행하였다. 그리고 분야별 분포정도를 파악하면서 그것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되 대한민국 통계청과 서울특별시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그 특성을 발견토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소망 교회 새 교우들에 대한 삶의 자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었다.

제5절 연구의 단계

앞으로 이 논문은 네 부분(section)으로 전개되어질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교회 성장과 설교가 어떠한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성경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탐구될 것이다.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행해진 주요 설교들을 고찰하고 그 설교들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신약 시대의 교회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설교와 교회 성장의 관계성에 대해 성서신학 이론과 설교학적 이론 그리고 교회성장학적 이론들이 근거로 제시될 것이다. 역사적 측면에서는 초기 교회와 중세 교회 그리고 근세 교회와 오늘의 소망 교회 상황에서 설교가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의 소망 교회 주일 설교 341편에 대한 분석이 있게 될 것이다. 설교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와 테마, 설교의 형태적 특성 그리고 설교의 수사학적 특성 등에 제한하여 집중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텍스트와 테마 부분에서는 일차적으로 본문 사용에 대한 분석과 설교 주제의 특성에 관한 분석을 한 후 텍스트와 테마의 관계성 분석을 통해서는 연구 대상 기간의 설교들이 제목 설교인지 본문 설교인지 강해 설교인지 구분될 것이다. 또 설교의 제목이 표현되는 유형들과 설교의 서론과 결론 부분에 사용된 형식들을 살펴봄으로써 설교의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특히 수사법적 분석은 수사학의 새로운 이론에 기초하여 성경의 문학 유형과 관련해서 그 특성을 고찰하게 될 것인바, 이는 설교 분석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주일 설교를 듣고 응답한 청중들에 대한 분석이 있게 된

다. 가장 분명한 응답은 설교를 듣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로 판단되기 때문에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주보에 등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하게 될 것이다.

신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등록교인의 신급에 따른 분류를 한 후 그 분포의 의미를 고찰하게 되며, 아울러 무작위로 선택된 교인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신앙관의 일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경제,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는 청중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과 주거 형태를 파악하게 되므로써 그들의 문화적 기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연령과 학력과 직업적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문화적 수준 및 경제적 특성 정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두 번째 부분에서 분석된 주일 설교의 특성과 세 번째 부분에서 분석된 청중들의 특성을 연관지어 특정한 신앙과 문화와 경제적 특성을 지닌 청중들에게 어떠한 설교가 가장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설교가 청중의 상황에 꼭 맞게 들려질 때 교회 성장이 가능해 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새로운 청중의 상황에는 어떠한 설교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제 2 장 교회성장과 설교의 관계성

제1절 성경에 나타난 교회성장과 설교

1.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공동체의 성장과 설교

설교의 기원과 역사를 언급하고자 할 때 다간(E. C. Dargan)의 견해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고대 웅변(Ancient Oratory)과 히브리 예언(Hebrew Prophecy) 그리고 기독교 복음(Christian Gospel)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설교의 배경임을 주장하였다.¹⁾ 즉 복음은 히브리 예언에 의존해 있고 또 고대 웅변술에 영향을 입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간(E. C. Dargan)의 입장은 웅변술이나 구약 예언은 준비적이고 보조적인 요인이라면 복음이 바로 설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²⁾ 여기서 생각할 점은 설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또한 교회의 기원을 언제로 보느냐 하는 관점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는 없는 듯 하다. 그리고 이와같은 맥락에서 관찰한다면 설교의 역사도 원시교회 이후의 시대로 한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순절 이전의 예수 시대에도 신앙 공동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은 또한 구약 시대에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시대와 구약 시대에도 비록 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무리들이 교회의 전신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설교를 특정한 회중들에게 전하는, 또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오순절 이후 시대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예수 시대와 구약 시대에서도 얼마

1) E. C. Dargan, A History of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House, 1954) I, 14.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8), 13에서 재인용.

2) Ibid.

든지 교회와 설교의 관계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공동체와 설교의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물론 성경 전체가 각 시대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 시대에 구체화된 설교 부분을 가려내어 그것이 회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교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언자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회중이 필수적인 요소로 있어야 하는 만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그 시대부터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모세는 본래 능변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말에 능치 못한 자인 것과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사람인 것을 밝히고 있다.³⁾

물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스테반의 설교 내용에 의하면 모세는 애굽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 따라서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두 기록을 조화시키려면, 일단 스테반의 설교에 수긍하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기록된 모세의 말은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회피하기 위해 행한 변명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스테반의 모세 평가와 하나님 앞에 선 모세 자신의 평가에는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스테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모세는 그의 나이 사십의 전성기였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목동의 일을 하며 지낸 다음 곧 팔십 노인이 되어서였다. 그러므로 앞에 언급한대로 상반된 듯이 보이는 두 개의 성경 본문은 아무런 모순도 없이 기록된 그 자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던 때의 모세는 말에 능했으나 사십 년 후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당시의 모세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늙은 목동이었을 뿐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도울 사람으로서 아론을 지명하여 주셨던 것이다.⁵⁾

그리하여 애굽으로 간 모세는 아론과 만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은

3) 출애굽기 4:10.

4) 사도행전 7:22.

5) 출애굽기 4:14. 본문에 의하면 아론이 말 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었다.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었다.⁶⁾ 여기에서 주의깊게 관찰해 볼 사항은 설교와 청중의 반응에 대한 것이다. 우선 청중들인 백성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경배했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믿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행함의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 그러므로 설교와 이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각기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성들이 경배했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인 קָנַע 의 뜻이 ‘몸을 구부리다’, ‘납작 엎드리다’, ‘존경하다’ 등의 의미로서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사건이 발생한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예배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동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난 후’ 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의 설교는 그들의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 또한 예배하게 하는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모세가 전한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였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혹독함과 마음의 상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⁷⁾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에 있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언제나 신앙의 회복과 부흥 또는 교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성장이 뒤따랐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그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⁸⁾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받아들이

6) 출애굽기 4:27-31.

7) 출애굽기 6:1-9.

8) 출애굽기 7:3-4.

지 않는 현상은 때때로 섭리적 결과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에까지 간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더욱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긍정적 섭리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자주 나타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리고 그 때마다 하나님의 징벌하심과 은혜 베푸심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는 그 후손들이 요단 강 동편 모압 땅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구약 성경 신명기는 이 곳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 세 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세 편이 끝날 때마다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모세의 설교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곳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모세가 죽어 장사된 후 그를 계승한 후계자에게 보인 백성들의 태도를 보아 확실히 지적할 수가 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⁹⁾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가 행했던 설교는 그의 청중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삶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였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일이 눈 앞의 지상 과제로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다. 메시지의 내용인즉 언약궤가 앞설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면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쌓여 서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¹⁰⁾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전한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

9) 신명기 34:9.

10) 여호수아 3:9-13.

은 어떠한 반론이나 반감의 표시도 없이 즉시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이다. 말씀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요단 강 도하 후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의 싸움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는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것이다. 양각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도 역시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 실시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들 모두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는 빛나는 승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지도 사역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집약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그리고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¹¹⁾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 하오리니…’,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며 재삼재사 신앙을 다짐하였다.¹²⁾ 이처럼 여호수아의 설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그 당시에 오늘의 교회 성장 개념과 같은 숫적 성장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논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정한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의 숫적 증감에 대하여 성경이 객관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신앙적인 각성과 새로운 각오를 되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 성장과 동일시하여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신앙공동체의 성장과 관련하여 사사시대 후기에 주목할 만한 사건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사무엘에 의해 미스바에서 행해진 소위 ‘대성회’로 불리어지는 사건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 상황은 오랫동안의 암담한 영적 방황의 세월 속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였다. 이즈음

11) 여호수아 23장-24장.

12) 여호수아 24:16-24.

명실 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무엘은 말씀에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쳤고 회개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보낸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¹³⁾ 더 간명하게 줄인다면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 간단한 설교가 있을까? 그렇지만 간단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의 효과는 거대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즉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다.¹⁴⁾ 곧 이어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는 직접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¹⁵⁾ 전쟁에 이긴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가능해지기까지의 과정에는 말씀 선포와 회개 기도가 전제되어 있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회개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신앙공동체의 놀라운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한 설교와 기도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합왕 시대에 갈멜 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백 오십 명의 대결은 또 다른 형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측이 각각 한 마리의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 제사할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자고 약속한 후 바알 선지자 측은 그 대결에 실패하고 말았으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과 나무 뿐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채웠던 물까지 증발시켜 버림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와 같은 귀중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엘리야의 확신에 찬 신앙과 그 믿음에 터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되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를 하나님인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¹⁶⁾

13) 사무엘 상 7:3.

14) 사무엘 상 7:4.

15) 사무엘 상 7:5-11.

16) 열왕기 상 18:36-37.

이것은 분명히 기도였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여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제단과 그 주위까지를 태워 버리셨다. 그 결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눈 앞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놀라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 라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였다.¹⁷⁾ 그러나 그 기도는 또한 설교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우선 내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전능성과 엘리야의 연약성을 대비시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목적삼고 있다는 것은 그 기도가 설교적 기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에 대하여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도의 형식(form)을 지닌 설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뒤 이어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더욱 확인해진다. 갈멜 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올라가 먹고 마시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한 후,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큰 비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⁸⁾ 이에 대하여 성경에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명백히 기록해 놓았다.¹⁹⁾ 즉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인 갈멜 산 대결에서 행한 엘리야의 언행은 기도의 예로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도의 형식을 띤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케 하였고 그 결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였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갈멜산의 신앙 부흥은 기도 속에 들어 있는 엘리야의 메시지와 그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적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부흥과 성장에 대하여 크게 주목받고 있는 성경의 근거들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의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에스라의 사역과 관계된 것이다. 그의 사역의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끝낸 후였다.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로부터 외적 침입을 막아주는 방비벽이 구축된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의 적 곧 영적 태만과 영적 기갈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강대국들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사방으로 흩어진 역사적 상황으로 해서 그리고 오랜 세

17) 열왕기 상 18:39.

18) 열왕기 상 18:41-43.

19) 야고보 5:17-18.

월의 흐름이 있고 난 후에야 되돌아온 형편 속에서 그와같은 현상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귀결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다. 느헤미야서에 의하면 칠월 일일 곧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안식의 달이요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날이 되는 뜻 깊은 날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특이한 것은 에스라의 율법 낭독 후에 적으면 십 수명, 많으면 수 십 명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해석하여 주었다는 것이다.²⁰⁾ 여기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협동목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에스라가 전면 중앙에 위치하여 율법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협력자들이 회중들 사이사이에서 율법을 풀이하여 깨닫게 해주는 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켰느냐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중용하고 근심하지 말라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 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앎이니라.²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눈물을 흘린 것을 가리킨다.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백성들을 위로했으며 동시에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기쁨을 누리도록 권면한 것을 볼 수 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하여 구원 얻은 자로서 기독교 윤리적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었을 때 눈물의 회개와, 구원의 기쁨과, 기독교 윤리적 삶이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연장선상에서 범민족적 회개운동과 언약 갱신, 백성들의 예루살렘 재정착 및 신앙과 생활의 단호한 개혁 조치 등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²⁾

20) 느헤미야 8:1-8.

21) 느헤미야 8:9-12.

22) 느헤미야 9장, 11장, 13장.

이런 의미에서 김우영 목사는 부흥회와 교회성장에 관련한 구약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미스바의 부흥 운동, 갈멜 산의 부흥 운동, 니느웨의 부흥운동, 요시아 왕의 부흥 운동 그리고 에스라의 부흥운동 가운데 후자 곧 에스라의 부흥운동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기 쉬운 오늘의 부흥회에 있어서 에스라의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³⁾

설교가 신앙공동체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구약 성서적 근거를 살피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요나의 설교와 니느웨 도성의 회개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는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 도성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하여 도피했으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 것이었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었다.²⁴⁾ 즉 일정기간 동안 심판이 유예되고 있지만 불원간 매우 급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요나의 민족감정에 기인한 심리상태에 의거해서 볼 때 그는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했다기 보다는 멸망을 예측하고 그 사실을 선언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니느웨가 회개한 후에 불만을 표시하는 요나의 태도에서도 입증된다 하겠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 보다는 심판에 비중을 둔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었다. 그런대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왕과 대신들과 니느웨의 온 백성들이, 나아가서는 심지어 생축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함으로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이다.²⁵⁾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몇가지 분명한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설교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결과가 초래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마로써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실

23) 김우영, 부흥회와 교회성장 (서울: 쿰란출판사, 1996), 21-27.

24) 요나 3:4.

25) 요나 3:6-10.

망할 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다음으로는 니느웨 도성의 백성들처럼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큰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과 부흥이 있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 대해 공동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그것은 곧바로 교회성장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설교들이 신앙공동체의 부흥이나 성장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간략히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능변가이든지 능변가이든지, 메시지의 내용이 구원이든지 심판이든지, 설교의 형태가 권면형이든지 명령형이든지, 설교에 동반되는 것이 기적적인 사건이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가 능력있게 청중들을 압도했을 때 그들에게는 회개와, 믿음과, 기독교적 윤리와 공동체적 각성과 새로운 부흥 성장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이것이 설교를 중시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근거들 중 하나이다.

2.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성장과 설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복음서 사이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인용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의 예비자라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모두 소개되고 있다.²⁶⁾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 자신은 먼저가 아니요 예수가 앞선 자인 것을 요한복음에서²⁷⁾ 언급하고 있으며 역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요한 스스로 예수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과 자신이 물세례를 준 것과는 달리 예수가 성령 세례를 주시리라고 선언하고 있다.²⁸⁾

물론 관심이 끌리는 부분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간접적인 표현형식을 빌어 기록되고 있다.²⁹⁾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는

26) 마태복음 3:3, 마가복음 1:23, 누가복음 3:4-5, 요한복음 1:23.

27) 요한복음 1:15.

28) 마가복음 1:7-8, 누가복음 3:16, 요한복음 1:26.

29) 마가복음 1:4, 누가복음 3:3.

마태복음에서 직접적인 표현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고³⁰⁾,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그릇된 신앙에 대한 질책과 회개 촉구 및 예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³¹⁾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무리들을 향해 회개와 심판 뿐 아니라 구제하는 삶과 청렴한 공직 생활 등 윤리적 교훈까지 포함시켰음을 기록하고 있다.³²⁾ 청중들의 반응에 대하여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소개되어 있는 반면³³⁾,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매우 큰 영향력이 나타났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즉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다.³⁴⁾

종합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의 성격을 예수의 예비자로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의 메시지는 임박한 진노의 심판과 회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³⁵⁾ 그러한 요한이 결국은 분봉왕 헤롯에 의해 투옥되긴 했지만³⁶⁾ 그의 설교는 수많은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으며 일부 불신앙적 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앞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예수를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백성들이 영적 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 솔선 수범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설교와 설교적 삶은 오늘의 교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 대하여는 사복음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은 공관복음서 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이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명의 제자를 부르기 직전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복음전파의 제 일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30) 마태복음 3:2.

31) 마태복음 3:7-12.

32) 누가복음 3:7-14.

33) 누가복음 3:15-20, 요한복음 1:19-28.

34) 마태복음 3:5-6, 마가복음 1:5.

35) Leonhart Goppelt, 신학신학 I, 박문재 옮김(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68-77. 그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 임박한 진노의 심판, 회개로의 부름, 요한의 세례, 오실 자 등 네가지 신학적 주제가 있다는 것과 그 주제들은 동시에 유대 구원론의 주제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36) 누가복음 3:20.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³⁷⁾

내용적으로 볼 때 지극히 간단한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메시지였음을 알 수 있다. 천국은 예수의 성육신 자체의 목적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총체였고 회개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절대적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회개와 그로 말미암은 구원 즉 천국 백성됨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또 죽으셨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는 곧바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첫 메시지의 전파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을 때 결국에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았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³⁸⁾ 즉 대단한 청중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가복음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의 가르치심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³⁹⁾

마태복음 4장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았을 때 그들은 예수의 말씀과 함께 예수의 병고치는 기적도 보았기 때문이라면, 마가복음 1장 22절은 치유 또는 축귀의 기적을 보기 이전의 반응이었다는 데에 그 차별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의 상황에서는 단지 예수의 가르치심 그 자체가 청중들을 압도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 이유는 그 당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임무를 지닌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예수와 서기관들의 가르침

37) 마태복음 4:17.

38) 마태복음 4:18-25.

39) 마가복음 1:22. 신약성서신학자 비슬리-머리(G. R. Beasley-Murray)는 그의 저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Jesus and The Kingdom of God),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157-158에서 누가복음 4:16-30에 있는 예수의 설교에 관해 설명하면서, 저자 누가의 저작 의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누가가 마가복음 1:15의 의미와 동일한 설교를 길게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 1:15에 포함된 성취의 요소를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선포와 행위에 있어서 신적 주권의 임재를 명백히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설교가 권세있었던 것은 그 권세가 신적 권세였기 때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은 달랐던 것일까?

다음은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방법과 내용 및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방법과 내용 사이의 차이점들이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에⁴⁰⁾ 반해 서기관들의 설교는 대부분이 와전된 것이었고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사변적인 것들이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중대한 의미가 담긴 문제들, 곧 생명과 사망 그리고 영원에 관한 문제들을 제시하셨지만 서기관들은 하찮은 문제들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였다.⁴¹⁾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내용에는 체계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탈무드(Talmud)경이 그렇듯이 서기관들은 자주 증언부언하였다.⁴²⁾ 넷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례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청중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셨지만 서기관들의 설교는 고루하고 형식적인 데만 얽매어 있었으므로 메마른 심령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자요, 그들의 영원한 축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로서 말씀하였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에 대해 언급하셨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 여섯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본 구절에 진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이는 그가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실행 능력을 겸비한 탁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⁴³⁾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곧 아버지의 메시지요, 성경의 메시지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그들의 스승들의 유전에서 온 것으로서 교작 스승들의 교훈을 인용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었다.⁴⁴⁾ 그들은 마치 깨어진 물통에서 물을 퍼내려고 헛되이 노력하였던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생수의 근원’⁴⁵⁾이 되시어 자신으로부터 물을 공급하셨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당시 종교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차이는 근본적인 면에서 상이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듣고 백성들이 놀랐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⁴⁶⁾

한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을 이긴 후에 공생애 첫 사역을 행한 일을 누

40) 요한복음 14:6, 18:37.

41) 마태복음 23:23, 누가복음 11:42.

42) 마태복음 6:7.

43) 요한복음 8:26.

44) 마가복음 7:8, 7:13, 마태복음 15:2, 15:3.

45) 예레미야 2:13.

46)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주석 마가복음 (서울: 기독지혜사, 1990), 51.

가복음은 아주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갔고 직접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못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다.⁴⁷⁾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예수의 첫 메시지의 내용을 생략한 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과 그 결과로서의 청중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한 마디로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언급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단지 1장에서의 제자들을 부르심과 2장에서의 처음 표적 및 성전 정화 사건을 거쳐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형식을 통해 교훈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교훈하였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고 말지만⁴⁸⁾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는 니고데가 예수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독단적인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⁴⁹⁾ 더 나아가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아리마대 요셉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참여한 것을 볼 때⁵⁰⁾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그녀의 반응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후 즉시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증거하였고⁵¹⁾ 그녀의 증거 때문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⁵²⁾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그 대상이 청중이든지 개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복음에 대해 경이감을 갖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칭송하게 하는 등의 놀라운 변화를 초래케 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 대해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거론한다면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귀중한 가르침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의미하는데

47) 누가복음 4:14-15.

48) 요한복음 3:1-15.

49) 요한복음 7:50-51.

50) 요한복음 19:39.

51) 요한복음 4:29.

52) 요한복음 4:39.

이와 관련된 병행귀절은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교훈이 평지에서 행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⁵³⁾, 내용상 복받을 자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하여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언급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마태복음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나타나는 내용들인 반면에, 마태복음의 내용들은 누가복음 곳곳에 분산되어 나타나며 그나마 분산된 내용들을 모두 합쳐도 분량상으로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청중들의 반응이 명료하게 소개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청중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즉 팔복에 대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하여, 율법의 완성에 대하여, 미움과 살인에 대하여, 간음과 이혼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복수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완전성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보화에 대하여, 염려에 대하여, 비판에 대하여, 간구와 응답에 대하여, 황금률에 대하여,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기초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대하여는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왔다. 그것이 한 편의 설교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한 설교들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인지를 견해 차이도 그러한 논쟁거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누가복음의 평지수훈과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또 해석상 산상수훈이 은혜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도덕 실천에 비중을 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적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냐에 대해서도 각기 나름대로 주장을 펼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앞에 제기된 여러 논쟁들을 모두 취급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들은 본 논문의 주제와는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의의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청중들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53) 누가복음 6:17.

할 삶의 기준으로서의 의의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에서 건져내시며 광야에서 돌보시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신앙 삶의 기준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나중에 출애굽시키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먼저 산상수훈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의 첫 설교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으며 산상수훈은 그 후에야 청중들을 향해 주신 예수의 메시지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는 그 기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신 설교의 말씀이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구속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⁵⁴⁾

그런데 산상수훈의 이러한 구속사적 의의는 오늘의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칭호인 것을 생각한다면 한국교회가 이 영역에 대해 특별한 각성과 신앙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상수훈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끝난 직후에 즉시 나타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표현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에 이어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풀었던 때의 기록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즉 마가복음 1장 22절과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귀절은 거의 자귀까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⁵⁵⁾

이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랍비 요셉 클라우스너는 「나사렛 예수-그의 생애와 시대와 교훈」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복음서 전체를 훑어볼 때 구약이나 외경 혹은 예수의 시대와 가까운 시대의 탈무드와 미드라쉬 문헌에서 그 병행 귀절을 찾아볼 수 없는 윤리적 교훈이라곤 한 마디도 없다고 강조하였

54)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주석 마태복음 (서울: 기독지혜사, 1990), 249.

55) 마태복음 7:28-29.

다.⁵⁶⁾ 그러나 신약 신학자 브루스 M. 메츠거는 요셉 클라우스너의 주장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입증시키는 근거로 다음의 네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장로들의 전승들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발췌하셨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대로의 모세의 율법 중에서 부적합한 주변문제들은 다 추려내 버리고 오직 핵심적인 원리들만 남긴 것이었다. 그 많은 것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데에는 확실히 천재적 재능이 따라야 했던 것이다.⁵⁷⁾

둘째로 예수께서 비록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격언들을 채택하셨지만, 때로는 동일한 말일지라도 다른 측면을 강조하시는 데 사용하셨다. 그는 외적인 규정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동기에 더 큰 비중을 두셨다. 예수님과 그 당시 서기관들이 다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 말했지만, 서기관들은 대체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역설하셨다.⁵⁸⁾

셋째로 예수께서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추출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취지의 맥락에서 그 원리들을 파악하셨다. 가령 이를테면 그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취하여-원래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인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다(레 19:18). -아무런 유보없이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셨다.⁵⁹⁾

넷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독창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많은 적든 새로운 자료의 양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새로운 종교적 개념 및 경험과 연관지으신 방법이다. 모든 윤리적 교훈의 마지막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정작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신 것이다.⁶⁰⁾

이와 관련하여 G. E. 레드는 특히 산상수훈이 윤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56) Joseph Klausner, Jesus of Nazareth, his Life, Times and Teaching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5), 384. 브루스 M. 메츠거, 신약성서 개설, 나채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178에서 재인용.

57) Bruce Manning Metzger, 신약성서개설(The New Testament-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나채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178.

58) Ibid.

59) Ibid.

60) Ibid. 179.

예수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윤리이다. 그것을 예수의 메시지와 사역의 전체 맥락과 분리시킬 수 없다. 예수의 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자들에게만 타당성이 있다. 예수의 윤리 교훈들의 대부분이 유대적 교훈들과 평행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대적 교훈들 가운데 어떤 것도 예수의 윤리만큼 청중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쉬나의 한 귀절을 읽는 것과 산상설교를 읽는 것은 별다른 경험이다. 예수의 교훈에 있어서 독특한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격을 통해서 인간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윤리적 요구 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함으로써 의의 새로운 차원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⁶¹⁾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 대해 종합해 볼 때가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여 예수의 설교를 정리해 본다면 그의 설교는 회개의 설교, 천국의 설교, 사랑과 은총의 설교, 하나님 중심의 설교, 구원의 설교, 예언 성취의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의 설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적 설교에 식상한 당시 사람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생명의 설교였다. 또 예수의 설교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었다. 그러면 그러한 위대한 효력의 설교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며, 그의 메시아로서의 소명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⁶²⁾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독창적이며 신선하였다. 결국 오늘의 설교의 모형은 예수님 자신과 그의 메시지에서 발견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⁶³⁾

사도행전은 설교가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의 무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기독교 공동체의 주역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시 무지하고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으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 위대한 사명을 놀랍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들의 무리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또 바울이 있었다. 사도행전은 이 두 중심 인물을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에 위치시키고 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주

61) G. E. Ladd, 신약 신학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신성종·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13판), 139.

62)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중신대학교 출판부, 1996), 76-77.

63) Ibid., 77.

로 베드로의 설교와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수리아의 안디옥을 중심무대로 하여 바울의 설교와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외에는 집사 스테반과 사도 야고보의 설교가 한 편씩 포함되어 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에 베드로의 설교가 모두 아홉차례 등장하고 있다. 아홉 편의 설교들은 각각 1장 16절-22절, 2장 14절-36절, 3장 11절-26절, 4장 8절-12절, 5장 29절-32절, 8장 20절-25절, 10장 34절-43절, 11장 5절-17절 그리고 15장 7절-11절이다.

이상의 9편 설교 중에서 베드로의 대표적인 설교로는 3편을 들 수가 있다. 그것은 오순절에 행한 설교(행 2:14-30)와 성전 미문의 앓은뱅이를 고친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설교(행 3:12-26),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설교(행 10:34-43)이다. 이 3편의 설교가 대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머지 6편의 설교에 비하면 형식을 갖추었고,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장소와 상황 그리고 다른 목적과 대상들에게 설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3편은 '사도적 케리그마'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순절 설교는 성령강림에 대한 내용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행한 설교이다.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설교는 구원의 문이 아직도 유대인을 향하여 닫혀지는 않았으며,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고넬료의 집에서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져 있음을 설교하였다.

베드로의 설교를 내용적으로 볼 때 그 강조점은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행 2:16, 행 3:33-36),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강조함(행 3:13), 셋째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행 10:34-43), 넷째로 성령의 사역(행 2:38, 행 10:38), 다섯째로 구속사역에 대한 윤리적 결단(행 2:40, 행 3:19) 등을 그 골격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⁶⁴⁾

여기서 본 논문의 관심사인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즉각 마음이 찢리는 상태가 되어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물었다.⁶⁵⁾ 그리고는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도록 권면했을 때, 그 날 제자의 수가 삼천 명이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⁶⁶⁾ 그 뿐 아니라

64) Ibid., 81-82.

65) 사도행전 2:37.

66) 사도행전 2:41.

그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적인 생활과 경제적인 생활을 함께 나누는 획기적인 변화를 누리게 되었다.⁶⁷⁾ 물론 이 일은 성령의 강림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성령의 강림은 베드로의 설교를 능력있게 하였고 베드로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에게 그와같은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했던 것이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고쳐준 다음에 행해졌다. 이 기적에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회개하고 그를 믿어 구원받을 것을 설교하였다.⁶⁸⁾ 그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3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들과 성전말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사도들이 체포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 바 무려 남자의 수가 오천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⁶⁹⁾ 이러한 숫적 증가의 해석에 대하여 학자들의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결과 괄목할 만한 숫적인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는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설교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두고 있으며 그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사도행전 2장의 청중은 다수였던 반면에 사도행전 10장의 청중은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⁷⁰⁾ 물론 고넬료의 집에서 행해진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 역시 즉각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으며 곧이어 세례도 받았던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 본 베드로의 설교 역시 그 대상이 다수이든지 소수이든지, 유대

67) 사도행전 2:43-47.

68) 사도행전 3:11-26. 헌터(A. M. Hunter)는 그의 저서 신약 성서의 중심사상 (The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채위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92), 131에서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구원 사건을 '케리그마' 라고 호칭한다. 또 따드(C. H. Dodd)는 그의 저서 사도들의 설교와 그 발전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s), 채위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92), 36에서 케리그마의 중심 무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다는 유일회적 미증유의 사건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69) 사도행전 4:4.

70) 사도행전 10:24.

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기적이 동반되었든지 아니든지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였으며 초대교회의 숫적 성장을 가능케 했던 열쇠로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의 두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 가운데 이제는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 고찰해 볼 순서가 되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설교도 아홉 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는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각각 중심으로 활동한 두 사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울의 설교 아홉 편 역시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⁷¹⁾

1) 구원사를 중심한 선교 설교

① 행 13:16-41.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설교.

② 행 28:17-20, 25-28. 로마의 유대인 앞에서 전한 설교.

2) 우상숭배의 배격과 자연신학적 경향의 가르침을 중심한 이방인 군중 앞에서의 설교

③ 행 14:15-17. 루스드라 군중앞에서 행한 설교

④ 행 17:16-34.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

3) 고별을 중심한 설교

⑤ 20:17-35.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행한 설교

4) 변증을 중심한 설교(Apologetical Kerygmatic preaching)

⑥ 행 22:1-21. 예루살렘 병영충대에서 변증한 설교

⑦ 행 23:1-6. 의회 앞에서 변증하는 설교

⑧ 행 24:10-21. 벨릭스 앞에서 변증하는 설교

⑨ 행 26:2-23. 아그립바 앞에서 변증하는 설교

71) 전경연, 원시 기독교와 바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219-220.

위와 같이 분류한 아홉 편의 설교 가운데 변증을 중심으로 한 설교들에 대하여는 특성상 설교(Sermon)라기 보다는 변호(Defense)의 성격이 더욱 강하며⁷²⁾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설교와 고별을 중심한 설교도 역시 특정한 목적 아래서 행해진 설교임으로, 본 논문에서는 구원사를 중심한 선교 설교 두 편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 두 편의 설교야 말로 교회성장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설교라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정착 시절의 사사 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었고 그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구원에 맞춰져 있었다.⁷³⁾ 이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 있었던 것을 볼 때 그들은 유대를 떠나 그곳에까지 와서 살고 있던 흩어진(Diaspora) 유대인들과 본래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필요에 의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음에 틀림없다. 유대인들은 율법적 전이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⁷⁴⁾ 간주되는 십자가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개종한 이방인들은 신앙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완전히 타파하여 자기들의 문화를 끊어버릴 정도의 신앙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그들은 단지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⁷⁵⁾ 이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의 청중들은 이질적이었고 각기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는 그들 사이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즉 폐회 후에 곧바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72) A. W. Blackwood, “Paul as a Preacher”, 20c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5) Vol. II, 856-857.

73) 사도행전 13:16-41.

74) 신명기 21:22-23.

75) 사도행전 13:43.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사이에 반대의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다고 볼 때 과거의 가치관과 문화적 준거의 틀에 얽매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하겠다. 제이 E. 아담스(Jay E. Adams)는 그의 저서 설교 연구 (Studies in Preaching), 정양숙·정삼지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99에서 안디옥의 청중들은 혼합적이었으므로 바울의 설교에 몇 사람이나 우호적이며, 몇 사람이나 무관심하며 혹은 호전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음을 지적하고 있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으며, 그 다음 안식일날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⁷⁶⁾ 그리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던 것이다.⁷⁷⁾ 그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로 퍼졌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⁷⁸⁾ 이러한 현상이야 말로 교회의 놀라운 성장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음으로 살펴 볼 바울의 구속사적 선교 설교는 로마의 유대인 앞에서 행한 것이다. 바울의 로마 입성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환영을 받는 의미 깊은 입성이었다. 바울의 로마 전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은 결국 성취되었고 그러기에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으나 특별한 혜택을 받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행한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는 청중이 유대인임을 고려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청중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반응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중들끼리 의견 충돌이 생겼으며 그 결과 집회가 해산되었음을 누가는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⁷⁹⁾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설교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리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질 때는 반드시 그에 응답하는 자들과 응답하지 않는 자들의 두 분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설교때에 삼천명 혹은 오천명이 응답했다면 반면에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불응하는 쪽에 남아 있었는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었을 것이다. 단지 베드로의 설교 때 몇 천명씩 믿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반하여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 때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밝히고 있어 문맥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꽤 많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태동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종결짓고 있다.⁸⁰⁾ 이와 같은

76) 사도행전 13:43-44.

77) 사도행전 13:48.

78) 사도행전 13:49.

79) 사도행전 28:24-25.

80) 사도행전 28:30-31.

표현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반복해서 전했다는 것을 보여 주며,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호응이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이년동안이나 지속됨으로써 로마 교회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교회의 숫적 성장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우선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를 임명한 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⁸¹⁾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사역을 뜻하고 있으며 그 설교사역이 왕성해졌을 때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은 물론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믿게 되었음을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여기에 말씀증거와 교회성장의 관계성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는 교회에 대한 강력한 핍박자 헤롯 왕이 죽은 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⁸²⁾ 헤롯의 비참한 최후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귀절은 기독교의 거침없는 성장을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며 그 복음은 설교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그 말씀이 흥왕했을 때 교회는 거스릴 수 없는 확장세를 이어갔던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에서 말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⁸³⁾ 두 사도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그들이 말했을 때, 곧 설교사역을 수행했을 때 그 결과는 허다한 무리들의 개종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이며 그 말을 통해서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어디 그 뿐인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했을 때에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⁸⁴⁾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곧 설교이다.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회심자를 얻게 되었다. 경건한 사람들의 큰 무리와 사회 지도층

81) 사도행전 6:7.

82) 사도행전 12:24.

83) 사도행전 14:1.

84) 사도행전 17:1-4.

인사들로서 당시 그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것으로 보이는 귀부인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두 해 동안 날마다 강론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증거하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있다.⁸⁵⁾ 이 년 동안 행한 바울 사도의 열심있는 설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세워졌고 소아시아 지역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등 여러 교회들이 속속 세워지게 되었다.⁸⁶⁾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눈부신 교회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사도행전은 웅변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다.

제2절 신학적 측면에서 본 교회성장과 설교

성서신학의 관점에서 교회성장이나 설교에 대한 자료를 찾는 일은 용이치 않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성서신학 관련 저서들이 이 두 분야에 관한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서신학 분야의 학자들은 원본에 가까운 본문을 재구성하는 것이라든지, 본문의 통일성·진정성·저술동기·연대 등의 문제를 탐구한다든지, 성서의 문서화 이전 시기의 구전 전승 과정과 삶의 자리를 밝히는 일이라든지, 최종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 외에 사회 경제학적 내지는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구약 성서 신학자인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는 그의 저서 구약 성서 신학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승들의 신학에 대해 전승사학, 편집사학 및 문헌 비평학 등 역사비평학적 방법을 통해 구약의 여러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다.⁸⁷⁾ 이와 유사하게 신약신학의 경우에서도 신약 신학 연구방법론이라든지, 신약신학의 중심과 통일성의 문제라든지, 신약신학과 구약의 관계성 등을 주요 관심사로 취급하는 것이 오늘의 동향이라 하겠다.⁸⁸⁾ 단지 역사비평학을 인정하더라도 과격한 비평 방향으로 가

85) 사도행전 19:10.

86)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 주석 사도행전 (서울: 기독지혜사, 1991), 446.

87) Gerhard von Rad, 구약 성서 신학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허혁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6), 113-457.

88) Gerhard F. Hasel, 현대 신약 신학의 동향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느냐 아니면 실증적 비평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구분지을 수 있을 뿐이다.⁸⁹⁾ 다행히도 최근에 P. 슈틀마터, M. 행겔, O. 벳츠, H. 게세 등 신약성서 신학자 등을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급진적이고 과격한 역사비평학적 방법의 적용을 극복하고 신·구약 성경을 보다 더 계시사적이고 전승사적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성경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성서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⁹⁰⁾ 한편 극히 지엽적으로 레온하르트 고펔트(Leonhart Goppelt), 조지 엘돈 래드(George Eldon Ladd), 브루스 매닝 베츠거(Bruce Manning Metzger), 지 알 비슬리 머리(G. R. Beasley-Murray), 에이 엠 헌터(A. M. Hunter), 그리고 씨 에이취 따드(C. H. Dodd) 등 신약성서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나 세례 요한의 설교 및 사도들의 설교에 대해 그 내용적 특성을 밝혀준 사항들은 본 장 제1절 성경에 나타난 교회성장과 설교에 관한 주제를 논할 때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설교학 이론에서 나타나는 교회성장과 설교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일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찾고자 하는 자료들은 쉽사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티리케(Helmut Thielicke)는 그의 저서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 (Leiden an der kirche Ein Persönliches Wort)에서 오늘의 교회에 있어서 설교의 쇠신을 촉구하고 있고, 윌라드 자부쉬(Willard Francis Jabusch)는 그의 책 강단과 설교자 (The Person in the Pulpit)에서 제목 그대로 설교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체스터 페닝톤(Chester Pennington)은 그의 책 하나님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God has a communication Problem)에서 설교는 “동화가 되는 사건”(Communicative Event)으로서 존재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또 브라운과 클리나드와 노드 커트(H. C. Brown, Jr., H. G. Clinard and J. J. Northcutt)는 그들의 공저 설교의 단계들 (Steps to the Sermon)에서 설교의 본질·목적·구성법·전달법 등에 대해 자세한 지침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리차드 리스처(Richard Lischer)는 설교의 신학 (A Theology of Preaching)에서, 또 헤르만 스텐플(Herman G. Stuempfle, Jr.)은 복음과 율법의 설교 (Preaching Law and Gospel)에서 설교에 있어서의 신학적 기초를 논하고 있었고, 메릴 엉거(Merrill F. Unger)는 강해설교의

the Current Debate), 장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50-142.

89) Peter Stuhlmacher, 신약 성서 해석학 (Vom Verstehen des Neuen Testaments, Eine Hermeneutik), 전경연·강한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22-30.

90) 성중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1), 437.

원리들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에서 강해설교의 방법론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해돈 로빈슨(Haddon W. Robinson) 역시 성경적 설교 (Biblical Preaching)에서 강해설교의 중요성과 방법을 주장하고 있었다. 단지 로이드 존스(D. M. Lloyd-Jones)만이 그의 저서 목사와 설교 (Preaching & Preachers)에서 목사에게 있어 가장 우위에 있는 사역은 설교하는 일인 것과 교회의 제 일차적인 임무가 말씀 전하는 일임을 지적하면서, 교회 역사상 개혁과 부흥이 있을 때마다 위대한 말씀 전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⁹¹⁾ 이러한 견해는 본 논문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주장으로서, 교회성장과 설교의 관계성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논할 때에 자세히 취급하게 될 것이다.

설교학 관련 저서들에서 교회 성장학과의 관계성을 논할 자료들을 찾기 어려운 현상은 외국 뿐 아니라 한국의 국내 설교학자들이나 설교자들에게서도 유사한 형편이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엽필형 교수는 그의 저서 현대 신학과 설교 형성에서 설교의 신학적 의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설교자와 청중, 설교와 성서, 예배와 설교, 설교의 주제·형식·자료, 설교의 전달 등 많은 요소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교회 성장과 연관지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성숙한 교회론을 전개하면서 교회의 성숙은 어떤 숫자 외형이나 요란스런 외적 모습에 있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성장과는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⁹²⁾ 또 한국신학대학의 박근원 교수는 그의 책 오늘의 설교론을 통해서 현금의 설교상황과 신학, 오늘의 문화적 상황에서의 설교의 새로운 경향, 바람직한 설교 구상, 설교 실연 준비, 다양성 개발, 자료 수집 정리 및 설교자의 능력 개발 문제 등을 취급하고 있다. 물론 교회성장과 관련한 설교 이론이나 주장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총신대학교의 정성구 교수는 그의 저서 개혁주의 설교학에서 설교 신학, 설교사, 설교 일반론, 설교자론, 주제 설교론, 강해 설교론, 구속사적 설교론, 칼빈의 설교론, 설교의 작성론 및 설교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의 설교 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책 끝부분에 실린 '2,000년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목회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성경적 설교를 강조하면서 성경적 설교란 구속사적 강해설교이며 이러한 설교로 강단을 회복할 때 한국교회 2000년은 희망적임을 주장하고 있다.⁹³⁾ 여기서 희망적이란 표현의 의미는 저자

91) D. M. Lloyd-Jones, Ibid., 11-31.

92) 엽필형, 현대 신학과 설교 형성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23.

93)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710-711.

가 구분하고 있는 교회성장과 교회성숙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⁹⁴⁾ 그것은 곧 성경적 설교가 교회성장 뿐 아니라 교회성숙까지도 성취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교회 성장학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 역시 교회성장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적은 하면서 정작 설교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제일 한인 침례 교회의 이동원 목사는 그의 저서 침중을 깨우는 강해 설교에서 설교의 위기, 설교의 학문적 연관성, 성서 해석학의 과제, 설교의 유형과 강해설교, 귀납법적 강해설교, 설교자, 설교의 형성과 전달, 설교와 초청 및 설교작성의 실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설교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회성장과의 관련성을 취급하고 있지 않았다. 또 규모상 세계 제1의 교회인 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도 그의 책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에서 설교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설교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분량의 설교 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제5장 설교자와 교회 성장 이라는 부분까지 할애되어 있어 큰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으나 교회 성장에 대한 설교자의 마음가짐과 평신도 훈련 및 구역조직 그리고 설교자의 자기 개발에 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었다. 설교가 교회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설교여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단한 아쉬움을 가지게 했다. 그 뿐 아니라 한신교회의 이종표 목사는 그의 책 교회 발전을 위한 설교개발에서 교회성장과 교회발전을 구분하면서 눈에 보이는 외적 성장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그러한 외적 성장은 설교를 잘 못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⁹⁵⁾ 그가 의미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성장이 더 중요하며 그것을 그는 교회 성숙이라는 표현대신 교회발전 이라는 용어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모델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행전의 설교들을 예로 들고 있다.⁹⁶⁾ 이렇게 볼 때 그의 교회성장과 교회 발전의 인위적 구분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행전의 설교들은 숫적 성장과 내적 성숙을 구분시키거나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우월한 것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성장은

94) Ibid., 691. 저자는 교회 성장보다는 교회 성숙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회성장의 측면도 역시 인정하면서 그 둘 사이의 불균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95) 이종표 외 9인, 교회발전을 위한 설교 개발 (서울: 쿰란출판사, 1993), 7-8.

96) Ibid., 9-10.

숫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이 함께 연결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둘을 따로 떼어 분리적으로 사고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반갑게도 교회성장과 설교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목회자가 있다. 그는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이다. 본 논문 제1장 제3절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곽선희 목사는 김지철 외 11명이 분담 집필한 성경과 설교 라는 책에서 ‘교회성장을 위한 효과적 설교’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경적인 설교가 교회성장의 지름길임을 지적하면서 설교시간에 교인들이 성경 본문을 보며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확인(confirm)시키는 설교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⁹⁷⁾ 또 신성종 외 19인이 분담 집필한 이렇게 설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라는 책 속에서 곽선희 목사는 “30초 예술보다 더 확실한 적중도를 위하여”의 글을 통해 교회성장의 세 요인을 언급하는 바 문맥상 성장 요인이라기 보다는 성장 유형이라 해야 더 적절하다. 그는 거기서 프로그램과 행정을 통한 성장 유형, 카리스마적 권위와 운동을 통한 성장유형 그리고 설교를 통한 성장 유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설교에 의한 교회성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글은 대단히 획기적이다.

설교에 의한 교회성장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없거나 모자라도 된다.⁹⁸⁾

다시 말해서 훌륭한 설교만 있다면 심방, 행정, 관리, 전도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교회는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위와 같은 표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 교회의 성장을 통한 곽선희 목사의 경험적 고백이라고 본다. 그럼 그가 과연 어떤 설교를 했기에 그렇게 자신있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의 설교의 특성에 관하여는 본 논문의 다음 장 (Chapter)에서부터 자세히 논구될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 볼 분야는 교회성장신학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설교와 교회성장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교회성장학의 대부(代父)라고 할 수 있는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유명한 그의 저서 교회성장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를 통해 교회성장에 관한 신학적 고찰, 윤곽의 분별, 성장의 요인, 사회학적 기초, 성장의 본질 및 교회성장을 위한 행정에 대해 방대한 분량의 이론을 제시하고

97) 김지철외 11명, Ibid., 124.

98) 신성종 외, Ibid., 347-348.

있었다. 본 논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제3장 교회성장의 원인에 관한 것이었는데, 맥가브란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회성장의 공통적인 이유들 열 두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성장의 이유들

1. 목사나 평신도나 선교사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들을 성장시키는 데 그들의 전 생애를 바쳤다.
2.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였다. (사도행전 2:13).
3. 어떤 교역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교회에 주어진 많은 성장 요인들 중의 한 가지 요인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4. 그리고 어떤 교역자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적합한 전도 계획을 세웠으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신의 계획을 열심히 수행하였다.
5. 교회성장에 유익한 교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동시에 일어났다. 예를 들어 1919년에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심어 주었으며, 이와 동일한 시기에 감리교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6. 교회지도자들은 회중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다 더 광범위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예를 들면 중국의 산둥지방에서의 네비우스의 활동).
7. 어떤 교역자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개척하는 것 이외의 일들을 행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어떤 교회지도자들은 “교회의 선한 사업”과 기독교 선교의 주요 목적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였으며, 전자보다 후자에 중점을 두었다.
8. 기독교는 어떤 문화에 속한 큰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종교”라고 여겨지게 되었다.
9. 기독교로 개종한 토착민 지도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부여받았다.
10. 기독교로 개종할 수용성이 준비되어 있는 종족들에게는 토착선교원리와 인간운동 원리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11. 교회와 선교회는 이미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주입시키고 그들을 교육하였다. 페루의 허버트 머니(Herbert Money)는 1964년에 페루에 350명의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 제7일 재림교회의 선교사들은 20.5%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 재림교회는 페루 전체의 복음주의 교인들의 반 이상을 지니고 있었는데, 허버트 머니는 제7일 재림교회의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그 선교사들이 일단 세례를 받은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를 계속적으로 교육시켰던 탓으로 돌리고 있다.

12.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들은 참다운 회개를 경험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게 되기를 간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칠레의 후버선교회와 푸에르토리코의 “그리스도의 교회”와 감리교 남인도 지방의 선원선교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⁹⁾

여기서 나타나는 맥가브란의 교회성장 원인들은 주로 선교학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관점이 강하게 드러나 있으며 그 외에는 문화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관점들이 첨가되고 있을 뿐 설교학적 관점의 분석은 전무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교회성장학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의 몇몇 저서들을 참고할 수 있었다. 그는 그의 책들 가운데 당신의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Your Church Can Grow)에서 성장의 정의, 목적, 믿음, 유능한 목사, 평신도 운동, 성장의 규모, 예배와 모임과 조직, 친교, 성장의 병리학, 우선 순위 및 성장의 성경적 근거 등을 논하고 있었으나 설교와의 관련성은 제외되고 있었다. 그는 또 더 많은 추수를 위한 교회 개척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에서 교회개척의 필요성과 장애를 극복하는 법, 교회개척의 기초와 여러 방법들, 교회의 위치와 핵심멤버, 최종적 점점과 성장전략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역시 설교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피터 와그너는 또 다른 저서 통전적 복음과 교회성장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에서 교회의 문화 위임, 사회사역, 복음전도, 통전론적 선교 대 통전론적 복음전도, 복음과 회심 및 윤리적 인식, 방법론과 동질적 단위의 원리, 기독교적 사회 선교를 위한 구조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그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선교학 이론이 지나치게 교회중심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사회선교의 신학을 결코 경시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다루는 주제의 특성상 교회성장과 설교에 관해서는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피터 와그너는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들 (Strategies for Church Growth)이라는 책을 통해 전략수립의 필요성, 목표, 원리,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설교에 관한 부분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아쉬움을 보였다. 단지 피터 와그너 자신을 포함하여 열 여덟명의 글을 그가 편집한 편저 예술의 경지: 교회성장 (Church Growth: State of the Art)이라는 책의 여러 논문들 가운데 메이(F. J.

99)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옥·이요한·김종일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247-249.

May)가 ‘능력있는 설교’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진 교파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¹⁰⁰⁾ 메이는 그 교파가 오순절 계통에 속해 있다는 것과 그 설교의 특징은 회개와 중생, 성령세례, 강한 믿음, 악마에 대한 대적, 하나님 경외, 교회사랑, 그리고 영적 능력의 역사하심에 의한 확증인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⁰¹⁾

한편 빌리 그레이엄 교회성장 및 전도 석좌 교수인 톰 S. 레이너(Thom S. Rainer)는 그의 저서 교회성장 교과서 (The Book of Church Growth: History, Theology and Principles)의 제23장 예배와 교회성장 부분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에 나타난 7가지의 설교 특성들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첫째 설교는 한 그룹에 특별히 목표를 두어야 한다. 둘째 모든 설교들은 성경적이어야 한다. 셋째 성경적 설교들은 실천적이어야 한다. 넷째 성경적 설교들은 삶과 관계 있어야 한다. 다섯째 오늘의 설교들은 흥미있어야 하고 심지어는 즐거야 한다. 여섯째 오늘의 설교들은 이해가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 일곱째 성장하는 교회의 설교들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어야 한다¹⁰²⁾는 것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의 이종윤 교수, 전호진 교수, 나일선 교수는 그들이 함께 저술한 교회성장론의 제3부 교회성장신학과 한국교회성장 중 제2장에서 한국교회 성장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성장요소로서 일곱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종교를 쉽게 받아들이는 종교적 요소, 둘째는 부흥운동의 결과로 성장했다는 영적 요소, 셋째는 보수적인 신학이 성장에 기여했다는 신학적 요소, 넷째는 네비우스 선교에 따른 선교전략적 요소, 다섯째 교인들의 뜨거운 열정에 의한 신앙적 요소, 여섯째 기복적이고 감정적인 한국인의 심성에 적절했던 토착화 원리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로 불안했던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을 들고 있다.¹⁰³⁾ 그들의 분석은 교회사적으로나 선교신학적으로는 가치있는 결과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역시 설

100) F. J. May, “능력을 입은 목회와 교회성장”,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편, 교회성장학 개론 (Church Growth: Stage of the Art), 이재범 옮김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87), 249.

101) Loc. cit. F. J. May는 테네시 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 학장이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오순절 교회의 설교자인 휴즈(Ray H. Hughes)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102) Thom S. Rainer, 교회성장 교과서 (The Book of Church Growth: History, Theology and Principles) 홍용표 옮김 (서울: 예찬사, 1995), 281-282. 그는 여기서 화이트(White)의 저서 앞문 열기 (Opening the Front Door)에서 인용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103) 이종윤·전호진·나일선 공저, 교회성장론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3), 271-291.

교학적 측면에서는 전혀 취급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한국신학 대학의 박근원 교수는 그의 저서 교역의 전문화 교육에서 한국의 여섯 개 교회의 교회 성장 요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는 순복음 중앙교회의 성장요인으로 질병치료와 구역조직, 그 외에 설교, 기도, 교인들의 전도열, 문서선교, 평신도 선교, 매스컴 선교 등을 들고 있다.¹⁰⁴⁾ 또 영락교회의 성장요인으로는 사회적 변화와 목회자의 설교, 교회 안의 분위기(마이크 시설, 훈련된 성가대) 등을 들고 있고, 한신교회의 성장요인으로는 교회 학교 교육의 강조, 교인들의 열정, 평신도 교육의 강조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경동교회의 성장요인으로는 교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 특히 강원용 목사의 설교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⁰⁵⁾ 그리고 동원교회의 성장요인으로는 지역봉사 프로그램을 수도교회의 성장요인으로는 목회자의 개별적 관심과 특이한 조직, 철저한 교인 훈련 등을 언급하고 있다.¹⁰⁶⁾ 그는 위의 여섯 교회의 성장요인을 서로 다른 특징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위의 여섯 교회들은 나름대로 독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 그 특성 때문에 성장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순복음 중앙교회와 영락교회 그리고 경동교회의 경우에는 성장요인의 공통사항으로 설교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곧이어 소개되겠지만 한신교회의 경우도 박근원 교수의 지적과는 달리 설교가 교회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편 순신대학의 명성훈 교수는 그의 저서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에서 교회성장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성장형 설교(*Church growth Preaching*)의 특징으로 성경에 기초한 설교(*Bible based Preaching*), 성령 충만한 설교(*Spirit filled Preaching*),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Christ-centered Preaching*), 생활적인 설교(*Life-related Preaching*), 긍정적인 생각의 설교(*Positive thinking preaching*), 기도가 뒷받침된 설교(*prayer supported preaching*) 그리고 선교지향적 설교(*mission oriented preaching*)의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⁰⁷⁾ 이러한 명성훈 교수의 주장은 교회성장형 설교가 반드시 앞에 제시되었던 일곱 가지여야만 하는가에 대해 추후 논의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긴하지

104) 박근원, 교역의 전문화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5), 276.

105) Ibid., 278-280.

106) Ibid., 281-282.

107) 명성훈,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5), 155-165.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교회성장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만은 분명히 밝혀주었다고 본다.

목회자 가운데 교회성장과 설교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은 한신교회의 이종표 목사였다. 그는 그의 저서 교회성장과 케리그마 설교에서 케리그마 설교의 성서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소개한 후 케리그마 설교와 한국교회의 성장, 케리그마 설교와 한신교회의 성장에 대해 계속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는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을 교회 외적 요인과 교회 내적 요인으로 분석하면서 교회 외적 요인으로는 종교적, 역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들고 교회 내적 요인으로는 설교 이외의 요인과 설교적 요인으로 명확화 시키고 있다. 여기서 종교적, 역사적,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는 이종윤·전호진·나일선 교수의 주장을 언급할 때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또 교회 내적 요인 중에서도 설교 이외의 원인으로 제기된 신앙열정, 순교, 성령의 은사, 성경공부 등에 대해서는 본 논문과의 관계가 없으므로 관심이 적지만 그러나 교회 내적 요인들 중 다른 하나, 곧 설교적 요인에 대하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설교 이외의 요인이 아무리 중요했다 하더라도 설교만큼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설교가 한국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증거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교회성장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설교의 쇠퇴이다. 그린(H. Green)이 말한 것처럼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설교를 듣는 청중 때문이 아니라 설교하는 설교자 때문이다. 설교가 로이드 존스(L. Jones)의 말처럼 교회 역사상 위대한 성장과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설교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정장복은 그의 논문에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 급성장한 가장 강력한 요인은 설교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은 어떤 설교라도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에 진정한 영향을 준 설교는 케리그마 설교였다. 한국교회는 이 케리그마 설교가 선포되었을 때 성장하였고, 이 설교가 중단되었을 때 진정한 성장도 중단되었다.¹⁰⁸⁾

그는 케리그마 설교를 강조하고 있다. 케리그마 설교야말로 한국교회 성장의 진정한 요소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케리그마 설교의 개발을 위

108) 이종표, 교회성장과 케리그마 설교 (서울: 쿰란출판사, 1988), 107.

해 설교의 구성과 설교의 문체와 설교의 전달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설교의 구성에 있어서는 먼저 설교를 구상할 때 성경, 일반 도서, 타인과의 대화, 자신의 경험, 대자연의 관찰 등 모든 것에서 설교를 볼 것, 본문을 묵상할 때는 본문 속으로 들어갈 것, 본론을 구성할 때는 중심사상이 흐르게 할 것 및 결론의 구성에 있어서는 예수만 남게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¹⁰⁹⁾ 또 설교의 문체는 짧고 쉽게 쓸 것, 설교 어휘는 감각에 호소하되 예수를 말할 것, 최고의 예화는 성서에 있음을 잊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¹¹⁰⁾ 설교 전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커뮤니케이션의 근거이며 내용인 것을 기억할 것, 대화적 스피치를 할 것, 예수를 볼 수 있는 제스처를 할 것, 청중을 설교에 참여시킬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¹¹¹⁾ 이러한 이중표목사의 케리그마 설교론은 그의 오랜 기간의 목회 경험과 학문적 탐구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회성장에 있어서의 설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위치 및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반영해야 할 사항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통찰력을 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여기서 참고로 케리그마 설교를 통해 성장해 온 한신교회의 교인 수 증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 그것은 아래와 같다.¹¹²⁾

(표 2-1)

한신교회 교인 수 증가표

구분 \ 연도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어 린 이	41	220	415	500	645	735	760	800	830	860	890
중고등부	-	35	45	315	345	376	405	444	465	460	537
장 년	80	228	329	404	852	907	1,061	1,200	1,848	2,020	1,926
계	121	483	889	1,219	1,842	2,018	2,226	2,444	3,143	3,340	3,353
성장비율		299%	84%	37%	51%	9%	10%	9%	28%	3%	0.74%

109) Ibid., 271-280.

110) Ibid., 282-290.

111) Ibid., 293-306.

112) Ibid., 157.

제3절 역사적 측면에서 본 교회성장과 설교

정성구 교수는 그의 저서 개혁주의 설교학 제2장 설교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서 성경에서 나타난 설교를 대상으로 논지를 펴나가는 가운데 사도바울의 설교에 이르러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회는 성장되어 왔다고 할 때 바울의 아홉번의 설교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골격을 놓는 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¹¹³⁾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본 장 제1절 성경에 나타난 교회성장과 설교에서 자세히 취급하였기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정성구 교수의 지적은 비단 바울의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의 성장 자체가 설교를 통해 성취되어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도시대를 마감하고 초대교회 시대로 들어서게 되면 4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설교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들의 대부분은 헬라적 학문에 몰두했던 사람들로서 자신들처럼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¹¹⁴⁾ 그 시대에 활동한 설교자들은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 익나시우스(Ignatius), 폴리캡(Polycap),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오리겐(Origen), 터툴리안(Tertullian), 키프리안(Cyprian),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크리소스톰(Chrysostom) 그리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St. Augustine)이 있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까지의 무질서에서 질서의 세계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바른 신앙의 정립과 정착을 이 땅에 심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른 의식을 회복하면서 말씀과 예전의 두 바퀴를 소유하는 기독교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¹¹⁵⁾ 정성구 교수는 가비(Garvie)의 글을 인용하여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의 기록 속에서 오늘의 예배와 설교의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과, 이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 사도들의 감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교회가 박해 중에서도 성장하였으며

113) 정성구, Ibid., 85.

114) Ibid., 931.

115)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6), 19.

좋은 설교자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¹⁶⁾

그러나 크리소스톰과 어거스틴 이후 종교개혁 때까지 약 1000년의 세월 동안은 말씀의 종교에서 의식적인 종교를 변화되어 버린 즉 강단을 잃어버린 기독교로 변질되어 갔다. 그리하여 6세기에 와서는 성경 본문을 읽는 것 자체를 중단해 버렸고 수도원을 중심한 설교자들이 후반기에 와서 일어났으나 중세의 환경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이다.¹¹⁷⁾

그로부터 650여년이 지난 후 종교개혁 시대를 맞아 설교는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활동한 중심인물들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 쾰링글리(Huldrych Zwingli), 칼빈(John Calvin), 그리고 나스(John Knox)와 같은 설교가들이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설교를 통하여 회중들과의 만남을 가져왔으며 그 설교를 지속하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었던 바, 그들의 설교는 아직도 잠에 취하여 있던 성직자들을 일깨웠고 제도와 형식에 갇혀 생기를 잃은 교회에 새로운 활력의 기운을 불어 넣어 준 각성제가 되었다.¹¹⁸⁾

종합해 보건대 이 개혁자들의 설교의 특성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미사의 오류를 지적하고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성례전이 동반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그들의 설교는 사도들의 설교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에 초점이 있다는 점, 셋째 설교사역은 목사의 가장 일차적인 사명이라는 점, 넷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총의 전달은 말씀과 성례전과 성령의 3대 방편(means)을 사용하시며 그것이 오늘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나타난다는 점, 다섯째로 그들은 설교를 결코 사변적이거나 수사학적인 능변에 의존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고 직선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현장의 인간들이 이해하는 말씀의 전달에 노력했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⁹⁾

정장복 교수는 이 개혁자들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의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혼과 내용으로 확산된 설교의 사역은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화산이 되었다. 이 불길은 삼시간에 유럽의 온 누리로 번졌으며 신앙의 새로운 활력소를 공급하기에 이르렀

116) 정성구, Ibid., 93-94.

117) Ibid., 107-118.

118) 정장복, Ibid., 24.

119) Ibid., 24-26.

다. 그 결과 복음의 선교라는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실감있게 인식하면서 교회의 본래적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 인간의 역사도 함께 살아 움직인다는 산 교훈을 재음미하게 되었다.¹²⁰⁾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개혁자들의 설교사역이 중세 교회의 암흑을 걷어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었고 그것은 또한 유럽 전체의 교회 성장을 초래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1572년 존 낙스(John Knox)의 죽음 이후 종교개혁의 기수들이 떠나간 다음에는 잠시 동안 설교의 역사는 또 한번의 정체시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과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초기 개혁자들의 설교에 대한 강조는 청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해 가게 되었다. 영국 청교도 시대의 대표적 설교가로는 존 번연(John Bunyan)을 먼저 들 수 있다. 그는 당대의 사람들이 표현했듯이 살아있는 최고의 설교자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설교할 때는 솔직하고 단순하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영원하고도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 말했으며, 언제나 중심주제가 분명했다고 한다.¹²¹⁾ 다음으로는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를 들 수 있다. 그는 전형적인 목회자로서 소망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그의 진실한 설교로 끝내 성공을 이루어 그가 목회한 도시를 변하게 하였으며 영혼을 치료하는 목회자의 모델이 되었다.¹²²⁾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설교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 웨슬레(John Wesley)였다. 그는 청교도의 감화를 받았을 뿐 아니라 후일에는 모라비안파의 영향을 받아 동생되는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의 친구인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 등과 함께 감리회 운동을 일으켜 그 창설자가 되었고 그의 감화력은 미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요한 웨슬레는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설교하였고, 그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거룩함과 하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다. 그의 설교는 매우 단순하고 죄를 책망하여 회개를 권고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적 설교였다.¹²³⁾ 그의 활동은 설교를 통하여 곳곳에서 불붙게 하였고 그 불길은 곳곳에서 대중집회를 갖게

120) Ibid., 26.

121) 정성구, Ibid., 152.

122) Ibid.

123) Ibid., 153-154.

하였다. 이 집회들은 기금까지 가져 온 전통적인 예배 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 속에서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의 집회가 열기를 더하여감에 따라 못 영혼의 구원에 대한 절박한 사명들을 깨닫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교회의 선교는 사명적 차원에서 실현이 되어 해외 선교의 행렬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 선교의 불길은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 또 하나의 설교의 신기원을 교회의 역사에 남기게 하였던 것이다.¹²⁴⁾

미국에서의 설교의 절정은 두 차례에 걸친 대각성 부흥운동(The Great Awakening Movement)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 하나는 1720년 뉴저지 주의 화란 개혁교회의 목사로 부임하기 위하여 왔던 독일의 경건주의 목사 프레링허센(Theodore Jacob Frelinghuyseen)의 설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신앙의 내적 경험(inner experience)을 통한 중생에 중점을 둔 설교를 계속하여 젊은이들과 가난한 회중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설교는 현실 안주를 추구하는 중산층과 지배계급으로부터 거부반응을 일으켰으나 교회는 급진적으로 부흥을 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미국을 새롭게 면모시킨 제1차 대각성운동(The First Great Awakening)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¹²⁵⁾ 1734년 12월에는 미국의 복음적 개혁주의(evangelical protestantism)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에 의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라는 제목의 연속설교를 하면서부터 대각성운동이 불붙기 시작하였다. 1735년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들은 한 창녀의 회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를 입어 교회에 나오게 됐을 뿐 아니라, 교회마다 회개의 눈물과 울부짖는 기도가 넘치게 되었다. 이런 부흥의 불길은 코네티컷과 뉴저지시에까지 타올랐다.¹²⁶⁾ 한번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엔필드라는 곳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다 마치기 전에 거기 모인 무리들은 크게 감동하

124) Clyde E. Fant, Jr. ed.,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Waco, Texas: Words Books, 1971) Vol. VI, 3-18.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6), 30에서 재인용.

125) Dewitte Holand, ed., Preaching in American History (New York: Abingdon Press, 1969), 55.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86), 31에서 재인용.

126) 정성구, Ibid., 175.

여 저희의 죄와 당면한 위기를 크게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였다.¹²⁷⁾ 바로 이 무렵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헛 필드(George Whitefield)가 미국에 도착하여 에드워드와 함께 이 대각성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대각성운동의 설교사역은 남부에까지 번져 나갔다. 그가 미국 대륙에 10여년간 머무르면서 매주 40시간씩을 설교했다는 기록은 당시의 설교가 얼마나 뜨겁게 외쳐졌고 경청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좋은 기록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¹²⁸⁾

미국 대륙에서 설교의 마지막 황금기라고 불리우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은 1801년 켄터키 주 케인 리지(Cane Ridge)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캠프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고 이 불길은 각 교회로 삼시간에 번져 나갔다.¹²⁹⁾ 이 시대의 중심인물들은 1802년 예일대의 총장으로서 채플에서 연속 설교를 하여 학생 3분의 1을 회심시켰던 드와이트(Timothy Dwight)를 비롯하여 19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전도자이며 설교자로 불리우는 휘니(Charles G. Finney), 사회와 정치 분야를 향해 위력있는 말씀을 선포했던 심슨(Matthew Simpson), 프린스턴 신학교의 하지(Charles Hodge), 계약신학을 토대로 영향력있는 설교를 계속했던 캠프(Alexander Campbell), 진리 앞에 선 설교자와 회중의 인격체를 강조했던 브룩스(Phillips Brooks) 그리고 남북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혼돈 속에서 부흥의 불길을 미국 전역에 다시 확산시켰던 평신도 설교가 무디(Dwight Lyman Moody) 등이었다.¹³⁰⁾ 이들에 의해 설교의 불길이 휩쓸었던 미대륙에서는 교회와 사회가 모두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어 교회의 갱신운동을 비롯하여 사회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노예제도의 폐지운동까지 나오게 되었으며, 행동하는 설교가인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를 중심한 사회복음화 운동으로 그 맥락을 이어 설교의 사역은 미국역사에 대 공헌의 자국을 남기게 되었다. 한편 교회는 교파 분열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교회의 급진적 부흥을 가져왔던 역사의 기록은 교회의 역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다.¹³¹⁾

127) Ibid.

128) Dewitte T. Holland, Ibid., 55.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86), 31에서 재인용.

129)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Garden city, New York: A Division of Doubleday & Company, Inc.) Vol., 469.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86), 32에서 재인용.

130) 정장복, Ibid., 32-33.

131) Ibid., 33.

한국교회의 경우 1885년 4월 4일 미국 북장로교의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미국 북감리교의 아펜젤러(H. D. Appenzeller) 부부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인천에 상륙하여 복음을 전파한 이래 폐쇄된 전통가치관에 의한 박해와 일제에 의한 36년간의 압제 기간, 6.25 동족상쟁과 전후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세계 교회로부터 주목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원인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 가운데 한 예를 들어보자. 교회성장 분야의 이론에 정통할 뿐 아니라 그 원리들을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행동적 목회자로 평가받는 존 반(John Vaughan)은 그의 논문 ‘세계의 대형교회들’이라는 글을 통해서 세계적인 대형교회 가운데 여섯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과 그 교회들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영락교회, 충현교회, 광림교회, 숭의감리교회, 성락침례교회인 것을 거명한 후 대한민국에서 교회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평범한 전략으로 12~16명씩 구성된 소그룹(구역 모임)에 의한 전도활동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¹³²⁾ 얼마나 피상적이고 부정확한 지적인가? 만약에 구역 조직에 의해서 교회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성장하는 교회의 숫자가 왜 여섯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는 답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장로교회(PCA)의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33년간 사역한 신내리(한국명임. 원명은 Alvin Sneller) 선교사는 선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출간한 그의 저서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이라는 책을 통해 무려 23가지 요인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박해와 전쟁, 외국인에 대한 태도, 종교적 자유, 고위직의 기독교인, 가족과 마을의 구조, 교육, 의료활동, 빠른 도시화 과정, 전쟁후 구제, 점차적인 풍요, 빠른 경제 발전, 교통 수단의 개선, 전래 종교의 퇴조, 성경 중심의 사역, 포괄적 사역, 교인되는 자격, 기독교인의 생활방식, 평신도 참여, 희생정신, 기도, 지도자, 전도와 선교 및 교회의 분열이다.¹³³⁾ 그가 매우 광범위하게 한국교회 성장 요인을 찾아낸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한국 교회사적 관점에서 결정적인 부흥의 계기가 되었던 원인을 밝히기 보다는 전체적이고 일반론적으로 성장요인을

132) John Vaughan, “세계의 대형교회들”, 피터 와그너 편, 교회 성장학 개론 (Church Growth: State of the Art), 이재범 옮김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87), 147.

133) 신내리(Alvin Sneller),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2), 78-115.

취급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래된 초기에 교회는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 1907년에 이뤄지게 되었다. 소위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사건은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약 1,500여명의 신자가 모여 길선주 전도사의 인도로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때 길선주 전도사는 성도의 생활규범과 성령의 역사와 임재하심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섭리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 설교와 기도 앞에 모든 교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자각하여 죄를 고백하며 마침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되었던 것이다.¹³⁴⁾ 이 부흥운동은 여성들과 학생들에게 전파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고 기독교 계통의 학생 2,500명이 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이들에 의한 집단적인 전도운동도 전개되었다.¹³⁵⁾ 특별히 길선주 전도사에 의해 시작된 새벽기도회는 당시 신앙의 열기를 유지하고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기도 했다. 길선주 전도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기도로써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강론했고 기도 없이는 성서를 올바르게 읽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¹³⁶⁾ 이처럼 개신교가 한국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던 1907년 부흥운동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한 사역자의 설교에 의해 촉발되고 확산되어진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다.

한편 방탕했던 청년이었다가 변하여 복음증거자가 되었던 김익두 목사는 29세 때에 재령읍 교회에 첫 청빙을 받았는데 부임했을 때의 교인 11명을 1년 후에는 90명으로 성장시키기도 했다.¹³⁷⁾ 그는 신천 서부교회로 옮겨와서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사이에 교인 3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켰고, 1911년에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신천교회에 부임하여 그 교회를 교인 700명인 교회로 성장시키기도 했다.¹³⁸⁾ 이러한 김익두 목사의 목회특성은 금식하며 설교하는 것과 기도로 무장한 후에 설교에 임한 일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 등이었다.¹³⁹⁾ 즉 그의 교

134) 김우영, 부흥회와 교회성장 (서울: 쿰란출판사, 1996), 56-57.

135) Ibid.

136) Ibid.

137) 김진환, 한국 교회 부흥운동사 (서울: 서울서적, 1993), 125.

138) Ibid., 125-126.

139) 김우영, Ibid., 62.

회 부흥과 성장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선행되었고 그것은 설교와 신유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이다.

일제 시대에 강요된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써 순교당했던 주기철 목사는 집사 시절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1921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 1926년 졸업했다. 그는 초임지였던 부산 초량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두번째 임지인 마산 문창교회에서도 4년 동안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그는 수많은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가는 곳마다 큰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하여 일본에 까지 가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했다고 한다.¹⁴⁰⁾ 그의 목회는 철저히 설교 중심적인 것으로써 전체 목회를 10으로 볼 때 그 중에 7은 설교요, 2는 심방이요, 1은 사무였다고 한다.¹⁴¹⁾ 주기철 목사의 교회성장에는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31년 목포 성결교회에 부임했던 이성봉 목사는 그곳에서 시무하는 6년동안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고 1937년 신의주 동부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도 역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시켰으며 부흥 목사로 임명된 후 용정에서 집회할 때는 설교를 통해 2,000여 명의 군중들 중에 회개하고 중생한 자는 부지기수이고 새로 믿기로 한 사람들도 130여 명에 이르렀다.¹⁴²⁾ 정성구 교수는 이성봉 목사의 설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한국 교회 한 시대의 강단을 주름잡았던 이성봉 목사의 설교는 단 순하면서 명쾌하여 고난받고 찢든 대지의 가슴에 파고 들었다. 과연 그에게 또 다른 한국의 무디로 불려주어도 좋을 것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였으며 그가 지어 부른 찬송가는 전국 곳곳에 퍼져 온 성도들의 입에서 불려졌다. 그는 30년간의 설교자로서 부흥사로 깨끗한 일생을 마친 분이다. 설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이성봉 목사의 설교는 그의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정열과 믿음과 잘 조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¹⁴³⁾

한국은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하나님은 시대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한국교회에 세워주셨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한경직 목사이다. 그는

140) 김진환, Ibid., 167.

141) 김광수, 한국기독교 인물사 (서울: 기독교문사, 1974), 150.

142) 김진환, Ibid., 190-191.

143)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8), 172.

1945년 영락교회를 개척하여 27년간을 시무하면서 동양 제1의 교회로 성장시킨 전형적인 목회자였다. 그는 청빈한 생활과 감동적인 설교로 교인들의 존경을 받았고 한국교계의 거목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개신교를 대표할 인물로 인식되어졌으며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추앙을 받을 정도로 한국교회를 빛낸 사람이었다. 그의 설교는 한 마디 한 마디 힘이 주어져 있었고 주로 본문 설교의 형태를 취했으며 북한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월남해 온 교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영락교회를 명실공히 한국의 상징적인 교회로 성장시켰던 것이다.

한편 1959년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한 조용기 목사는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각오를 하고 서대문구 대조동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3년만에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그는 1961년 10월 서대문 네거리에 순복음 중앙교회를 다시 개척하여 1년 만에 성도가 1천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1970년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기 전에는 1만여 명의 신자로 성장하였으며 1993년 이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70만 성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⁴⁴⁾ 그가 이처럼 놀라운 교회성장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여러 질병에서 고침받은 신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좋은신 하나님’이라는 신관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한 것이 그 당시 가난과 질병 속에서 벗어나려 하는 경제 개발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적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교회 성장은 신유와 방언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며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는 그의 설교에 힘입은 바 컸다.¹⁴⁵⁾

1977년 10월에 창립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인 30,000여명으로 급성장한 소망교회는 본 논문 제1장 제2절에 소개한 것처럼 그 원인이 박선희 목사의 설교에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는 밝혀주고 있다.¹⁴⁶⁾ 이에 대하여는 박선희 목사 자신도 긍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¹⁴⁷⁾ 그의 설교는 컨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 말씀 최우선 주위가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하나의 완벽한 예술품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와 같은 그의 설교 특성은 서울 강남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엘리트들로 지칭되는 지식인들과 상류 계층의 사람들을 소망교회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

144) 김진환, Ibid., 233-234.

145) Ibid.

146) 본 논문 6-10. 참조.

147) 본 논문 15-19. 참조.

였으며 그리하여 2,000년 대의 미래를 앞두고 목회 사역에 골몰하는 한국교회에 거대하고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측면에서 본 교회성장과 설교의 관계성에 대해 간략히나마 고찰해 보았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와 신앙의 갱신, 신약성경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의 활동을 통한 회중들의 놀라운 반응과 교회의 왕성함, 설교학자들이나 교회성장학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설교 사역에 의한 교회의 발전, 세계교회사나 한국교회사를 통해 드러난 위대한 설교자들과 교회의 부흥, 이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명백히 증거해주고 있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적을 나타냈으며 말씀의 선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교회성장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였지만 그 성령의 역사 속에는 설교에 의한 사역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었다는 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제 3 장 소망 교회 주일 설교 분석

제1절 설교 분석 I - 텍스트와 테마 분석

1. 성경 본문의 선택에 관한 분석

1983년에 정성구 교수는 존 브로더스(John Broadus)의 저서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를 편집하여 설교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학계의 교과서와 같은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은 기독교 설교의 특성이나 위치로부터 시작하여 설교학, 설교자, 하나님의 메시지 등을 서론부에서 다룬 후 본문에 들어가서 설교의 기초, 설교의 분류, 설교의 형식적 요소, 설교의 기능적 요소, 설교의 양식, 설교의 준비, 설교내용의 전달, 공적 예배(대중 예배)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교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거의 완전한 교재로 인정받고 있다.¹⁾

이 책의 제4장 하나님의 메시지 부분에서는 메시지의 근원인 성경,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아홉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 1)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는 설교학적으로 충실한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 2)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이 설교자에게 복음 선포에 적당한 영적인 그 무엇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 3) 성경을 사용하게 되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여유가 있게 된다.
- 4) 성경을 사용하는 설교자는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 5) 성경을 사용하는 다른 이유는 성경이 설교의 다양성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1) 정성구 편, 설교학 개론 (서울: 세종문화사, 1991. 중판), 8.

- 6)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기술적인 방법으로 좋은 주제를 취급하게 해준다.
- 7) 더 나아가서 성경을 사용하면 설교자나 청중들이나 설교를 기억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8) 또한 성경을 사용하면 설교자는 권위를 지니게 될 것이다.
- 9) 마지막으로 설교에서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²⁾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경 본문이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최우선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탐색에 주력하고자 한다. 하나는 성경 본문 사용 빈도수 탐색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본문과 주제와의 관련성 탐색이다. 첫번째 탐색을 통해서 설교를 위해 선택된 성경 본문의 분포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될 것이다. 두번째 탐색을 통해서는 설교학적 구조에 의한 분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1990년 1월 초부터 1996년 12월 말까지 7년간 소망 교회에서 행해진 확선희 목사의 주일 설교는 모두 341편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것은 매주일 발간 판매되는 소망의 말씀지 모음과 해당기간의 주보철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통계 처리한 결과이다. 7년 동안의 주일 수보다 설교 수가 모자라는 이유는 해외 집회 관계로 확선희 목사가 설교하지 못한 주일의 설교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설교 특성 분석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사용한 양식은 아래와 같았다.

(양식 3-1) 설교 특성 분석표(I)

설교일시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설교 주제	텍스트와 테마 관계		
년	월	일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90	1	7	마 6:28-34	한 날의 괴로움	믿음		○	
90	1	21	신 8:1-6	광야 40년의 이유	훈련		○	
⋮	⋮	⋮	⋮	⋮	⋮		⋮	

이 표에 의하여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우선 설교에 사용된 성경 본문에 관한 성경 책별 통계를 연도별로 구분해 보았다. 이제 1990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차례로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Ibid., 58-64.

(표 3-1) 1990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창 세 기	1	역 대 하	1	누가복음	4	갈라디아서	1	베드로전서	1
출애굽기	2	시 편	2	요한복음	6	에베소서	2	베드로후서	1
민 수 기	1	잠 언	3	사도행전	4	빌립보서	1		
신 명 기	2	이 사 야	2	로 마 서	3	데살로니가전서	1		
여호수아	1	마태복음	3	고린도전서	2	디모데후서	1		
사무엘상	1	마가복음	1	고린도후서	1	히브리서	1		

1990년도에 설교 본문으로 사용된 성경은 구약이 16회, 신약이 33회로서 구약이 32.7%, 신약이 67.3%를 차지하고 있다. 더 세분해서 본다면 구약의 경우 율법서가 6회(12.2%), 역사서가 3회(6.1%), 시가서가 5회(10.2%) 그리고 선지서가 2회(4.1%)로 나타나고 있다. 신약의 경우는 복음서가 14회(28.6%), 역사서가 4회(8.2%), 바울서신이 12회(24.5%) 그리고 일반서신이 3회(6.1%)로 나타나고 있다. 또 책별로는 요한복음이 6회(12.2%),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각각 4회(8.2%) 그리고 잠언과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각각 3회(6.1%)의 순서로 나타나 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 볼 때 신약의 비중이 구약보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바울서신에 치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91년도 조사 결과를 보기로 한다.

(표 3-2) 1991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창 세 기	3	욥 기	1	누가복음	4	갈라디아서	2	디모데후서	1
민 수 기	1	시 편	2	요한복음	5	에베소서	1	히브리서	1
여호수아	1	잠 언	2	사도행전	2	빌립보서	1	요한 1서	1
사무엘상	1	이 사 야	1	로 마 서	3	데살로니가전서	1		
사무엘하	1	마태복음	5	고린도전서	1	데살로니가후서	1		
열왕기상	1	마가복음	2	고린도후서	2	디모데전서	1		

1991년도에는 구약이 14회(29.2%), 신약이 34회(70.8%)가 본문으로 사용되어 신약에 치우치는 정도가 1990년도 보다 3.5% 가량 더 증가하였다. 구약의 경우 율법서가 4회(8.3%), 역사서가 4회(8.3%), 시가서가 5회(10.4%) 그리고 선지서가 1회(2.1%)로 나타나 1990년도와 비슷한 양태를 띄고 있다. 신약의 경우 복음서가 16회(33.3%), 역사서가 2회(4.2%), 바울서신이 14회(29.2%) 그리고 일반서신이 2회(4.2%)

로 나타나 1990년도 보다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책별로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각각 5회(10.4%), 누가복음이 4회(8.3%), 창세기와 로마서가 각각 3회(6.3%)로 나타나 1990년도에 이어 요한복음의 선두 고수가 눈에 띈다. 다음으로 1992년도 조사 결과를 보기로 한다.

(표 3-3) 1992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창 세 기	2	이 사 야	1	마가복음	1	고린도전서	2	데살로니가전서	1
출애굽기	2	에 스 겔	2	누가복음	4	고린도후서	2	디모테전서	1
시 편	5	다 니 엘	1	요한복음	3	갈라디아서	2	히브리서	2
잠 언	1	요 나	1	사도행전	2	에베소서	2	베드로전서	1
전 도 서	1	마태복음	6	로 마 서	2	빌립보서	3		

1992년도에는 구약이 16회(32%), 신약이 34회(68%)가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어 1990년도와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고 전년도에 비교하면 신약이 약 2.8% 줄어들었다. 구약의 경우 율법서가 4회(8%), 시가서가 6회(12%), 선지서가 5회(10%)로 나타나 역사서가 전무한 대신 시가서와 선지서의 증가세가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 신약의 경우 복음서가 14회(28%), 역사서가 2회(4%), 바울서신이 15회(30%) 그리고 일반서신이 1회(2%)로 나타나 전년도와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 책별로는 마태복음이 6회(12%), 시편이 5회(10%), 누가복음이 4회(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세 책의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1993년도 조사 결과를 볼 차례이다.

(표 3-4) 1993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창 세 기	2	잠 언	3	마가복음	2	로 마 서	2	에베소서	5
민 수 기	1	이 사 야	1	누가복음	2	고린도전서	5	빌립보서	3
신 명 기	1	요 나	1	요한복음	2	고린도후서	1	골로새서	2
시 편	2	마태복음	10	사도행전	1	갈라디아서	1	디모테후서	2

1993년도에는 구약이 11회(22.4%), 신약이 38회(77.6%)로 전년도에 비해 볼 때 신약의 비중이 9.6% 정도 증가하였다. 구약의 경우 율법서가 4회(8.2%), 시가서가 5

회(10.2%), 선지서가 2회(4.1%)로 나타나 전년도에 이어 역사서가 전무한 것이 두드러진다. 신약의 경우 복음서가 16회(32.7%), 역사서가 1회(2%), 바울서신이 21회(42.9%)로 나타나 바울서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주목할 만 하다. 책별로는 단연 마태복음이 10회(20.4%)로 선두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가 각각 5회(10.2%) 씩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같이 마태복음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1994년도 조사 결과를 보기로 하자.

(표 3-5) 1994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창 세 기	3	이 사 야	1	마태복음	6	고린도전서	1	히브리서	1
신 명 기	2	예레미야	1	마가복음	2	갈라디아서	2	베드로후서	2
여호수아	1	에 스 겔	1	누가복음	4	에베소서	2		
사무엘상	1	호 세 아	1	요한복음	3	빌립보서	1		
시 편	2	아 모 스	1	사도행전	2	골로새서	2		
잠 언	1	스 가 라	1	로 마 서	3	데살로니가전서	1		

1994년도에는 구약이 16회(33.3%), 신약이 32회(66.7%)로 나타나 역시 신약이 구약의 두 배를 차지하고 있다.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서가 5회(10.4%), 역사서가 2회(4.2%), 시가서가 3회(6.3%) 그리고 선지서가 6회(2.5%)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선지서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15회(31.3%), 역사서가 2회(4.2%), 바울서신이 12회(25%) 그리고 일반서신이 3회(6.3%)로 나타나 예년처럼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책별로는 6회(12.5%)를 나타낸 마태복음이 연이어서 4년째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누가복음 4회(8.3%),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각각 3회(6.3%)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1995년도 조사 결과를 보기로 하겠다.

(표 3-6) 1995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창 세 기	3	잠 언	1	마태복음	5	로 마 서	1	디모데전서	1
출애굽기	1	이 사 야	3	마가복음	1	고린도전서	2	디모데후서	2
사무엘상	2	예레미야	1	누가복음	5	고린도후서	1	히브리서	1
역 대 하	1	다 니 엘	1	요한복음	7	빌립보서	1		
시 편	2	하 박 국	1	사도행전	4	골로새서	1		

1995년도에는 구약이 16회(33.3%), 신약이 32회(66.7%)로 나타나 전년도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약의 경우 율법서가 4회(8.3%), 역사서가 3회(6.3%), 시가서가 3회(6.3%), 선지서가 6회(12.5%)로 나타나 전년도와 흡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신약의 경우 복음서가 18회(37.5%), 역사서가 4회(8.3%), 바울서신이 9회(18.8%), 일반서신이 1회(2.1%)로 나타나 복음서의 강조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별로는 요한복음이 7회(14.6%),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각각 5회(10.4%)를 차지해 이 세 책이 전체의 35%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6년도 조사 결과를 보기로 하자.

(표 3-7) 1996년도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창 세 기	1	잠 언	1	마태복음	4	로 마 서	4	데살로니가전서	1
신 명 기	1	전 도 서	2	마가복음	4	고린도전서	3	베드로후서	1
사무엘상	1	이 사 야	2	누가복음	8	고린도후서	1	요 한 1서	1
열왕기상	1	에 스 겔	1	요한복음	1	갈라디아서	2		
시 편	4	아 모 스	1	사도행전	3	골로새서	1		

1996년도에는 구약이 15회(30.6%), 신약이 34회(69.4%)로 나타나 신약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약 3%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의 경우 율법서가 2회(4.1%), 역사서가 2회(4.1%), 시가서가 7회(14.3%) 그리고 선지서가 4회(8.2%)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선지서가 약화되는 대신 시가서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의 경우 복음서가 17회(34.7%), 역사서가 3회(6.1%), 바울서신이 12회(24.5%) 그리고 일반서신이 1회(2%)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책별로는 누가복음이 8회(16.3%), 시편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및 로마서가 각각 4회(8.2%)를 나타내 이 다섯 책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 본문 사용 빈도를 연도별로 조사함으로써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본문 채택의 흐름과 특성을 매해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이상의 7년 동안 나타난 통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차례가 되었다. 아래 제시된 표는 7년 동안의 성경 본문 사용 빈도를 총 집계한 것이다.

(표 3-8)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성경 책별 사용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책 명	빈도수
창 세 기	15	욥 기	1	아 모 스	2	로 마 서	18	디모데전서	3
출애굽기	5	시 편	19	요 나	2	고린도전서	16	디모데후서	6
민 수 기	3	잠 언	12	하 박 국	1	고린도후서	8	히브리서	6
신 명 기	6	전 도 서	3	스 가 라	1	갈라디아서	10	베드로전서	2
여호수아	3	이 사 야	11	마태복음	39	에베소서	12	베드로후서	4
사무엘상	6	예레미야	2	마가복음	13	빌립보서	10	요한 1서	2
사무엘하	1	에 스 겔	4	누가복음	31	골로새서	6		
열왕기상	2	다 니 엘	2	요한복음	27	데살로니가전서	5		
역 대 하	2	호 세 아	1	사도행전	18	데살로니가후서	1		

위 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해보면 구약이 104회(30.5%), 신약이 237회(69.5%)로 나타나 신약이 구약보다 2.3배 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서가 29회(8.5%), 역사서가 14회(4.1%), 시가서가 35회(10.3%) 및 선지서가 26회(7.6%)로 나타나 시가서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약에 있어서는 복음서가 110회(32.3%), 역사서가 18회(5.3%), 바울서신이 95회(27.9%) 및 일반서신이 14회(4.1%)로 나타나 복음서와 바울서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책별로는 마태복음이 39회(11.4%), 누가복음이 31회(9.1%), 요한복음이 27회(7.9%), 시편이 19회(5.6%) 그리고 사도행전과 로마서가 각각 18회(5.3%)의 순서로 나타나 복음서와 시편,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비중이 전체의 44.6%로 중요하게 취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7년 동안 설교 본문으로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성경 책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구약에서는 레위기, 사사기, 룻기, 열왕기하,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테르, 아가, 예레미야 애가, 요엘, 오바댜, 미가, 나훔, 스바냐, 학개, 말라기 등 율법서에서 1책, 역사서에서 7책, 시가서에서 1책, 선지서에서 8책이 설교 본문 채택에서 제외되었다. 신약에서는 디도서, 빌레몬서, 야고보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 바울서신에서 2책, 일반서신에서 4책 그리고 예언서에서 1책이 설교 본문 채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정성구 교수의 편저 설교학 개론 가운데서 성경 본문의 규칙과 관련된 한 부분을 아래에 인용해 보겠다.

습관적으로 성경의 어떤 부분을 경시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즉 하나님의 품성의 모든 계시와 그분의 섭리하시는 방법들과, 인간 생활과 의무의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표상과 예언들을 문제점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항상 구약만 설교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신약의 복음적 귀한 진리 즉 은혜의 교리들과 그리스도의 귀한 가르침을 손실하고 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 신·구약 성경을 모두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³⁾

원칙적인 면에서 신약과 구약 모두가 설교에서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개혁신교회에서 확고하게 인정받고 있는 핵심적 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실상은 어떠할까? 한국신학대학교의 구약학 교수 장일선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구약 본문이 설교에 사용되는 비율에 대해 해방전 16%보다 해방후 23%로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개신교 1백년 역사동안 평균 26%에 불과하며 그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 등 네 책 정도에 그 선호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구약 전체 66권 분량 가운데, 구약은 실제로 3% 정도만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 본문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⁴⁾

이러한 통계 자료는 한국 교회의 설교가 신약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구약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또 그러한 현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나채운 역시 아래와 같이 동의하고 있다.

현재 설교자가 구약을 본문으로 하는 경우는 30%도 못되는데 이것은 구약이 분량에 있어 신약의 3배 이상인 것을 계산하면, 신약에 비해 7:1의 비율이 된다. 구약을 그 분량에 따라 신약의 3배나 설교해야 한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으나,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주 설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구약을 설교할 때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신약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⁵⁾

3) Ibid., 77.

4) 장일선, 구약 성서와 설교 (서울: 전광사, 1989), 44-54. 김지철 외 11명, 성경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3), 9-10.에서 재인용.

5) 나채운, “성경에 비쳐본 한국 교회 설교의 문제점”, 김지철 외 11명, 성경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3), 28-29.

이러한 맥락에 따라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구약학 교수 김중은 역시 구약의 제3의 사용, 즉 성화를 위해 구약이 사용되어지는 정당화의 기초 위에서, 또 신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근거로서 구약 성경 본문의 말씀도 신약과 함께 말씀의 식탁에 편중됨이 없이 공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⁶⁾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최소한 정통 개혁 신학을 인정하는 학자라면 구약이나 신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설교의 본문으로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이유를 근거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비율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듯이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는 성경의 형성과정에 대한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도 곧 파악될 수 있는 일이다.

성경은 정경만 해도 육십 육권으로 되어 있으며 저자는 미상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십 여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오늘의 정경으로 형성되기까지 몇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도 역시 필요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주로 사건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된 사람에 의하여 해석되고 마침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책으로 기록되고, 또 마침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에 의하여 정경으로 수락되어서 교회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⁷⁾

성경 형성의 역사를 한 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 위의 표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 동시에 수많은 성경들과 저자들과 그에 따라 소요된 시간들의 의미를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명령하셨으며 다윗에게도 지시하셨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바울에게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셨지만 그리하여 변함이 없으셨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인 사람들은 항상 동일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변함이 없는 존재일 수는 더더욱 없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동 시대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6) 김중은, “구약도 자주 설교합시다”, 김지철 외 11명, 성경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3), 12-16.

7) 박창환, 신약성경해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0), 52.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과 행동을 나타내 보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고 행동하셔야 했던 것이다. 물론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에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었지만, 그것이 각기 다른 역사적 상황에 적용될 때에는 그 특수성에 맞는 적절한 형태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클라우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에 의하면 초대 기독교의 성서는 구약이었다.⁸⁾ 그가 생각하고 있는 초대 기독교의 시기가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신약과 구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베른하르트 로제(Bernhard Lohse)의 기독교 교리사 (Epochen der Dogmen Geschichte)에는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첫 세기의 정경은 본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오로지 구약만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⁹⁾ 그것도 구약 전체가 기독교의 책으로 초대 교회에 확신되었던 것은 저스틴(Justin)이 유대인 트리포(Trypho)와 나눈 대화록에 의해 확인되며, 저스틴(Justin)이 기원 후 165년경 사망한 것으로 볼 때¹⁰⁾ 기독교 교회는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구약 정경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은 물론이요, 구약 성경조차도 극히 산발적으로나 부분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음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전체가 들리어지거나 읽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와 그들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접하는 기회를 가졌을 뿐이다. 모든 성경을 다 접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각 시대와 각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적절히 선포되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적 삶의 자리에 함께 위치한 한국의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설교가 선포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서 성경 본문도 달리 선택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복음서에 인용된 구약 성경 빈도수를 조사해

8) Claus Westermann, 구약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 (The Old Testament and Jesus Christ) 문희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4판), 7.

9) Bernhard Lohse, 기독교 교리사 (Epochen der Dogmen Geschichte), 구영철 옮김 (서울: 컨콜디아사, 1992), 33.

10) Ibid., 34.

보면 창세기 4회, 출애굽기 13회, 레위기 9회, 신명기 20회, 느헤미야 1회, 시편 27회, 이사야 24회, 예레미야 4회, 다니엘 7회, 호세아 4회, 요나 1회, 미가 3회, 스가랴 6회, 말라기 4회로 나타났다.¹¹⁾ 사복음서의 특성상 병행 귀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편과 이사야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용된 책 수도 14책에 한정되고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성경 본문이 취사 선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확고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서 기자들조차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설교자의 성경 본문 선택은 아무도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청중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교자 자신이 결정할 고유의 권한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 교회 주일 설교에 있어서 구약의 경우 시편, 창세기, 잠언, 이사야의 순서로, 신약의 경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순서로 성경 본문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의의를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청중 분석이 끝난 후 그 결과와 관련해서 다시 거론하게 될 것이다.

2. 설교의 주제에 관한 분석

정성구 교수가 편집한 설교학 개론 제6장 주제 부분에는 주제와 본문의 관계, 주제의 중요성, 주제에 대한 정의, 주제의 언급 및 좋은 주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주제와 본문의 관계에 관한 것과 좋은 주제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주장에 의하면 주제는 성경 본문으로부터 연역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성경 본문에 대한 일반화 또는 귀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 본문이 이미 선택된 주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치있게 하고 지지한다는 이념들을 표현하고 제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 그러므로 주제가 먼저 선정되면 그 때에는 그 주제를 공정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본문을 주의깊게 찾아야 하고, 만약 본문이 먼저 선정되면 그 다음에 그 본문에서 어떤 명확한 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조언하고 있다.¹³⁾

11) 제자원 편, 그랜드 종합 주석⑫ 마태복음·마가복음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3), 60-62.

12) 정성구 편, Ibid., 80.

13) Ibid., 82.

그러면 어떤 주제가 좋은 주제일까? 이에 대하여는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설교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점, 둘째로 일반적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 셋째로 몇 개의 단어로 설교의 초점적인 이념을 포착할 수 있도록 간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넷째로는 주제 자체가 기독교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⁴⁾

이와같은 관점을 가지고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소망 교회 주일 설교를 대상으로 설교의 주제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소망 교회 도서관에 비치된 설교 테이프 안내 카드를 관련 자료로 활용하였다. 소망 교회 도서관은 각종 도서 자료 뿐 아니라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를 녹음한 테이프를 음향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안내 카드를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비치해두고 있었다.

(양식 3-2-1)

ST곽836	
1990	
0701	곽, 선희. 온유한자의 권세, 시편 37:1-11. 1990. 7. 1. (주일) A면. B면, 예수의 이적연속강해 34(삼일기도회)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 22:47-53. 1. 온유. I. 제목(A, B면) II. 본문(A, B면)

(양식 3-2-2)

ST곽836	
1990	
0812	곽, 선희. 참 자유예로의 길, 갈라디아서 5:13-18. 1990. 8. 12. (주일) A면. B면, 야고보서강해 3 (삼일기도회) -구하라 주시리라, 야고보서 1:5-8. 1. 자유. I. 제목(A, B면) II. 본문(A, B면)

14) Ibid., 85-87.

즉 이 카드는 소망 교회 도서관이 비치하고 있는 광선희 목사의 설교 테이프에 대해 A면은 주일 설교의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인 것을, 그리고 B면은 삼일 기도회의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인 것을 안내해 주고 있었다. 특히 주일 설교의 경우에는 그 설교가 행해진 년, 월, 일이 기록되어 있었고 카드에 기록된 내용 중 마지막 줄의 맨 처음 기록된 단어는 해당일에 행해진 주일 설교의 주제를 명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망 교회 도서관에서 분류해 놓은 주제는 검토해 본 결과 얼마간의 오류 내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기에 합당한 분석자료로 삼기 위해 일부를 보충 또는 삭제하거나 정정함으로써 바로잡았음을 밝혀둔다. 이 주제를 조사한 양식은 본 논문 3장의 양식 3-1 설교 특성 분석표(I)에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부록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기서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 소망 교회에서 행해진 주일 설교의 주제를 분석해 본 결과 주제의 종류는 모두 134개로 집계되었다. 이제 그 빈도수가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까지 주제가 사용된 회수에 따라 표로 제시해 보면 그것은 아래와 같다.

(표 3-9)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 교회 주일 설교 주제 빈도수

빈도수	주 제 (무순)
1회	충성, 지체, 증인, 은유, 좌절, 자랑, 복음, 신념, 원망, 들음, 영접, 고민, 직분, 청년, 비전, 징계, 평등, 정직, 근심, 화평, 청지기, 긍휼, 해방, 회개, 제자, 권세, 진실, 괴로움, 대인관계, 두려움, 보호, 보응, 겸손, 시기질투, 성탄, 경건, 낙심, 본향, 게으름, 친구, 결실, 위기, 순종, 성취, 형통, 미래, 은사, 천국, 소유, 핍박, 용서, 소원, 재물, 본보기, 거짓, 추수, 정결함, 헌신, 기도, 죄 (60개)
2회	훈련, 말, 불신, 나눔, 결단, 치유, 예배, 선교(전도), 하나됨, 언약, 애국, 진리, 편견, 참인간, 윤리, 가정, 결산, 찬양, 부모, 봉사, 하나님, 지식, 가르침, 예비, 건강, 재난, 삶의 자세, 자아, 길, 섬김, 선행, 고독, 변화 (33개)
3회	효도, 선악, 죽음, 성공(열매), 개혁, 소명, 지혜, 어린이, 지도자, 구원, 시간, 기쁨, 시련(시험) (13개)
4회	자녀교육, 성령, 깨달음, 기다림(인내), 평안, 분노, 고난, 종말, 십자가, 새존재, 소망 (11개)
5회	성숙, 의, 선택 (3개)
6회	승리, 교회, 부활, 축복, 행복 (5개)
7회	용기, 생명, 일 (3개)
8회	성서, 자유 (2개)
9회	감사 (1개)
10회	은혜 (1개)
12회	사랑 (1개)
19회	믿음 (1개)

위의 분석표를 통해서 첫 눈에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주제의 범위가 아주 넓다고 하는 점이다. 7년 동안의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134개의 주제가 적절히 분산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설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제가 광범하다는 것은 주제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주제가 다양하다는 것은 주제 자체가 일반성을 벗어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134개의 주제 중 한 번씩만 사용된 주제가 60개로써 44.8%에 달하고 있다는 것과 빈도수 2회~4회로 나타난 주제의 합계가 57개로써 4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명백해진다.

다음으로 파악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사랑’, ‘은혜’와 같은 주제들이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면서 설교되어졌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믿음’은 19회, ‘사랑’은 12회, ‘은혜’는 10회, ‘감사’는 9회 였으며 ‘성서’와 ‘자유’가 각각 8회씩으로 나타나 이 주제들의 빈도수를 모두 합하면 66회로써 49.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모든 주제가 기독교적일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주제들은 소망 교회 주일 설교에서 특별히 강조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정리한다면 소망 교회 주일 설교에 있어서 주제의 특성은 광범성과 집중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이 두 특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광범성은 주제의 특수화,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집중성은 주제의 기독교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 주제들은 존 브로더스(John Broadus)의 좋은 주제의 관점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3. 텍스트와 테마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정성구 교수가 편집한 설교학 개론 제10장에는 설교학적 구조에 의한 분류가 소개되고 있다. 그 책에 의하면 설교는 본문설교, 주제설교, 본문-주제설교, 강해설교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성경 본문에 따라 구분되는 설교를 본문설교, 주제에 따라 구분되는 설교를 주제설교, 성경 본문과 주제 양편에 따라 구분

15)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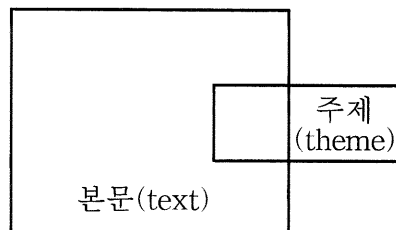
되는 설교를 본문-주제설교,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데 치중하는 설교를 강해설교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⁶⁾

그런가 하면 이동원 목사는 그의 저서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에서 설교형식 즉 본문 취급에 따라 설교를 분류하면서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제목설교는 설교형식 자체가 연역적이어서 다루고자 하는 제목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기 저기서 뽑아 그 제목을 증명·지원하는 설교라는 것과 본문설교는 성경의 한 두 구절을 본문(text)으로 정함으로써 주제와 대지가 본문에서 나오는 설교라는 것, 그리고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의 본래적 의미와 보편적 진리가 천명되고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설명되어 삶에 적용되게 하는 설교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⁷⁾

한편 소망 교회의 곽선희 목사는 앞의 두 사람이 보여 준 설교 분류와 유형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성경본문(텍스트 text)과 설교주제(테마 theme)의 관계성 아래서 설교를 분류한다. 즉 제목설교란 설교의 주제가 성경본문에 걸쳐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¹⁸⁾

(도 3-1)

본문과 주제 관계에서 본 제목설교



또 본문설교란 설교의 주제가 성경본문에서 나오되 본문 안에 여러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설교를 말하며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¹⁹⁾

16) Ibid., 103-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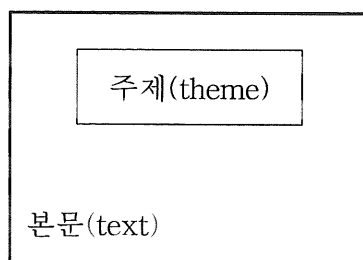
17)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4), 99-105.

18) Sun Hee Kwak, Ibid., 3.

19) Ibid.

(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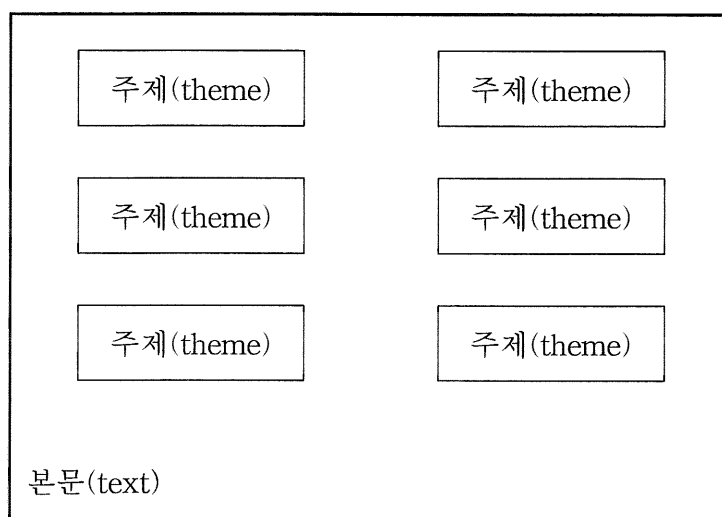
본문과 주제 관계에서 본 본문설교



강해설교란 설교의 주제가 성경 본문에서 나오되 본문 안에 여러 주제가 있을 때 그 모두를 취급하는 설교를 의미하며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²⁰⁾

(도 3-3)

본문과 주제 관계에서 본 강해설교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의 설교에 대해 곽선희 목사가 간략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인용하면 그것은 아래와 같다.

첫번째는 제목설교이다. 척 스미스는 이것을 사탄적이라고까지 했다. 두번째는 본문설교이다. 오늘은 사마리아 사람만 이야기 한다. 테마를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한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할 때 오늘은 레위인에 대해서만 설교한다. 다음 주는 제사장에 관하여만 설교한다. 세번째는 강해설교이다. 강해설교는 본문에 나타난 테마를 다 말한다.²¹⁾

20) Ibid.

21) Ibid.

이미 본 논문의 서론 부분 중 연구사 고찰에서 밝힌 바 있는 것처럼 객선회 목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위의 세 설교 유형 가운데 본문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²⁾ 따라서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 분석은 우선 이것에 대한 검증은 해 볼 필요가 있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설교 유형 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표 3-10) 설교학적 구조에 따른 설교 유형 분석 결과

년도	주일설교 회수		비율		
			텍스트와 테마 관계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1990	49회	회 %	1회 2%	48회 98%	
1991	48회	회 %		48회 98%	
1992	50회	회 %	1회 2%	49회 98%	
1993	49회	회 %	1회 2%	48회 98%	
1994	48회	회 %		48회 100%	
1995	48회	회 %		48회 100%	
1996	49회	회 %		49회 100%	
총합계	341회	회 %	3회 0.9%	338회 99.1%	

이상의 표 3-10에서 나타난 바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가 설교학적 구조 분류로 볼 때 철저히 본문설교 중심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주제의 특성 분석 결과에 연관지어 고찰할 때 그 의미가 서로 부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본문설교의 형태는 성경 본문에서 하나의 주제만을 선택하여 설교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산출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은 동시에 주제의 명확화와 특수화로 연결지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존 브로더스(John Broadus)가 주제의 명확성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22) 본 논문 16. 참조.

명확한 주제는 설교자로 하여금 설교를 준비하게 하며 그 조직화에 열쇠가 되며 또한 그가 자료를 선택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우기 잘 선택된 주제는 회중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잘 선택되고 분명한 주제는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말하여 줄 것이다.²³⁾

이러한 의미에서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는 설교학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설교의 주제와 구조로부터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제2절 설교분석 II - 설교의 형태적 특성 분석

존 브로더스(John Broadus)는 설교를 형태에 의해 분류할 때 다이아몬드형, 사다리형, 꼬리표형, 대조형, 문답형, 추적형, 진단과 치료형, 헤겔 철학형, 유추형, 증명형, 반증형, 후렴형, 연속 발언형, 난전형, 해석 적용형 및 전복형의 열 여섯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²⁴⁾ 이러한 분류는 설교의 전개 스타일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써 설교의 전체적인 모양과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 위에 열거된 것들보다 더 많은 설교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의 전체적인 모양을 개발하는 설교 형태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보다 더 부분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서론에는 어떤 유형들이 많이 또는 적게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결론의 유형에는 어떤 형식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가? 특별히 성경의 문학 유형과 관련하여 수사학적 특성은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모색함으로써 설교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특성과 함께 수사학적 특성까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1. 설교의 제목에 관한 분석

존 브로더스(John Broadus)는 제목의 중요한 기능이란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매혹시키며 그들의 진지한 흥미를 일으키는 데 있다고 하면서, 좋은 제목이란 첫째로

23) 정성구 편, Ibid., 83.

24) Ibid., 120-129.

흥미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솔직해야 하며, 세째로 통속적이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²⁵⁾ 이와같은 그의 지적은 제목이 청중들을 위해 제시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따라서 청중을 인식하면서 제목을 진술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헨리 브라운(H. C. Brown) 외 두 명이 공동 집필한 「설교의 구성론」(Steps to the Sermon)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효과적인 제목은 설교자에게 분할이 가능한 전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로부터 설교자는 설교 본론의 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심지어는 제목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도 설교자가 자료들을 수집하고 선택, 압축하는 일을 돕는다. 정확한 제목은 설교의 구조상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제목들을 한정하고 통일시키는 귀중한 도구이다. 잘 준비된 제목은 설교자가 서론에서부터 시작하여 회중 초대에 이르기까지 주제에 충실하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²⁶⁾

위와 같은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측면을 지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에 청중들을 위한 안내라거나 아니면 설교의 핵심적 내용을 청중들에게 강조해서 드러내는 정도로 인식하기 쉬운 데서 돌이켜, 제목이란 설교자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이다. 즉 좋은 제목이란 설교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기에 설교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실제로 전달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제에 합당한, 효과적인 설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주장에 긍정하는 설교자라면 설교의 제목을 선택하고 그것을 진술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고도 창의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쏟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헨리 브라운(H. C. Brown)은 계속해서 제목이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특징들으로써 명확성, 정확성, 한정성, 간결성, 적합성, 관련성 그리고 근원성의 일곱가지를 제시한 후, 특별히 제목의 표현에 관심을 보이면서 분할 가능한 제목은 본론 안에서 기술될 주안점들에 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는 바 그 형태를 첫째, 강조어를 통한 방향 제시; 둘째, 의문문에 의한 방향 제시; 셋째, 명령문에 의한 방향 제시; 넷째, 서술문에 의한 방향 제시; 다섯째, 한정적인 단어에 의한 방향 제시의 다

25) Ibid., 88-90.

26) H. C. Brown외 공저, 설교의 구성론 (Step to the Sermon), 정장복 편역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1987, 3판), 138.

섯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²⁷⁾

여기서 의문문이나 명령문 그리고 서술문의 경우에는 형태가 명확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작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지만, 강조어를 통한 방향 제시나 한정적인 단어에 의한 방향 제시에 관하여는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부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강조어를 통한 방향 제시에 관한 몇몇 제목의 예를 들어 본다면 “감사가 넘치는 습관”, “그리스도의 충분성”, “동정의 미덕” 등과 같이 설교의 착상을 귀절 형태로 나타내는 유형을 말한다. 이 때 주요한 강조점을 얻기 위해 보통 한 개 내지 두 개의 명사를 결합시키는 모양을 지니게 된다.²⁸⁾

반면에 한정적인 단어에 의한 방향 제시의 예를 들어 보면 “두 번째의 5리”, “하나님의 더 크신 뜻”, “가장 좋은 친구” 등과 같이 보다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다른 수식어를 첨가하는 유형을 말하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형태의 제목에서 핵심어는 제목의 맨 첫 번 수식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얼마나?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지닌다는 점이다.²⁹⁾ 즉 “두 번째의 5리”는 어떤 두번째이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은 어떠한 종류의 더 크신 것이며, “가장 좋은 친구”에서 가장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등과 같다.

이렇게 볼 때 강조어를 통한 방향 제시 스타일의 제목은 제목 자체에서 설교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한 명료성이 더 두드러지는 형태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단어에 의한 방향 제시 스타일의 제목은 제목 자체에서는 설교의 목적이나 내용을 드러내지 않는 대신 오히려 은유적(metaphorical) 효과를 기대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자는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소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강점을 지녔다면 후자는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강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소망 교회 주일 설교에 나타난 제목들은 과연 어느 쪽을 더 선호했을까?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용한 양식은 아래와 같다.

27) Ibid., 139-147.

28) Ibid., 142.

29) Ibid., 145-147.

(양식 3-3)

설교 특성 분석표 (Ⅱ)

설교일시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제목의 유형	텍스트와 테마 관계	
년	월	일				서론의 유형	결론의 유형
90	1	7	마 6:28-34	한 날의 괴로움	5	4	6
90	1	21	신 8:6-1	광야 40년의 이유	1	5	3
⋮	⋮	⋮	⋮	⋮	⋮	⋮	⋮

위의 양식에 의거하여 해당 제목의 유형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였다. 유의할 일은 이 때의 아라비아 숫자는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번호를 의미하는데 혼돈의 우려를 무릅쓰고 숫자로 표기한 까닭은 헨리 브라운(H. C. Brown)의 책에 제시되어 있는 번호와 일치시키기 위해서였음을 밝혀 둔다. 조사된 전체 분량은 권말 부록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통계 결과와 그 의미만을 살피기로 하겠다.

(표 3-11)

설교 제목의 표현에 따른 유형 분석 결과

년도	설교 횟수	설 교 제 목		
		유 형	횟 수	비 율 (%)
1990	49	1	16	32.7
		2	1	2
		3	12	24.5
		4	7	14.3
		5	13	26.5
1991	48	1	14	29.2
		2	1	2.1
		3	9	18.8
		4	6	12.5
		5	18	37.5
1992	50	1	16	32
		2	3	6
		3	5	10
		4	3	6
		5	23	46

1993	49	1 2 3 4 5	12 1 6 5 25	24.5 2 12.2 10.2 51
1994	48	1 2 3 4 5	8 2 8 6 24	16.7 4.2 16.7 12.5 50
1995	48	1 2 3 4 5	14 2 5 7 20	29.2 4.2 10.4 14.6 41.7
1996	49	1 2 3 4 5	13 2 8 6 20	26.5 4.1 16.3 12.2 40.8
1990~1996 합 계	341	1 2 3 4 5	93 12 53 40 143	27.3 3.5 15.5 11.7 41.9

이상의 통계에서 나타나는 수치에 의해 제목의 표현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기로 하자. 우선 제1유형인 강조어를 통한 방향제시의 경우 1990년에는 16회(32.7%)로 다른 유형들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후 6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두번째 위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유형인 의문문에 의한 방향제시의 경우는 7년 동안 내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3유형인 명령문에 의한 방향 제시는 1995년에 5회(10.4%)로 4위를 나타낸 것 외에는 줄곧 3위에 위치하고 있다. 제4유형인 서술문에 의한 방향 제시는 1995년도에 7회(14.6%)로 3위를 기록한 외에는 줄곧 4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5유형인 한정적인 단어에 의한 방향 제시의 경우 1990년에 13회(26.5%)로 2위에 처진 것 말고는 6년 동안 계속 최다 빈도수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의 순서로 볼 때 제2유형 3.5%, 제4유형 11.7%, 제3유형 15.5%, 제1유형 27.3%, 제5유형 41.9%로 나타났다.

여기서 생각할 점은 제2, 제3, 제4 유형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또한 제1, 제5 유형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빈도수가 적은 세 유형의 비율은 모두 합해 보아도 30.7% 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빈도수가 많은 두 유형의 비율을 합해 보면 69.2%에 이르러 이 두 유형에 관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비중이 낮은 세 유형과 비중이 높은 두 유형 간의 차이점이다. 비중이 낮은 세 유형은 각각 의문문, 명령문, 서술문에 의한 방향 제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바 그 공통점은 모두 다 동사에 접속되거나 아니면 핵심어 자체가 동사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제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동사를 사용하며 그 동사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인 것이다. 이처럼 동사가 강조되는 표현 형식의 장점은 제목 자체가 청중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또는 생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지닌 단점은 방향 제시가 너무 직설적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설교자의 요구, 설교자의 의도가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망 교회 주일 설교의 제목 표현 형식은 이와같은 장단점을 지닌 동사 중심의 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로 사용된 표현 형식은 명사 중심의 표현 방식이었다. 제1유형인 강조어를 통한 방향 제시는 전형적인 명사 중심의 표현 방식으로서 한 개 내지 두 개의 명사를 결합시켜서 표현하며 이 때 핵심어로는 주로 뒤에 나오는 명사가 사용되었다. 즉 앞에 나오는 명사는 수식어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형태는 명사 중심의 표현 방식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제5유형에 비해서는 명료성이 더 강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동사 중심의 표현 방식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간접적이고 정적(靜的)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제목 표현 방식 중 41.9%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제5유형 역시 명사 중심적 표현 방식인 동시에, 앞에서 살펴 본 그 어떤 표현 방식들 보다 더욱 매력적이고도 묘한 여운을 특성으로 지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앞에 나오는 한정적인 단어들이 청중들로 하여금 특정한 질문을 야기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정적인 단어들의 기능은 청중들로 하여금 일종의 기대감과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설교에 깊이 끌려 들어오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이렇게 제목 표현 방식 중 제5유형인 한정적 단어에 의한 방향제시 형태가 소망 교회 주일 설교에서 가

장 자주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망 교회 주일 예배 설교자의 취향과 소망 교회 청중들의 특성 사이에 그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통찰력을 갖게 해 준다. 이에 대한 해석은 본 논문의 전개 과정 중 청중에 관한 분석이 종료된 후 있게 될 것이다.

2. 설교의 서론에 관한 분석

헨리 브라운(H. C. Brown)은 설교에 있어서 서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설교의 상황에서 맨 처음 마주치는 위기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 회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첫 문장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다음의 3~4분간의 사이에서 결정된다. 비록 성공적인 서론이 설교 전체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시작은 매우 귀중하다.³⁰⁾

이어서 그는 서론에서 주의할 점으로 첫째 분량은 설교 전체 내용의 약 10~15 퍼센트가 되어야 할 것, 둘째 청중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산만한 표현을 생략할 것, 셋째 단순히 유모어를 위한 유모어 사용을 피할 것, 넷째 회중을 귀찮게 하는 인사말을 포함시키지 말 것 등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³¹⁾

특별히 그는 서론의 목적으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설교의 목표를 밝히며 설교자와 회중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유형들로는 첫째, 본문의 소개; 둘째, 제목이나 주제에 의한 접근; 셋째, 주장과 구체적인 목표에 의한 접근; 넷째, 삶의 정황(life situation)에 의한 접근; 다섯째, 인상적인 인용에 의한 접근; 여섯째, 예화에 의한 서론 전개; 일곱째, 특별한 행사에 의한 접근; 여덟째, 질문 형식에 의한 접근; 아홉째, 물건 사용에 의한 접근 등 아홉 가지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³²⁾

본 논문의 서론 분석은 이와같은 헨리 브라운(H. C. Brown)의 서론 유형들을 기준으로 삼아 실시되었다. 분석표는 제목의 유형을 분석할 때 사용했던 양식 3-3에 포함되어 있으며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여 헨리 브라운(H. C. Brown)이 제시한

30) Ibid., 172.

31) Ibid., 172-173.

32) Ibid., 173-176.

아홉 종류의 서론 유형에 연결시켰다. 조사된 전체 분량은 권말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연도별 통계 결과를 보기로 한다.

(표 3-12)

설교의 서론 유형 분석 결과

년도	설교 횟수	설 교 의 서 론		
		유 형	횟 수	비 율 (%)
1990	49	1	5	10.2
		2	8	16.3
		3	4	8.2
		4	4	8.2
		5	7	14.3
		6	13	26.5
		7	3	6.1
		8	5	10.2
		9	0	0
1991	48	1	3	6.3
		2	11	22.9
		3	14	29.2
		4	2	4.2
		5	5	10.5
		6	11	22.9
		7	0	0
		8	2	4.2
		9	0	0
1992	50	1	0	0
		2	14	28
		3	6	12
		4	4	8
		5	10	20
		6	13	26
		7	0	0
		8	3	6
		9	0	0
1993	49	1	1	2
		2	21	42.9
		3	4	8.2
		4	1	2
		5	6	12.2
		6	11	22.4
		7	1	2
		8	4	8.2
		9	0	0

1994	48	1	0	0
		2	10	20.8
		3	0	0
		4	3	6.3
		5	7	14.6
		6	27	56.3
		7	1	2.1
		8	0	0
		9	0	0
1995	48	1	1	2.1
		2	11	22.9
		3	1	2.1
		4	1	2.1
		5	6	12.5
		6	28	58.3
		7	0	0
		8	0	0
		9	0	0
1996	49	1	1	2
		2	9	18.4
		3	0	0
		4	8	16.3
		5	8	16.3
		6	20	40.8
		7	2	4.1
		8	1	2
		9	0	0
1990~1996	341	1	11	3.2
		2	84	24.6
		3	29	8.5
		4	23	6.7
		5	49	14.4
		6	123	36.1
		7	7	2.1
		8	15	4.4
		9	0	0

위의 분석 결과는 서론의 유형들 아홉 종류 사이에 사용 빈도수와 비율의 편중도가 크게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제9유형인 물건 사용의 경우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 단 한번도 서론의 형태로 등장하지 않은 반면에, 제6유형인 에화 사용은 7년 동안 총 341회 중 123회로 나타나 36.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제7유형인 특별한 행사가 7회(2.1%)인 반면 제2유형 제목이나 주제에 의한 접근은 84회(24.6%)로 집계돼 각각 하위와 상위에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1유형인 성경 본문에 대한 소개가 11회(3.2%)인 반면에 제5유형인 인상적인 인용에 의한 접근이 49회(14.4%)로 조사돼 각각 아래와 위에서 3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하위 3개 유형의 비율을 합해보면 5.3%에 불과하지만 상위 3개 유형의 비율을 합하면 75.1%에 이르고 있어 그 편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 것일까? 우선 소망 교회 주일 설교 서론의 형태적 특성과는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견해부터 소개해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 포체프스트룸 대학교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D. M. Lloyd-Jones)의 설교를 연구하여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정근두 목사는 그의 저서 로이드 존스의 설교론 (Preaching of D. M. Lloyd-Jones)에서 로이드 존스(D. M. Lloyd-Jones)의 설교 방법 중 서론에 관한 일반적 평가를 아래와 같이 내리고 있다.

전도 설교를 제외하고는 로이드 존스는 대체로 사람과 그들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투사적 방법”(Bultrick, 1981:48)을 채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강해적 방법을 따르며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상관성을 주어진 상황에 보여 주는 것입니다.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지 마시고 상황에서 끝을 내십시오”(1981 A: 83). 달리 말해서 그의 방법은 이 문제에 관해 루터(M. Luther)가 했던 것처럼(Wood, 1949: 115-116) 본문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분석’을 설교의 서론으로 대개 활용한다.³³⁾

이와 같은 주장은 설교의 방향이 텍스트(Text: 성경 본문)로부터 시작해서 콘텍스트(context: 청중의 상황)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는 대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위치에 있는 학자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것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는 방향, 즉 콘텍스트(context: 청중의 상황)로부터 텍스트(Text: 성경 본문)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신학 방법론은 그러한 입장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상관 방법(method of correlation)이라 불리우는 그의 신학 방법

33) 정근두, 로이드 존스의 설교론-그의 설교의 원리와 방법- (서울: 여수론, 1994), 165.

론은 한 마디로 철학적 질문과 신학적 대답을 서로 연결짓는 것으로서, 티리히(Tillich)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상황 속에 암시된 질문을 메시지 속에 암시된 대답과 관계시키는 것, 즉 질문과 대답, 상황과 메시지, 인간 실존과 하나님의 계시를 서로 관계시키는 것이 된다.”³⁴⁾

이처럼 뚜렷이 구별되는 두 방법론의 차이는 전자가 성경 본문을 강조하는 듯이 보이고 후자가 상황을 강조하는 듯이 보이는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대립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방법론은 한 쪽의 장점이 다른 한 쪽의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는 장단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둘 다 훌륭한 신학방법론이요, 설교 방법론이 될 수 있고 또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두 분야에 모두 각각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었고 설교자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 만을 절대화하거나 아니면 최악시한다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자세이며 오히려 경우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소망 교회 주일 설교의 서론에서는 로이드 존스(Lloyd-Jones)의 입장인 성경 본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제1유형의 비율이 3.2%로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티리히(Tillich)의 신학방법론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제4유형 삶의 정황에 의한 접근의 비율도 6.7%로 결코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제6유형인 예화의 방법(36.1%)이었고 그 다음은 제2유형인 제목이나 주제에 의한 접근 방법(24.6%)이었다. 제2유형인 제목이나 주제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본 장 제1절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제목의 경우 한정적 단어들과 명사를 사용하여 드러난 듯 하면서도 감추인 듯한 은유적(metaphorical) 표현을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주제의 경우 광범한 영역에 연결된 다양성과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찰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과 이제 곧 살펴볼 예화에 관한 특성을 결합시키면 서론의 특성이 바로 산출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염필형 교수는 설교에서 예화를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로 첫째는 시각적으로 구체적인 표현과 유비가 회중들의 이해를 돕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로 예화는 설교를 재미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로 예화는 설교자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추리와 주

34)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8. 목창균, 현대 신학 논쟁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197에서 재인용.

장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네째로 예화는 청중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곳으로 영역을 넓혀주기 때문이라는 것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³⁵⁾ 즉 그는 예화가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를 재미있고도 쉽게 그리고 넓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 교회 주일 설교의 서론에 예화 아니면 제목이나 주제에 의한 접근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근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낮은 비율을 나타낸 서론의 다른 유형들을 살펴 볼 때에도 역시 명백히 드러난다. 물건의 사용이나 특별한 행사, 성경 본문의 소개나 질문 형식, 삶의 정황에 의한 접근이나 구체적 목표에 의한 접근 유형들은 모두를 합해도 24.9% 밖에 되지 않았으며 평균치로는 4.2%에 머물 뿐이었다. 이들 낮은 비율의 유형들은 직접성과 구체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특징들은 단순하고도 단도직입적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딱딱하거나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기 쉽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소망 교회 주일 설교는 이와같은 유형들을 뒤로 물리쳐 멀리하는 대신 청중들로 하여금 관심과 재미와 이해를 갖게 하면서 동시에 은유적인 흡인력 속에 부드럽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몰입되어 갈 수 있는 서론의 유형들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그와같은 특성들은 제목이나 주제를 선택할 때의 특성들과 깊은 연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적어도 설교의 제목에서부터 설교의 서론 부분까지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터치하지 않는 절제성과 그 문제에 서서히 다가서는 점진성, 그러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은은하게 뿜어내는 함축성 등이 교묘히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스타일을 설교자가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설교자의 본능적인 설교 감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가 청중들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온 결과인지는 추후 청중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밝혀지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제목의 특성과 서론의 특성이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소망 교회 교인들의 욕구와 일치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35) 엽필형, Ibid., 324-325.

3. 설교의 결론에 관한 분석

헨리 브라운(H. C. Brown)은 설교에 있어서 결론이 성경 본문을 제외한 설교의 어떤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블랙우드(Blackwood)의 말을 인용하면서³⁶⁾ 아래와 같이 부가하여 결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설교의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세련된 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 기도와 봉사, 찬양, 성경 봉독 등을 통한 예배 순서가 진행된 후 메시지의 선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면 설교자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결론은 설교자에게 엄격한 목표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설교의 모든 내용을 균형있고 감동적인 절정으로 인도하는 부분이다. 메시지가 이 부분에서 가장 선명한 초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결론은 가장 큰 기회와 또한 가장 큰 위험이 공존하는 긴장의 순간을 형성한다.³⁷⁾

그는 계속하여 결론부에서 행할 유의점으로 설교를 끝맺겠다고 되풀이 말하면서도 끝맺지 못하는 습관과 아무런 목표도 없이 장황하게 결론부를 이끌어가는 습관 등을 버리도록 조언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의 특징으로 통일성, 명료성, 일관성, 개인성, 구체성, 긍정성 및 긴박성을 지적한 후, 결론의 유형들로 첫째, 적용; 둘째, 예화; 셋째, 직접적인 권고; 넷째, 시(詩); 다섯째, 요약(본문의 반복 또는 재강조, 설교의 제목 강조, 본문의 대지 반복, 주제와 목표의 강조)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³⁸⁾

따라서 결론의 유형들을 분석할 때 위의 다섯 종류로만 제한할 수도 있었으나 설교의 결론부에서는 성경 귀절로 끝내도록 한다는 곽선희 목사의 주장을 고려하여 성경귀절 항목을 따로 독립시켜서 여섯 종류의 항목으로 조정하였다.

그럼 이제부터 결론의 유형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 작업을 위하여 사용된 양식은 서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식 3-3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권말 부록에 실려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여기서는 결론의 유형에 관한 연도별 수치와 비율에 관한 결과를 표로 제시한 후 그 의미를 탐색하게 될 것이다.

36) Andrew Blackwood, The Preparation of Sermons (New York: Abingdon-cokes-bury Press, 1948), 162. H. C. Brown의 공저, 설교의 구성론 (Steps to The Sermon), 정장복 번역 (서울: 양서각, 1987, 3판, 167에서 재인용).

37) Ibid.

38) Ibid., 167-171.

(표 3-13)

설교의 결론 유형 분석 결과

년도	설교횟수	설 교 의 결 론		
		유 형	횟 수	비 율 (%)
1990	49	1. 적용 2. 예화 3. 직접 권고 4. 시 5. 요약 6. 성경 귀절	5 10 11 2 0 21	10.2 20.4 22.4 4.1 0 42.9
1991	48	1. 적용 2. 예화 3. 직접 권고 4. 시 5. 요약 6. 성경 귀절	4 6 13 1 1 23	8.3 12.5 27.1 2.1 2.1 47.9
1992	50	1. 적용 2. 예화 3. 직접 권고 4. 시 5. 요약 6. 성경 귀절	3 6 17 4 2 18	6 12 34 8 4 36
1993	49	1. 적용 2. 예화 3. 직접 권고 4. 시 5. 요약 6. 성경 귀절	8 6 7 2 9 17	16.3 12.2 14.3 4.1 18.4 34.7
1994	48	1. 적용 2. 예화 3. 직접 권고 4. 시 5. 요약 6. 성경 귀절	2 7 6 4 8 21	4.2 14.6 12.5 8.3 16.7 43.8
1995	48	1. 적용 2. 예화 3. 직접 권고 4. 시 5. 요약 6. 성경 귀절	6 7 5 1 3 26	12.5 14.6 10.4 2.1 6.3 54.2
1996	49	1. 적용 2. 예화 3. 직접 권고 4. 시 5. 요약 6. 성경 귀절	7 10 7 5 1 19	14.3 20.4 14.3 10.2 2 38.8
1990~1996	341	1. 적용 2. 예화 3. 직접 권고 4. 시 5. 요약 6. 성경 귀절	35 52 66 19 24 145	10.3 15.2 19.4 5.6 7 42.5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 소망 교회 주일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인 유형이 제6유형인 성경 귀절로서 총 145회, 4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교의 끝에 성경 귀절로 끝맺음하는 것의 장점에 대하여는 존 브로더스(John Broadus)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성경의 본문 자체가 설교의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다. 설교가 성경 본문 가운데서 발전되어 나와 그 본문의 내용의 풍부함을 보여준 뒤 종결짓는 의미에서 성경의 본문을 강조하여 되풀이하게 되면 이제껏 설교한 내용을 감동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³⁹⁾

존 브로더스(John Broadus)는 성경 귀절을 결론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그가 말하는 결론의 방법들이란 반복, 응용, 직접적인 호소, 목회적 훈계, 토의된 주제의 재반복, 예화, 시 등으로서 성경 귀절 역시 그 방법들 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⁴⁰⁾ 이러한 입장은 자연스럽게 결론 유형에서 차지하는 성경 귀절의 비중이 낮아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자인곽선희 목사에게 있어서 결론 부분과 성경 귀절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는 설교가 설교자에게는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속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듣는 회중들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Let God be God)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말씀되게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⁴¹⁾ 그리고 이러한 맥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증거된다는 관점 아래서 결론과 성경귀절의 상관성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설교에서 마지막 결론을 할 때 키워드(Keyword)를 읽으면서 끝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라.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는 것이다. 죽어있는 말씀을 살리는 것이다.⁴²⁾

결론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성경 귀절이 단연 최다 빈도를 나타낸 것은 이유가 있다. 설교자가 그만큼 결론에 있어서의 성경 귀절 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성경 귀절을 결론 부분의 끝에 들려줌으로써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청중들에게 강하게 인식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39) 정성구 편, Ibid., 182.

40) Ibid., 178-182.

41) Sun Hee Kwak, Ibid., 13.

42) Ibid., 14.

결론의 유형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유형이 제3유형인 직접적 권고라는 사실이다. 빈도수는 66회 비율은 19.4%를 나타냈다. 직접적인 권고를 결론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는 헨리 브라운(H. C. Brown)은 직접적인 권고의 성격이란 주제와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결론 부분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메시지에 근거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⁴³⁾ 다시 말하면 설교자의 직접적인 권고는 청중들의 행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 교회 주일 설교는 위에서 살펴본대로 성경 귀절과 직접적 권고의 형태가 결론의 주된 유형으로 사용되었다. 그 특징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메시지에 따른 행동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신앙 의식과 매우 높은 의지 수준을 전제하고 있다. 소망 교회 청중들이 이러한 결론의 유형들을 선호하였다는 것은 그 교회의 숫적 성장이 증명해 주고 있다.

정리해보건대 소망 교회 주일 설교는 다양하고 특수화된 주제를 은유적인 제목으로 드러낸 후 함축적인 접근 방법의 서론부를 거쳐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신적 권위의 절대성을 가지고 청중의 전인격에 직접적이고도 강렬하게 호소하는 형태였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설교 모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제3절 설교 분석 III-설교의 문학적·수사적 분석

설교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문학적이고도 수사적인 접근 방법은 설교와 성경 본문의 관계, 특히 성경 본문의 문학 유형이 설교의 수사적인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되는 탐구이다. 성경 본문이 역사라든지, 전기라든지, 시(詩)라든지, 잠언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아니면 서신이라든지 하는 일정한 형식의 문학 유형들의 모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처럼 여러 가지 문학 유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일까? 문학적이고도 수사적인 접근 방법은 거기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성경의 저자로 쓰임받은 사람들

43) H. C. Brown외, Ibid., 170.

이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사 형식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의 문학 형식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형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설교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본문의 문학적인 차원이 겨우 장식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본문은 아이디어들을 묶어 놓은 보따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기관 means of communication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을 때에, 우리는 그 본문의 아이디어를 찾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본문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효과를 발견하고자 함에다가 우리의 뜻을 둔다. 그리고 그 본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하여서 그 효과를 생성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본문의 형식 form과 내용 content을 마치 두 개의 다른 분야라고 구분을 지어서 말할 수도 있다. 그러하지만, 만약, “내용”을 “의미” meaning라는 유사어로 쓸 수 있다고 하면, 형식은 내용의 급소 vital part로 보아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내용의 형식” form of the content이라고 함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⁴⁵⁾

이처럼 성경 본문의 형식은 성경해석상 중요한 요소로서, 그것과 성경을 읽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어떠한 동력(dynamics)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설교자는 반드시 본문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토마스 롱(Thomas Long)은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법(historical-critical approach)의 영구적인 공헌으로 성경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특정한 자원을 이용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에 더하여 성경 본문이 지닌 문학적인 동력(dynamics)과 성경 본문이 독자에게 주는 어떤 수사적인 효과(rhetorical effects)에 대해서도 탐구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⁴⁶⁾

성경 본문의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측면을 탐구하기 위해 그는 다음의 다섯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본문의 장르는 무엇인가? 둘째로 이 장르의 수사적 기능은 무엇인가? 세째로 이 장르는 수사적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문학적 방법

44) Thomas G. Long, Ibid., 25.

45) Ibid., 26.

46) Ibid., 44-45.

들(devices)을 사용하는가? 네째로 본문 안에 있는 문학적 배경을 고찰해 볼 때 본문은 앞의 세가지 질문으로 서술한 본문의 특성과 동력을 어떻게 구체화 하는가? 다섯째 본문을 쓴 상황 안에서 본문이 말하고 기능하던 바가 현대의 새로운 상황 안에서 행해지는 설교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며 또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⁴⁷⁾

계속해서 토마스 롱(Thomas Long)은 위의 다섯 질문을 기준으로 성경 본문의 유형 가운데 시편, 잠언,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및 서간문의 다섯 장르를 대상 삼아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접근법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의 논지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소개하면서 소망 교회 주일 설교 가운데 해당되는 성경 본문의 설교 한 편씩을 찾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1. 시편에 관한 설교

토마스 롱(Thomas Long)은, 시편이 성경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지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책이라고는 하나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꺼리는 이유를 시편의 문학 형식, 즉 음악적인 기도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시편에 관한 설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앞에서 소개했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있다.⁴⁸⁾

그는 첫째로 시편의 장르가 시(詩)이기 때문에 시의 격식에 적절히 들어맞는다는 것, 둘째로 시편의 수사적 기능은 예배의식(liturgical)에서와 경건한 기도문(devotional)에서와 목회적(pastoral)인 분야에서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세째로 시편은 리듬(rhythm)과 길이(length)와 의미(meaning)에서 균형(balance)을 이루는데 그 중에 의미의 균형이 “병행법(parallelism)”이라 불리는 시편의 문학적 방법이 되고 있다는 것, 끝으로 네번째와 다섯번째 질문을 종합하여 시편 제1편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다.⁴⁹⁾

그는 시편 제1편의 분석을 통해서, 1절은 의로운 사람이 어떤 행동에 관계하지 않는 반면에 사악한 사람이 그런 모든 행동들을 행함을 암시로 알려준다는 것, 2절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동사를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관조

47) Ibid., 46.

48) Ibid., 79-81.

49) Ibid., 81-93.

(contemplation)와 관계있는 단어를 씌으로써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반면에 사악한 사람에 관하여는 활동하는 모습을 암시해 놓았다는 것, 다음에는 나무와 겨로 대조시키고 있고 또 그것을 “영원”과 “무”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⁵⁰⁾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가 과연 위와 같은 문학적이고도 수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우선 시편 제1편을 본문으로 하는 주일 설교를 찾아 본 결과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는 없었으나 그 이전인 1987년 1월 4일에 행해진 주일 설교문을 구할 수 있었다. 설교 제목은 “복있는 사람의 자세” 였는데 서론부에서는 제목이나 주제에 의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행복이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시작하고 있다.⁵¹⁾ 그러면서 어떠한 여건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으로써 진정 복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예로 들되 복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할 땐 돈을, 돈이 있을 땐 또 옛날을, 총각 때는 결혼을, 결혼 후에는 다시 총각 때를 추구하려 하는 반면에 복된 사람은 고독하게 되어도 자유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음을, 병들면 기도할 수 있음을, …그리고 순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⁵²⁾ 이러한 형태는 토마스 롱(Thomas Long)이 위에서 지적한대로 시편 제1편의 구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대비시키듯 복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비시키고 이으며, 의로운 자는 고요하고 정적(靜的)인 모습인 반면 사악한 자는 불안하고 동적(動的)인 모습을 보인 것과 같이, 복된 사람은 어떤 여건이 자신 앞에 펼쳐지든지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또 흔들리지 않으며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는 반면 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 앞에 전개되는 그 어떤 여건에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여건을 향해 부절없이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광선회 목사의 설교 “복있는 사람의 자세”는 진정한 행복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있는 일을 찾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소망을 가지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⁵³⁾ 앞에서 토마스 롱(Thomas Long)이 밝힌 것처럼 나무는 “영원성”과 겨는

50) Ibid., 93-97.

51) 광선회, 참회의 은총 (서울: 계몽사, 1990), 217.

52) Ibid., 218-219.

53) Ibid., 221-222.

“무”와 관계됨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리하여 시편 제1편을 본문으로 한 소망 교회 주일 설교는 시편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이고도 수사적인 특성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잠언에 관한 설교

토마스 롱(Thomas Long)은, 잠언이 대부분 상식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신학적인 요지가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는 어떤 귀절들의 경우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에게 기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높은 인식과 평가를 받아야 할 성서적인 화법 형식이기에 이따금 기독교의 설교에서 가슴에 품을 만한 잠언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예의 다섯가지 해석학적 질문으로 잠언을 조명하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 보기로 하자. 그는 첫째로 잠언의 장르에 대해 이야기 형식이 아니면서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는 속담, 격언, 옛말, 금언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둘째로 잠언의 수사적인 기능은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의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윤리적 지침을 제공해 준다는 것, 세째로 잠언에서 사용된 문학적 방법은 현세적 이미지와 대유적(synecdochic) 이미지 그리고 대조, 정교, 대답의 형식에 따라 각각 두 부분으로 된 문장 및 유우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네째와 다섯째 질문을 종합하여 잠언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어 놓고 그 이야기를 다시 잠언으로 끝맺음하는 과정을 계속할 때 잠언에 관한 설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⁵⁵⁾

따라서 그는 잠언 15:17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의 귀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문장의 구조는 대조(Antithesis)로서 독자의 마음에다가 한편으로는 검소하나 사랑 넘치는 식탁과 다른 한편으로는 풍요하나 냉랭한 식탁의 장면들을 들어내 준다는 것, 그리하여 그는 신학생 때 어떤 작은 농가의 따뜻한 저녁식사에 초대되었던 일이나 반대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던 중에 남편의 다른 애인 소식을

54) Thomas Long, Ibid., 98-102.

55) Ibid., 113-121.

들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다.⁵⁶⁾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그는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잠언에 근거한 설교문은 일상 생활에서 끌어낸 이야기들, 삽화적인 토막 일화, 짧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하고,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나 줄거리가 끝날 때마다 잠언의 말씀으로 끝맺음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청중들로 하여금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의 교체를 가져 오게 할 수 있다. 과거의 교훈들은 청중들에게 미래의 삶을 변화있게 살도록 인도한다.⁵⁷⁾ 이것이야말로 잠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 교회 주일 설교에서는 잠언을 본문으로 한 설교가 12편 있었다. 물론 토마스 롱(Thomas Long)이 예를 들 때 사용한 잠언 15:7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없었으나 그 귀절을 포함하고 있는 잠언 15:11-18을 본문으로 행해진 설교를 찾을 수 있었다. 1995년 12월 3일 주일에 행해진 그 설교는 “항상 잔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로서 본문 설교의 특성이 그러하듯 실제적으로는 단 한 절의 성경 귀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었다.⁵⁸⁾ 그 귀절은 잠 15:15로서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였다. 이처럼 토마스 롱(Thomas Long)이 예로 든 성경 귀절과 비교했을 때 장은 같았으나 절은 달랐다. 그러나 그 전개 방법에서는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설교 “항상 잔치하는 사람”에서는 첫 서두부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서론부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행복은 쓰레기통에도 있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까뮈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행복론을 원희석이라는 분이 엮어놓은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제 꼬리를 뒤쫓아 마당에서 뱅글 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 어미개가 강아지한테 물었습니다. “애야, 너는 왜 그렇게 꼬리를 쫓고 있니?” 강아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요, 세상의 그 어떤 개도 풀지 못한 우주의 온갖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그래, 우리 개한테 가장 좋은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더우기 그 행복은 바로 내 꼬

56) Ibid., 115-121.

57) Ibid., 121-122.

58) 이동원, Ibid., 100. 이동원 목사는 본문 설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문 설교는 성경의 한 두 귀절을 본문(text)으로 정하고 주제와 대지가 본문에서 나오는 설교라고 정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무시하기 쉬운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꼬리를 좇아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꼬리를 잡는다면 나는 틀림없이 행복해질 테니까요.” 가만히 듣고 있던 어미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 나름대로 우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마침내 몇 가지 견해를 갖게 되었단다. 나 역시 개한테 가장 좋은 것은 ‘행복’이며 그것이 내 꼬리에 있다고 판단했었단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 꼬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뒤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이며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신의 일에 열중할 때에 가장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선한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⁵⁹⁾

이어서 설교자는 어느 시인이 회고한 75년 간의 생활 속에 정말 즐거웠던 날은 고작 28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청중들의 생애에는 즐거운 날이 며칠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진 후 진정한 행복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며 그저 뒤따라오는 것임을 설교하고 있다.⁶⁰⁾

또 불행이 인간의 욕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다음의 우화 하나를 들려주고 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너무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어느 포도원에 숨어들어갔습니다. 아주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그 향기가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려고 있는 힘을 다해 펄쩍 뛰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이 뛰어봐도 포도를 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온종일을 뛰고 또 뛰다가 결국은 포도 따는 것을 포기했지요. 고픈 배를 움켜쥐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여우는 투덜거립니다. ‘저 포도는 시다.’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이 여우한테는 탈출구가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하나는 그 포도원을 불질러버려서 다시는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는, 내 욕망의 대상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생각을 싹 없애는 것이지요. 염세주의입니다. 가지고 싶은 생각도 다 없애고, 먹고 싶은 생각도 다 없애고, 모든 욕망을 싹 비워 버려야 행복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지요. 무릇 욕망이 지나쳐도 불행이요, 욕망이 없어도 불행입니다.⁶¹⁾

59) 박선희, “항상 잔치하는 사람”, 소망의 말씀 1995년 7월~12월 (서울: 소망교회, 95. 12. 3), 1-2.

60) Ibid., 2-5.

61) Ibid., 6.

곽선희 목사는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제 본론부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본문으로 택한 성경 귀절과 직결되는 이야기를 연속해서 세 개나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아래에 인용해 본다.

어느 철학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남루한 거지가 다가와 구걸을 합니다. 사실 그도 수중에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 날은 큰맘 먹고 거지에게 5불을 적선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진 거지가 당장에 어떤 으리으리한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좋은 음식에 포도주까지 곁들여서 식사를 합니다. 철학자는 너무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 그 거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돈이면 꽤 오랫동안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거요?” 거지는 대답합니다. “나는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즐기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이지요.” 여러분, 항상 쪼들리게 내일을 걱정하고 과거를 걱정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 순간 한 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식탁을 대하십니까? 그 시간을 항상 축제의 시간으로 만드세요.⁶²⁾

그 중에 다른 하나는 설교자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때의 경험담으로서 아래와 같이 짧막하게 소개되고 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주일날 어떤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 본적이 있습니다. 별반 차린 것은 없었으나, 흰한 대낮에 촛불을 켜놓고, 고무풍선도 띄워놓고, 노래를 불러가며 그야말로 신나게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축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가장 행복한 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시간의 식탁을 가장 행복한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을 이어가는 단순한 마음—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구제불능입니다.⁶³⁾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이야기는 설교자가 목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다.

언젠가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점잖은 양반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네요.”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밖에요. 이 어찌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승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잠시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천

62) Ibid., 7.

63) Ibid., 7-8.

당이 있다고 믿는군요.” “그럼요, 믿지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에 보니까 이 분이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기쁘게 찬송을 부릅니다.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또 한번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 날이야말로 신랑 신부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는 축제날이니까요.⁶⁴⁾

이렇게 볼 때 콕션희 목사의 잠언 설교는 토마스 롱(Thomas Long)의 견해인 짧막한 이야기들 후의 잠언적 교훈이라는 법칙과 어찌면 그렇게 상통하고 있을까 놀라게 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콕션희 목사의 잠언 설교에는 철학자의 이야기, 우화, 다시 철학자의 이야기, 미국 유학 생활 이야기 그리고 목회 현장 이야기가 줄을 이어 등장하고 각각의 이야기 끝에는 어김없이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청중들로 하여금 하루 하루를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있다.⁶⁵⁾ 그리하여 과거의 교훈들을 오늘의 것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미래의 것으로 변화시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야기에 관한 설교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 역사 이야기, 기적 이야기, 사랑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천사 이야기, 귀신 이야기, 농부 이야기 등 성경에는 온통 이야기 천지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야기 그 자체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이야기가 아닌 부분도 또한 많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야기가 성경의 하부 구조(narrative understructure)를 이루고 있으며, 이야기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성경의 맥을 잇고 있는 주요하고 큰 이야기들과 매우 긴밀하고도 중요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⁶⁶⁾

이처럼 이야기가 성경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성경의 저자들이 예술가인 동시에 신학자들이며, 따라서 그들의 예술적인 자유와 그들의 신학적인 세계관이 상호 작용을 한 데에서 파생되어 나온 논리적인 결과 때문이다.⁶⁷⁾

64) Ibid., 8-9.

65) Ibid., 10-11.

66) Thomas Long, Ibid., 123-124.

67) Ibid., 124-125.

마이어 스텐버그(Meir Sternberg)에 의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세 가지의 원칙, 곧 이념적(ideological)이고 사료 편찬적(historiographic)이며 미학적(aesthetic)인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다.⁶⁸⁾ 이 원칙들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에게 한편으로는 공격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어적이라 할 수 있는 특색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경우 그 분의 전지성 때문에 상호 협동 관계가 유지되어 결국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문학의 한 종류를 출현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성경의 저자들이 제일 먼저 수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목적의 결과(성과)를 드러내는 일” 이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이야기에 관한 소견이나 감상이 아니라 이야기 그 자체였던 것이다.⁶⁹⁾

이제 토마스 롱(Thomas Long)이 이야기에 관해 정리한 해석학적 질문들과 그에 대한 대답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그는 첫째로 이야기란 발단(beginning), 전개(middle), 결말(end)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의 시리즈라는 것, 둘째로 이야기의 수사적인 기능은 독자를 등장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동일화하든지(Identification with Character) 아니면 삶의 본질에 관한 주장 곧 독자가 결정해야 하는 주장을 만들게(Response to a Claim about Life) 한다는 것, 세째로 이야기에서 사용하는 문학적 방법들에는 이야기체의 테크닉들(Narrative Techniques)과 등장 인물의 개발(Character Development)과 줄거리의 디자인들(Plot Designs) 및 다른 요소들(Other Element: 단어 선택, 장소 선정, 평행하는 이야기들, 이야기의 배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네번째와 다섯번째 질문을 종합하여 룯기 3:1-18을 예로 들며 설명하고 있다.⁷⁰⁾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소망 교회 주일 설교에는 룯기를 본문으로 한 설교가 없었다. 또 광선회 목사의 다른 설교집들에도 룯기 3:1-18을 본문으로 삼은 설교문을 찾을 수 없었다. 소망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 형태로 진행되는 까닭에 룯기 3:1-18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가 없지는 않겠으나 그 설교를 문자화해 놓은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만약 그런 자료

68) Meir Sternberg,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Reading and the Drama of Reading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41. Thomas Long, 성서의 문학 유형과 설교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박영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27-128에서 재인용.

69) Thomas Long, *Ibid.*, 128-132.

70) *Ibid.*, 133-163.

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논문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이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결국 제외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성경 본문 가운데 이야기에 속해 있는 본문을 택해 설교한 설교문 한편을 찾아 분석해 보았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이었고 설교 제목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였다. 성경의 내용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 일꾼으로 선택되는 이야기였다. 이 성경 본문은 짧은 하지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발단(beginning)과,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 당황하며 사양하는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갈등과정이 해소되는 전개(middle),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결말(end)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볼 수 있다.

이 성경 본문이 설교문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처음 부분에서 사람의 가치, 특히 청중 자신의 가치 의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를 던짐으로 설교의 발단(beginning)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용모나 그가 지니고 있는 재산과 지식의 정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랍된 값어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객관적인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무엇에 쓰임받느냐-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평가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쓸모있다면 어떠한 일에 쓸만합니까? 또한 여러분은 스스로를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만큼 필요한 존재입니까? 만일에 쓸모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왜 쓸모가 없는지, 과연 아무짝에도 필요치 않는 무용지물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⁷¹⁾

이 설교는 계속해서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모세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모세는 살인자였다는 것, 둘째로 모세는 처갓집의 신세를 지는 처지였다는 것, 세째로 모세는 40년동안 목자의 삶을 살아와 어느덧 여든 살의 노인이 되었다는 것을 밝힌 후 바로 그러한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⁷²⁾ 이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나 자신도 모세와 같이 무력한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등장 인물과의 동일화(Identification with Character) 현상을 가져 오게 하는 동시

71) 박선희, 이 산지를 내게 (서울: 계몽사, 1993), 9.

72) Ibid., 10-11.

에, 다른 한 편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응답할 수 있다.’는 삶의 주장에 관한 응답(Response to a Claim about Life)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야기의 수사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또 모세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세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는데 첫째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으로 그 의미는 지나간 과거와 단절하라는 의미라는 것, 둘째로 “믿으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강조한다는 것, 세째로 “가라”는 것으로 그 의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⁷³⁾ 이와 같은 내용은 이야기 단계에서 전개(middle)에 해당된다는 것을 독자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설교의 끝 부분에서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말(end)을 삼고 있다. 설교는 아프리카에서 고난을 이기고 사역을 잘 감당했던 리빙스턴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한 실제적 예화를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부를 장식하고 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용하여 당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뜻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에게 불리어 쓰임받는다 하고 하는 자기존재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내 과거도 나 자신도 내 형편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와 나와의 관계와 소명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내 생은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순수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바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⁷⁴⁾

지금까지 살펴 본 설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성경 본문의 구조에 따라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돌아보는 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무기력하고 쓸모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전개 과정을 거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결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모세의 입장과 하나님의 위치가 감각적이고도 변화성이 넘치는 문장과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위의 설교가 이야기체의 성경 본문을 설교화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3) Ibid., 12-18.

74) Ibid., 20-21.

4.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설교

비유는 신약 성경 뿐 아니라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야기 형태가 있는가 하면 격언 형태도 있고, 풍유가 있는가 하면 윤리적인 금언이 있으며, 전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예(example)나 본을 보이는 인물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많은 문학 형식이 적용되고 있다.⁷⁵⁾

그래서 “비유 장르(parable genre)”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깊이 고찰하면 서로 다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유를 공통적으로 붙잡아 주는 두 가지 수준, 즉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실제적(literal) 수준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상징적(symbolic) 수준을 발견해 낼 수 있다.⁷⁶⁾ 그러기에 비유는 사고하면 할수록 심오하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 본문인 것이다. 이제 비유 장르에 대한 다섯 가지 해석학적 질문과 대답을 정리해 보자.

토마스 롱(Thomas Long)은 첫째 질문인 비유의 장르에 대해 관례적인 의미로 묘사할 수 없는 폭 넓은 용어로서 잠언적인 금언(속담)들과 문학적인 인물들과 인기 있는 슬로우건(표어, 주의, 주장)들을 비롯하여 비유라는 상표를 붙이고 있는 모든 형식들을 포함한다는 것, 둘째로 비유의 수사적인 기능에는 비실제적인 것의 풍유적 상징화인 암호(code)와, 직유의 동력을 사용하는 단지(vessel) 그리고 은유의 동력을 사용하는 예술의 대상(Object of Art)이 있다는 것, 세째로 문학적 방법들로는 암호 비유에 사용되는 자세한 세부 묘사와, 단지 비유에서 사용되는 끝의 강조(end stress)와 비교와 대조 및 진실의 공식화, 그리고 예술의 대상 비유에서 사용되는 등장 인물 동일화와 상상적 세계 동일화가 있다는 것, 끝으로 네째 질문과 다섯번째 질문을 종합해서 막 12:1-11과 마 13:44-46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⁷⁷⁾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 교회 주일 설교에서는 막 12:1-11이나 마 13:44-46을 본문으로 한 설교문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광선희 목사의 다른 설교집들을 탐문하여 마 13:44를 본문으로 한 설교와 마 13:45-46을 본문으로 한 설교 두 편을 발견

75) Thomas Long, Ibid., 168-171.

76) Ibid., 171-174.

77) Ibid., 175-192.

할 수 있었다. 여기서의 그 가운데 마 13:45-46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성경 본문인 마 13:45-46을 보았을 때 해석학적 차원의 첫째 질문으로 볼 때 매우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했고, 두번째 질문인 수사적 기능은 “천국은 마치 …와 같다.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직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지(vessel)의 역할로 이해되며, 세번째 질문인 문학적 방법과 관련해서 볼 때에는 만나고-팔고-사는 구조 즉 비교와 끝의 강조 그리고 진실의 공식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값진 진주 비유”라고 제목을 붙인 설교문은 성경 본문인 마 13:45-46의 장르가 짧은 이야기식으로 된 비유인 만큼, 서론부에서는 마 13:14를 본문으로 앞서 설교했던 “감추인 보화”와의 관계 즉 쌍둥이 비유라는 것을 소개한 후, 곧바로 이야기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본래 진주를 찾아 헤매는 진주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곳을 다니며 진주를 수집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도 귀한 진주를 만나게 되자 장사는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가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찾아다니다가 얻게 된 너무도 귀한 것, 그러한 의미에서 찾았다고 하는 것은 진행된 의식의 결과라는 강한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발견한 것만 아니라 찾아 헤매다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주는 본래적이지요, 의도적인 동기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술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⁷⁸⁾

이 설교는 계속해서 보석에 관해 가치를 두고 있는 당시 생활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후 중요한 수사적 기능인 직유의 역할을 설교자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적절히 소개하고 있다.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되지만, 1963년 제가 공부하기 위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먼저 가 있던 친구 하나가 유일하게 마중을 나왔는데 그는 비행장 안에서 나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하나는 엘 에이(LA) 근방은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짙은 안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여 선글라스를 하나 주었고, 다른 한 가지는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조그만 타이프라이터를 주었습니다. 이 타이프라이터는 자기가 쓰던 것인데 지금은 안쓰는 것이니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서 열어보니 아주 많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쓰기는 쓰면서도 기왕이면 새 것을 사줄 것이지 저 쓰던 나머지 하나 주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야하고, 특별히 거리가 먼 교회의 주일

78) 박선희, 하나님의 나라 (서울: 혜선출판사, 1987. 3판), 98-99.

설교를 위해 토요일부터 출발하는 경우는 그 곳에 도착하여서도 공부
는 해야겠으니 필수적으로 이것을 챙겨 가서 밤이 늦도록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토요일 저녁을 장로님
택에서 묵으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 늦게 대학 다니는 그 택 아들이
올라왔다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이프라이터를 보더니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외국 사람으로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다닙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길래 저는
“내 친구가 쓰다가 내어버린 것 하나 준 것인데 별 것 아니다” 라고 했
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의 계속하는 말이 이 타이프라이터는 스위스제로
상당히 고급이며 그래서 보통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
니다. 그 말을 듣고 잘 보니까 메이드인 스위즐랜드(made in Switzerland)
로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닦고 청소를 하고 보니 그 때부
터는 똑같은 물건인데도 기분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들 때에
도 아예 팔의 감각부터 달라지는 기분이 아니겠습니까!⁷⁹⁾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더 귀한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라야 그것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이(like) 또 고급 타이프라이터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야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이(like),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진정한 희락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수사적 기능은 비유 가운데 직유의 형태가 쓰
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설교 “값진 진주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는 토마스 롱(Thomas
Long)이 이미 지적한 대로 비교와 강조 및 진실의 공식화가 뒤따라 나타나고 있었
다. 천국의 소유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진리에 대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없
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겠지만, 예수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어떤 귀중히 여기는 것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모두 초월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것만 소유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
다. 만일에 이 진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의 장사는 다 헛 장
사가 되고,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무효가 될 뻔 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에 주석을 달자면 이미 가지고 있던 진주까
지 다 팔아서 샀다는 것이 됩니다. 이제 다른 진주는 필요가 없습니
다. 더는 다른 종교, 다른 윤리, 철학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다 팔아
서 하나뿐인 그 진주를 기어코 사야 했으니까요. 만일에 이 진주를 사
지 못한다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다른 진주 몇 만 개를 가진다해도

79) Ibid., 101-102.

계속 불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다 팔아서라도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느낌과 확신이 섰다는 것입니다. 절대 필요, 절대 관계,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정말 그렇게 생각되고 느껴집니까? 예수만으로 족하고, 잘못 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은 허사가 된다는 가치의 근본, 그 가치의 형성이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먼저 예수를 이야기한 다음에야 다른 것을 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의 상상을 불허하는 믿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때문에 순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예수여야 하고, 찬양받으셔야 하며, 나와 예수는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결단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⁸⁰⁾

이것은 토마스 롱(Thomas Long)이 언급한 출현-반전-행동의 구조⁸¹⁾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출현),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인간 존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고 그 후에는 다함이 없는 참된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므로(반전),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행동). 이렇게 볼 때 설교 “값진 진주 비유”는 장르에 있어서, 그것의 수사적 기능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문학적 방법들에 있어서 성경의 문학 형식과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서간문에 관한 설교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 교회에서 행해진 주일 설교 가운데 서신서가 성경 본문으로 채택된 것을 보면 바울서신이 27.9%였고 일반서신이 4.1%로 나타나 그들의 합계는 전체 중에 3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신서는 그 분량에 있어서도 결코 작지 않아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0권은 서간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두 권도 서간문 형식으로 된 자료를 지니고 있다(행 15:23-29 ; 23:26-30 ; 계2-3장).⁸²⁾ 토마스 롱(Thomas Long)에 의하면, 기독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정체성(identity of the Church's Lord)이 복음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

80) Ibid., pp. 106-107.

81) Thomas Long, Ibid., 201.

82) Ibid., 204.

할 때 기독교회의 삶의 특성(Character of the Church's Life)은 서간문으로 실제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라 하겠다.⁸³⁾ 이처럼 신약 성경의 두 축 가운데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서신서에 대해, 그리고 그 서신서를 본문으로 하여 선포되어지는 설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 서신서에 대한 해석학적 질문들과 대답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해석학적 질문의 첫번째인 서신서의 장르에 대해, 토마스 롱(Thomas Long)은, 신약의 서간문들이 대체로 고대의 편지글에서 사용하던 패턴을 따르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특성 때문에 그 규칙들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특별한 형태의 장르라는 것, 두번째 질문인 수사적 기능에 대하여는 파일로프로네시스(Philophroneis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의 절친한 관계를 나타냄), 패루시아(Parousia 실제의 성립 즉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의 육신적 틈을 연결시킴), 호밀리아와 디아로고스(Omilia and Dialogos 설교와 대화에다가 대화체이면서 동시에 환영의 뜻이 있는 무드를 창조함)이라는 것, 세번째 질문인 문학적 방법에 대하여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나서 신학적 인사를 하는 첫머리(opening)와 기도의 형식을 띄고 있는 감사(Thanksgiving)와 페러니시스(실제적 윤리적 문제들)를 포함하되 교차 배열법을 사용하는 주요부(Body, including Paraenesis) 그리고 성도들의 끝없는 영적 교제라는 특성의 끝맺음(Closing)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⁸⁴⁾

그는 네째 질문과 다섯째 질문을 종합하여 고린도전서 12:31-14:1a를 본문으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 본문은 전후 문맥을 크게 볼 때 아래와 같은 교차 배열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A 영적 은사에 관한 논의(12:1-30)
- B 사랑에 관한 시적인 부분(12:31-14:1a)
- A' 영적 은사에 관한 논의(14:1b-40)

다시 본문 만을 따로 떼어서 놓아 보면 아래와 같은 교차 배열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A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명령(12:31)
- B 사랑이 우위성(13:1-3)

83) Ibid.

84) Ibid., 205-231.

C 사랑의 특성(13:4-7)

B' 사랑이 우위성(13:8-13)

A' 사랑을 추구하라는 명령(14:1a)⁸⁵⁾

끝으로 토마스 롱(Thomas Long)은 위의 본문을 설교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한 가지 방법은 본문 자체의 수사적인 전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 안의 여러 영적 은사들이라든지 목회에 관련된 경쟁적 관념 같은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하고도 환기시키듯이 묘사하면서 시작하되, 어느 비전이나 삶이 다른 것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그 모든 것들은 한 성령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함이요, 그것들은 몸의 각 지체라는 것을 알려 준 후,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그 어떠한 가치들보다 사랑이 더욱 귀중한 것임을 힘차고 대답하게 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⁶⁾ 그리하여 결국에는 온 교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이 꿈을 가지고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격려하며, 그들 각 사람이 가진 목표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좀 더 심오한 동력과 기독교 사랑의 목적으로 모양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⁸⁷⁾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당 본문으로 설교된 소망 교회 주일 설교를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 교회 주일 설교 중에는 고전 12:31-14:1a 전문을 본문으로 삼은 설교가 없었다. 그러나 위의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각각 설교화되었던 자료는 찾을 수 있었다. 하나는 1992년 1월 12일에 행해진 “어린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8-13)였고, 다른 하나는 1993년 6월 13일 행해진 “신앙의 허상과 실상”(고전 13:1-7)이었다. 이 두 편의 설교 중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후자였다. 이유는 그 설교가 보다 근래에 행해진 설교였고, 설교 제목의 표현이 한정적 단어를 사용한 방향 제시의 방법으로 되어 있었으며, 성경 본문상으로는 고린도전서 앞 부분이었으므로 문학 형식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더 잘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교 “신앙의 허상과 실상”은 198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영국의 방송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

85) Ibid., 231-234.

86) Ibid., 237-238.

87) Ibid., 239.

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 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테레사 수녀의 말이 설교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⁸⁸⁾

이어서 설교는, 인간의 두뇌에 대하여 세 층의 낮은 두뇌인 파충류적 두뇌(Reptile Brain)와 포유류적 두뇌(Mammalian Brain) 그리고 영장류적 두뇌(Primate Brain)에 관하여 설명한 후 더 높은 차원의 두뇌인 사랑의 두뇌(Love Brain)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절대 행복 조건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시키고 있다.⁸⁹⁾

또 문화 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의 이론을 빌려서 증오의 문화(Hate Culture)를 소개하고 그 예로 공산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한(恨)의 문화를 들고 난 후, 사랑의 문화 곧 기독교적 문화로 밝은 미래를 열어 가도록 설교하고 있다.⁹⁰⁾

그리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사랑 없는 풍요, 사랑없는 지식, 사랑없는 믿음, 사랑 없는 회생, 사랑 없는 이적 등이 다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랑은 참 믿음과 진정한 평안과 자기 통제와 겸손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힘주어 설교하고 있다.⁹¹⁾

곽선희 목사는 설교의 결론부에 이르러, 폐결핵 3기 판명을 받은 후 아내와 자식들이 떠나 버린 어느 시골 환자의 집에 날마다 묵묵히 사랑을 배품으로써 마침내는 그 환자를 구원시킨 한 여전도사의 실화를 소개하고는 다음과 같은 결어로 설교를 끝맺음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힘을 줍니다. 사랑이 생명력을 줍니다. 사랑은 창조력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단 한 번도 깨달아본 일 없고 느껴본 일 없고 해본 일 없이 평생을 살기에 피곤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허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상은 결코 교

88) 곽선희, 복 받은 사람의 여정 (서울: 계몽사, 1995), 168.

89) Ibid., 169-170.

90) Ibid., 171-173.

91) Ibid., 173-178.

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뻐합니다. 사랑은 남의 고통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와 저가 같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희생 속에서 자유합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을 베풀면서 비로소 삶의 높은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몸소 베풀 때에 내 삶의 의미를 창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⁹²⁾

이상과 같이 살펴 본 광선희 목사의 설교는 앞에서 소개했던 토마스 롱(Thomas Long)의 주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은 설교의 첫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토마스 롱(Thomas Long)이 “교회의 여러 은사들이나 목회의 관념들을 다루면서 설교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 반면에, 광선희 목사는 곧 바로 설교의 주제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유는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토마스 롱(Thomas Long)은 고전 12:31로부터 시작하는 본문을 제시했는데, 그럴 경우 문맥상 고린도전서 12장의 여러 은사들을 설교의 서론부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선희 목사는 성경 본문을 고전 13:1로 부터 시작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문제는 접어두고 곧 바로 ‘사랑’의 문제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까닭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는, 첫째로 제한된 주일 설교 시간을 고려하여 여러 은사 문제들은 일부러 제외시켰다고 할 수도 있겠고, 둘째로 그가 선호하는 본문 설교의 특성상 복수 주제보다는 단일 주제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본문을 고전 12:31로 확대할 경우 주제가 분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광선희 목사는 토마스 롱(Thomas Long)이 생각하는 서론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본문 설교의 형태가 지니는 문맥 경시라는 단점을 감수하는 한편, 단일 주제인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서론을 시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의 주제를 명료화시키는 장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기도 하다.

서론 부분과는 달리 본론 부분과 결론 부분은 토마스 롱(Thomas Long)의 설교 전개 이론과 광선희 목사의 설교 진행 과정이 매우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본론 부분에서는 물질이나 지식, 믿음이나 희생, 이적적인 삶 등 그 어떠한 것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님을 강하고 호소력 있는 어조로 전달함으로써 그 어떤 가치들보다도 사랑이 절대적으로 고귀한 것임을 청중들에게 인상 깊게 심어 주고 있

92) Ibid., 178-180.

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생명력과 창조력에 대한 확신을 줌으로써 온 교인들로 하여금 심오한 감동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고전 13:1-7을 본문으로 한 소망 교회 주일 설교는 설교의 첫 부분만 제외하고는 중간 부분과 끝 부분 모두 토마스 롱(Thomas Long)의 주장인 성서 문학 유형에 따른 설교이론과 차이가 나지 않는 설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편에 관한 설교, 잠언에 관한 설교, 이야기에 관한 설교, 예수의 비유에 관한 설교 및 서간문에 관한 설교에 대하여 문학적이고도 수사적인 분석을 끝내게 되었다. 애당초 이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하나의 우려—그것은 토마스 롱(Thomas Long)의 이론과 소망 교회 주일 설교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가 없지 않았으나, 설교 분석을 마친 지금에는 그 우려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토마스 롱(Thomas Long)의 이론과 콕선회 목사의 설교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정확한 일치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와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자 사이에 어떠한 학문적 교감이나 정보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데도⁹³⁾ 그와 같은 일치점을 나타내 보인 것은 사실 기대하지 못한 결과였는 바, 따라서 그 이유는 그 설교학자와 설교자 모두가 각각 독립적으로 깨우치고 정립한 이론과 실제의 설교학적 일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그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다.

93)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가 1997년 10월 20일 월요일에 수원에 소재한 소망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있는 설교학에 관한 세미나 때에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콕선회 목사의 강의가 끝난 후 질의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 4 장 소망 교회 청중 분석

제1절 이론적 근거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녀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다.¹⁾ 여기에는 두 개의 중요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성경 본문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남녀 모든 사람 즉, 청중이 그것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화되어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 본 논문은 제3장에서 그 구조적·형태적·수사적 특성들을 고찰한 바 있다. 이제는 그 다른 하나인 청중에 대해 탐구할 차례가 되었다. 문제는 청중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 설교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Lloyd-Jones)가 그의 저서 목사와 설교 (Preaching & Preacher) 제7장에서 회중에 관해 언급하는 내용을 살펴 보자. 그는 여기와 지금(here and now), 즉 오늘의 상황, 오늘의 인간에 강조점을 두는 볼트만(Bultmann)식의 해석과 설교에 치우칠 때 그것은 성경의 본질적인 것을 잃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소위 현대적인 접근 방식인 특수 상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동시에 공통적인 문제들을 중시하는 신학적 입장에서 회중을 대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²⁾

분명히 로이드 존스(Lloyd-Jones)의 주장에는 오늘의 설교자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교훈이 담겨 있다. 사실 청중 이해에 대한 지나친 강박 관념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풍부한 연구의 성과를 가져다 주는 대신, 거기에 너무 의지하거나 안주하게 하는 단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에 대한 심리학

1) Reuel L. Howe, 설교의 파트너 (Partners in Preaching), 정장복 역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1982), 50.

2) D. M. Lloyd-Jones, 목사와 설교 (Preaching & Preacher),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5), 159-185.

적 접근이나 사회학적 접근 또는 철학적이거나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 등에 심취하는 동안 거기서 발견된 원리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리들을 어느 정도 침해하고 있는 것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위험에 떨어지기 쉽다.

청중이 어느 국적의 사람이든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든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든지, 얼마나 윤리적이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리하여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은 단 하나 뿐이며, 그들이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어느 시대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설교자는 모든 세상과 모든 인간을 위해 오직 하나의 복음만을 전할 뿐이다.

여기에는 상황의 특수성은 존재할 수 없고 상황의 일반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설교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상황에는 일반성과 특수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이 절망에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이외에는 딴 방법이 없다. 물론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는 불변하는 사실로서 인간 상황의 일반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온 세상 사람 누구든지 이러한 일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로이드 존스(Lloyd-Jones)의 주장은 백번 옳은 주장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상황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다가 로이드 존스(Lloyd-Jones)가 우려하는 복음의 부정에까지 이르러서는 결코 안 된다.³⁾

그렇다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크리스찬 베커(J. C. Beker)는 그의 저서 「사도 바울」(Paul the Apostle)에서 복음의 일관성과 상황의 적합성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역사적 상황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적용될 때, 복음의 “본문”(즉, 복음의 일관된 중심)과 바울 해석학의 “맥락” 사이의 상호 작용은 무엇인가? 바울의 해석학은 초대 교회에 있던 다양한 복음 전승들로부터 특정한 핵심을 추출해 낼 뿐 아니라, 그 핵심을 역사적 상황과 맥락의 특수성에 “구체화 한다”(incarnate). 따라서 복음의 특수성이 지닌 보편적 의미는 여러 환경에 의해 요청되는 다양한 해석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⁴⁾

3) Ibid., 186.

4) J. Christian Beker, 사도 바울 (Paul the Apostle), 장상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453.

크리스찬 베커(J. C. Beker)의 주장은, 바울 사도 당시의 교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관된 중심을 잃지 않고 사역했으며 오히려 그것을 역사적 상황 속에 구체화시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주장은 바울의 시대라고 하는 다양한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그 특수한 상황에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고도 복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상황의 일반성을 강조하는 사람만이 옳다거나 상황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일반성만을 강조하려다가 세계와 인간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을 도외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반대로 부분적이고 특수적인 상황에 침몰되어 복음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과오를 범해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청중에 관한 연구에 들어가기 전 두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하게 되었다. 하나는 상황의 일반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의 일관성이 상황의 특수성에 상반되지 않으며 초월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취급하고자 하는 영역은 상황의 특수성에 관한 것이다. 상황의 특수성은 성경 시대에도 존재했고 또 오늘의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설교와 관련지어서 성경 시대의 특수성에 대한 견해를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제이 아담스(Jay E. Adams)의 주장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설교 연구」(Studies in Preaching)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청중 분석의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바울의 몇 개의 적응 원칙들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곧 청중에 대한 주의깊은 분석이 현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바울은 그의 청중들을 알았다. 안디옥에서나 공회 앞에서 그는 당파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벨릭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좋을 만큼 그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그립바의 사람됨을 재어 본 후 그에게 최대의 관심을 두었다. 그는 아텐 사람들이 노리는 목표에 그 사람 자신들을 대치해 놓고 그들의 관심을 모았다. 오늘날의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자주 가상적(假想敵)을 만들어 헛된 싸움을 싸우기 좋아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적응 형태를 사용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정면으로 그들에게 설교한다. 바울의

설교는 우리에게 청중을 보다 더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크게 외치고 있다.⁵⁾

마찬가지로 청중 분석은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꼭같이 요청되고 있다. 루엘 하우(Reuel L. Howe)는 이와 관련하여, 회중이란 유한하고 죄많은 인간들이긴 하나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창조성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면서, 그들은 각기 자기의 세계와 활동 무대 곧 각자의 가정과 사업체 그리고 직장으로부터 설교가 행해지는 곳으로 나아오는데 그 때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질문이나 가설이나 긍정이나 의심 또는 두려움 등등 자기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들이 설교의 환경으로는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⁶⁾

과연 그렇다. 다원화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회중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여러가지 삶의 방식 만큼이나 다양한 욕구와 배경을 가진 채 교회로 찾아 온다. 분명히 서로 다른 입장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설교자는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 것일까? 설교는 객관성과 주관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아무도 인간적인 주관을 덧붙여서는 안된다는 절대 객관성을 지닌다.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다. 동시에 그 대상인 청중을 생각한다면 설교란 특별한 주관적 상황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확신해야 하며, 또한 청중들에 대해서도 그 정황을 옳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두 측면을 온전히 조화롭게 할 때에만 그 설교는 바르게 준비되고 효과있게 선포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분석 대상과 방법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소망 교회 청중에 관한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 소망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소망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한 사람들이야말로 소망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설교에 가장 확실히 응답을

5) Jay E. Adams, 설교 연구 (Studies in Preaching), 정양숙·정삼지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59.

6) Reuel L. Howe, Ibid., 53.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동안 소망 교회 주보에 실린 새 등록 교인수는 15,061명으로 집계되었다. 또 연 평균치로는 2,151명으로 나타나 그 기간 동안 새신자수는 매해 평균 2,151씩 증가한 것이 된다. 연도별 월별 등록 교인 조사표는 아래와 같다.

(표 4-1)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월별 새 등록 교인수

년도 월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1월	197	246	251	232	182	256	217	1,581
2월	172	193	249	154	223	198	207	1,396
3월	176	252	310	226	200	206	278	1,648
4월	219	172	294	194	163	270	198	1,510
5월	123	155	225	181	156	150	185	1,175
6월	148	188	126	139	124	158	192	1,075
7월	167	97	173	112	129	144	125	947
8월	105	83	140	115	73	102	113	731
9월	185	179	181	144	150	102	203	1,144
10월	177	171	148	155	266	210	117	1,244
11월	207	178	228	167	185	182	224	1,371
12월	198	196	130	128	171	204	212	1,239
합 계	2,074	2,110	2,455	1,947	2,022	2,182	2,271	15,061

청중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 방법이 흔히 사용되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 방법은 연구 대상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면에 회수율의 저조에 따른 신뢰도의 문제와 특히 익명적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정보 등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 현상 때문에 고의적으로 무책임하게 설문에 응하는 등의 단점이 있는 것에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청중 분석에서는 각 개인이 소망 교회에 등록할 때에 제출하는 “개인 등록 카드”를 자료로 삼았다. 대부분의 새 신자들은 카드 양식에 따라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개인 등록 카드”는 연구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사용된 “개인 등록 카드”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양식 4-1 앞면)

성명 : 한글

(남·여)

개인등록카드

한자

등록일

교구 구역

현주소

전화

사 진

본 적

생년월일(음·양)

신 급	유아세례 학습 세례	세례받은 날 세례받은 교회	년 월 일 교회 목사
직 분	()교회	직분명()	임직일()
학 력		직 업 근무처	전화번호
본 교회 출석가족			
비 고			

소 망 교 회

(양식 4-2 뒷면)

가 족 관 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신 급 (유세·학습·세례)	직 분	출석교회	학 력	직업및근무처
비고							

소 망 교 회

제3절 신앙적 특성 분석

새 교인을 위한 “개인 등록 카드” 양식에서 등록 교인의 신앙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는 항목은 신급과 직분을 기재토록 한 항목이었다. 신급 항목에는 유아세례자인지, 학습받은 자인지, 세례 교인인지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일자와 세례받은 교회에 대해 문자로 적어 넣게 되어 있었다. 직분 항목 역시 어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임직일은 언제인지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해당 교회에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2)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신급 조사표

년도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초신자	1,075	999	1,060	907	916	1,136	1,115	7,208
수세자	705	763	1,052	870	894	1,002	954	6,240
집 사	170	181	201	172	155	205	187	1,271
권 사	12	13	22	9	11	23	9	99
장 로	9	4	5	2	1	6	2	29
기 타	1							1
합 계	1,972	1,960	2,340	1,960	1,977	2,372	2,267	14,848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첫째로 총 등록 교인수인 15,061 가운데 신급이나 직분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사람수가 213명인 반면 기재한 사람수는 14,848명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신급이나 직분을 기재한 사람 중에서는 초신자가 7,208명(48.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수세자가 6,240명(42%)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로 초신자와 수세자의 등록 비율을 합하면 90.5%로 소망 교회 새 등록 교인들이 대부분 기독교 신앙에 귀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임을 알려준다. 넷째로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교회 분쟁 사건 등으로 인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소위 종교적 피난민의 숫자가 극소수인 것으로 추정되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소망 교회 교인들의 신앙관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1997년 5월 20일에 설문지를 통해서 몇 가지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총 조사자 276명 가운데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231명으로 회수율은 83.7% 였으며 관련된 설문과 통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설문 3. 소망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1명, 가족,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입니다.
- ② 0명,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입니다.
- ③ 1명,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입니다.
- ④ 202명, 신앙 생활에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 ⑤ 20명, 기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 ⑥ 7명, 무응답

설문 4. 소망 교회의 주일 낮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는?

- ① 200명, 100~91% 정도입니다.
- ② 19명, 90~81% 정도입니다.
- ③ 6명, 80~71% 정도입니다.
- ④ 2명, 70~51% 정도입니다.
- ⑤ 4명, 50% 이하 입니다.

설문 5. 소망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 ① 2명, 교인들의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 ② 0명, 대표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 ③ 0명, 교인들의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④ 225명, 꼭선희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 ⑤ 4명, 무응답

설문 6. 광선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 ① 0명,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② 13명,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③ 214명, 너무 은혜로워서 소망 교회로 출석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 ④ 4명, 무응답

설문 7. 광선희 목사님의 설교가 뛰어나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1, 2, 3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① 8명, 구사되는 문장과 어휘가 호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 ② 0명, 억양, 손짓, 표정 등 웅변적 테크닉 때문입니다.
- ③ 1명, 타고난 언변의 유창함 때문입니다.
- ④ 29명, 광범한 지식을 소유한 이지적 설교 때문입니다.
- ⑤ 125명, 시대적 상황과 교인들의 일상 삶에 매우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 ⑥ 67명, 구체적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감화력 때문입니다.
- ⑦ 1명, 무응답

(* 설문 7의 경우 응답자 숫자는,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표시한 1, 2, 3 가운데 1만 집계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설문3에서 소망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조사자 231명 중 사교적 목적이나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위해 소망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1명(0.4%)에 불과하다는 것, 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단 1명도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 반면에 신앙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출석한다는 사람수는 202명(87.4%)에 이르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것은 소망 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가정적이거나 사회적 차원 또는 기복적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순수하게 신앙적인 삶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둘째로 설문 4에서 소망교회 교인들의 주일 성수 정도를 알아 본 결과 응답자 중 200명(86.6%)에 이르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문화적 수준이 높아서 여가를 즐기려는 레저문화가 확산되

어 있는 강남 지역에 소망 교회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셋째로 설문5에서 소망 교회 교인들은 예배의 중심되는 요소로 단연 설교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대표자의 기도나 교인들의 헌금을 예배에서 중심되는 부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찬송은 2명(0.9%)에 불과했지만, 확선희 목사의 설교가 예배의 중심 부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225명(97.4%)에 이르러 높은 비율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소망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확선희 목사의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넷째로 설문의 응답을 통해 소망 교회 교인들은 확선희 목사의 설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의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즉 확선희 목사의 설교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3명(5.6%)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너무 은혜로워서 소망 교회로 출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214명(92.6%)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소망 교회 교인들이 확선희 목사의 설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설교 말씀으로 인해 신앙 생활을 영위하여 간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번째로 설문 7에서는 교인들이 확선희 목사의 설교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그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확선희 목사의 설교가 뛰어나지 않다고 간주할 수 있는 사람수는 응답하지 않은 1명(0.4%)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것은 웅변적 테크닉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고, 언변의 유창함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0.4%), 문장과 어휘의 호소력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3.5%), 지적인 설교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9명(12.6%), 영적 감화력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7명(29%)인 반면에, 시대적 상황과 교인들의 일상 삶에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25명(54.1%)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영적 감화력 보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적중성에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망 교회 교인들의 신앙 스타일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설교 취향은 삶과 괴리된 영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말씀 선포보다는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생활 중심적인 말씀 선포에 더욱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4절 경제 및 문화적 특성 분석

염필형 교수는 그의 저서 「현대 신학과 설교 형성」 제5장 설교와 청중 부분에서 청중 이해에 관한 개괄적 배경과 여러 측면들을 소개한 후 청중 이해를 위해서 조사할 내용들에 대해 두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외형적 조사 분야로서 첫째, 청중 모임의 종류; 둘째, 청중의 규모; 셋째, 청중이 모이는 위치(Location 지역)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조사 분야로서 첫째, 성(sex); 둘째, 연령(age); 셋째, 사회적 위치(social status); 넷째, 문화적 배경(cultural background); 다섯째, 교육배경과 지적 수준에 관한 것이다.⁷⁾

이와 같은 조사 기준에 따라 소망 교회 청중을 분석한다는 것은 청중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외형적 조사 분야는 본 논문에서 그리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밝혀야 하겠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청중의 모임은 주일 예배로 한정되어 있고, 그 규모는 3만 여명이 드리는 주일 예배자 가운데 매 주일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중이 모이는 지역은, 행정구역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이지만 실제 생활하는 측면에서는 세칭 압구정동이라고 불리우는 곳으로서, 아파트를 중심한 주거 지역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내적인 조사 분야로 들어가서 문화적 배경(cultural background)을 다룰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내적인 조사 분야들에 대해 한 분야씩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성(sex)

소망 교회에 새로이 등록하는 교인들이 작성하는 개인 등록 카드에는 성명과 함께 성별을 가장 먼저 기재하게 되어 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 소망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별을 연도별로 조사해 보았다.

7) 염필형, Ibid., 219-222.

(표 4-3)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성별 조사표

성별 \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남	833	810	982	911	842	1,041	963	6,382
여	1,140	1,149	1,357	1,128	1,135	1,317	1,305	8,531
합 계	1,973	1,959	2,339	2,039	1,977	2,358	2,268	14,913

위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로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새 등록 교인 총 15,061명 모두가 성별 항목에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 중 14,913명만 성별을 표시하였고 148명이 표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둘째로 해마다 여자 등록자 수가 더 많았으며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은 4.3 대 5.7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 한국교회의 남녀 비율이 3.5 : 6.5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남자 교인의 구성비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염필형 교수는 혼합된 청중일 경우 어느 성별의 사람 수가 더 우세한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주제 선정이나 설득의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보통 여자는 남자보다 설득하기가 쉽다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⁸⁾

만약에 그렇다면 소망 교회의 경우 남자 교인의 비율이 타 교회들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득의 강도나 차원이 한층 더 높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연령(age)

청중 분석에 있어서 연령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령층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 기준이나 삶의 스타일 등이 현저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중심을 이루는 연령층의 특성에 따라 설교의 주제나 접근 방법에 적절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소망 교회의 새 등록 교인의 연령층 조사는 예상 기대치를 상당히 벗어나는 결과로 나타났다. 새 등록 교인들이 개인 등록 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을 근거로 하여 연령별로 분류한 통계표는 아래와 같다.

8) Ibid., 221.

(표 4-4)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연령별 조사표

연령 \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19세 이하	110	156	190	171	12	128	117	1,014
20~29세	593	730	988	847	875	1,111	1,072	6,216
30~39세	451	408	428	399	370	374	445	2,875
40~49세	439	346	343	304	245	339	265	2,281
50~59세	195	168	195	182	217	239	211	1,407
60~69세	66	62	77	54	78	50	76	463
70세 이상	36	27	37	20	38	31	34	223
합 계	1,890	1,897	2,258	1,977	1,965	2,272	2,220	14,479

위의 조사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간 중 새 등록 교인수는 15,061명이었고 조사자 총수는 14,479명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년 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사람의 수는 582명으로 집계되었다. 둘째로 조사 기간인 7년 동안 새 등록 교인수의 순위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9세가 1위, 30~39세가 2위, 40~49세가 3위, 50~59세가 4위, 19세 이하가 5위, 60~69세가 6위, 70세 이상이 7위로써 7년 내내 변동이 없었다. 셋째로 연령별 비중은 20~29세가 42.9%, 30~39세가 19.9%, 40~49세가 15.8%로 나타나 이 세 연령층의 비율을 합하면 78.6%에 다다랐다. 넷째로 20~29세 연령층의 비율이 42.9%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로써, 일반적으로 20대 교인수가 감소한다는 기존 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교회의 장래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 오늘, 무엇보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격감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교회들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있고 명성있는 교회들도 40~60대 교인수가 주축을 이루고, 교회 프로그램도 그들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⁹⁾ 역시도 그렇지 않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9) 학원복음화협의회 편, 청년·대학부가 살아야 된다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6), 5.

3. 사회적 위치(social status)

청중들의 경제적 상태를 주로 분석하게 되는 이 항목에 대하여는 간접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망 교회에서 새 등록 교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 등록 카드 양식에는 등록하는 사람이나 가정의 소득 수준을 직접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부득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새 등록 교인들의 경제적 수준을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로는 개인 등록 카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직업 항목이 가장 적절한 것이었다. 직업은 각 개인이 사회 속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그 소득 정도까지도 충분히 암시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새 등록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탐색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볼 문화적 배경(cultural background)에서 관련지어 다루게 될 것이다.

새 등록 교인들이 개인 등록 카드에 밝힌 자신들의 직업은 매우 다양하였다. 개인 등록 카드의 지면적인 제한점으로 인해 정형화된 직업 예시를 해 놓을 수 없었으므로, 새 등록 교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직업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때로는 같은 직업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직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각 직업의 특성상 따로 분류한 때도 있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새 등록 교인의 64%가 자신들의 직업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익명 욕구의 작용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자신들의 직업을 밝힌 5,457명에 대한 분석만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성별 통계나 연령별 통계를 고찰했던 바를 근거해 볼 때, 36% 정도의 분석 대상이라면 그 나머지 전체에 대한 추이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판단 아래 통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도별 직업별 조사 결과에 대해 그 전체 모습을 여기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전체에 관계된 것은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따라서 아래에는 높은 비율을 보인 직업 분야와 비율만을 순위별로 열거해 보았다.

(표 4-5)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주요 직업별 조사표

<div> <div>직업</div> <div>년도</div> </div>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회 사 원	248	255	277	248	275	313	372	1,988
자 유 업	90	73	88	99	64	83	66	563
사 업	74	75	81	65	80	90	71	536
교 육	75	79	94	91	35	40	30	444
금 융	39	43	44	40	42	60	50	318
의 사	40	45	44	43	43	33	38	286
공 무 원	34	45	45	50	39	30	35	278
교 수	36	35	25	30	27	22	37	212
건 설	30	20	17	25	27	31	28	178
학 원	0	6	0	0	40	60	62	168
연 구 원	14	17	21	13	23	35	32	155
언 론	14	15	11	8	13	14	10	85
∴	∴	∴	∴	∴	∴	∴	∴	∴

이 외에도 계속되는 순위를 보면 주부(49), 약사(48), 간호사(26), 음악인(18), 강사(16), 미술인(10) 등으로 이어지며 변호사, 학교직원, 회계사, 연예인과 같은 직업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좀더 자세히 언급한다면, 회사원의 경우 대부분 한국 경제의 중심부에 있는 대기업 계열사의 관리직 또는 사무직에 해당되고 있으며, 자유업의 경우 고도의 특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자유 계약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또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소유주나 경영진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직업 분포의 전체적인 특성은 서비스 판매직이나 기능노무직 같은 블루 칼라가 아니라 전문 관리직이나 사무직 같은 화이트 칼라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의 소득 수준은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안정되어 있다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4. 문화적 배경(cultural background)

어떤 문화권에서 살고 또 어떤 특별한 영향하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 뿐 아니라, 그룹의 판단과 추진 형태 및 행동 양태를 차이나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염필형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¹⁰⁾

소망 교회의 새 등록 교인의 경우 개인 등록 카드에 자신들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에 나타나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거주 지역의 분포 정도를 알 수 있었고 또 교인들의 거주 형태에 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살펴볼 새 등록 교인의 거주 지역별 분포 정도를 조사한 통계표는 아래와 같이 집계되었다.

(표 4-6)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거주 지역별 조사표

년도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구	남	구	783	788	952	785	792	854	841	5,795
강	동	구	55	44	28	29	21	21	60	258
강	북	구							13	13
강	서	구	10	10	19	14	8	14	22	97
광	진	구						39	75	114
금	천	구						1	1	2
노	원	구	20	28	32	35	24	30	36	205
도	봉	구	25	36	34	23	25	40	13	196
동	대	문	29	40	50	18	22	22	26	207
동	작	구	47	53	53	52	45	61	105	416
마	포	구	36	17	31	15	26	32	27	184
서	대	문	21	31	33	25	32	43	29	214
서	초	구	283	302	340	312	267	310	323	2,137
성	동	구	123	98	140	110	103	71	33	678
성	북	구	33	21	33	22	34	28	36	207
송	파	구	238	245	245	243	193	204	188	1,556
양	천	구	15	24	24	13	14	12	16	118
영	등	포	16	19	25	21	23	25	31	160
용	산	구	35	19	35	39	29	39	34	230
은	평	구	15	35	32	24	21	28	22	177
종	로	구	17	25	19	32	28	29	22	172
중		구	22	16	19	40	14	14	15	140
중	랑	구	12	9	7	14	26	15	16	99
근		교	73	74	98	140	183	290	306	1,164
합		계	1,908	1,934	2,249	2,006	1,930	2,222	2,290	14,539

10) 염필형, Ibid., 222.

이상의 통계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교회에 등록한 새 등록 교인 총수 15,061명 가운데 14,539명이 주소를 기재하였고 522명이 자신들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둘째로 새 등록 교인들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3,375명이었고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164명이었다. 비율로는 92%의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교 지역은 8%에 머물렀다. 셋째로 새 등록 교인들은 서울특별시 안에서도 주로 강남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행정구역별로 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나열해 보면, 강남구가 5,795명(39.9%)였고 서초구가 2,137명(14.7%) 였으며 송파구가 1,556명(10.7%)으로 나타나 이 세 곳의 비율을 합하면 65.3%의 높은 밀집도를 나타내 보였다. 이와 관련된 의미 분석은 곧 이어 제시되는 주거 형태별 통계 결과를 본 후 함께 취급 하도록 하겠다.

(표 4-7)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주거 형태별 조사표

거주형태 \ 년도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아 파 트	1,190	1,154	1,434	1,231	1,214	1,476	1,367	9,066
빌 라	99	121	117	111	117	249	187	1,001
연 립	28	14	14	15	13	4	13	101
기 타	655	664	766	685	655	758	705	4,888
합 계	1,972	1,953	2,331	2,042	1,999	2,487	2,272	15,056

위의 통계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망 교회에 등록한 새 등록 교인들의 주거 형태는 단연 아파트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교인들의 숫자는 9,066명이었고 비율로는 60.2%를 나타내었다. 둘째로 빌라 1,001명 6.6%이나 연립 101명(0.7%) 보다는 단독 주택 거주자가 4,888명(32.5%)으로 두번째 높은 주거 형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두 통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망 교회 교인들의 문화적 배경(cultural background)으로는 두 가지 개념이 대두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서울 강남지역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아파트 지대라는 것이다. 즉, 소망 교회 교인들

의 문화적 특성을 알려면 이 두가지 개념에 대해 조사해 봄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36회 서울통계연보에 의하면 소망 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가 서울특별시의 여타 행정구들보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221,488백만원, 일반회계 세출 결산 150,472백만원으로 재정 규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¹¹⁾ 또 지방세 부담도 강남구가 590,080백만원으로 역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¹²⁾ 주택의 종류(Dwelling)과 관련해 볼 때 서울특별시의 다른 구들보다도 주거 형태에 있어서 강남구는 아파트가 96,141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의 점유 형태(Housing Units by Type of Occupancy)의 경우 개인 소유를 나타내는 자가(Owned) 호수가 67,251호로 송파구와 함께 선두 그룹에 속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¹³⁾ 주차장 역시 건축물 부설(Creation of structures) 주차장의 면적이 3,678,527m²으로 집계되어 차량 운용의 측면에서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구임을 알 수 있다.¹⁴⁾ 이외에도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수에 있어서 강남구는 301개소로 최다 보유수를 나타내고 있으며,¹⁵⁾ 각종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3,999개의 병상수(No. of bed)를 보유하고 있어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⁶⁾

이렇게 볼 때 강남구는 재정을 비롯하여 금융, 사회 복지, 문화 시설 등에서 서울 시내의 다른 구들보다 월등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해 주며 또한 주거 형태 역시 강남구 전체 주택 합계인 126,775호 중 96,141호가 아파트로서 75.8%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특유의 서구화된 삶의 스타일 즉, 고소득의 수입, 개인이나 가정 중심의 생활 모습,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레저 문화 등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선도해 가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1) 서울특별시장, 제36회 서울통계연보 (서울: 동강 품 인쇄 주식회사, 1996), 408-415.

12) Ibid., 398.

13) Ibid., 216-217.

14) Ibid., 261.

15) Ibid., 194.

16) Ibid., 278.

5. 교육배경과 지적 수준

말하는 사람이 선택한 언어나 표현, 주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청중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가를 미리 가늠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통화나 대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적 수준을 교육 수준으로 대치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었필형 교수는 언급하고 있다.¹⁷⁾

마침 소망 교회에서 사용하는 새 교인을 위한 개인 등록 카드에는 등록하는 사람의 학력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 등록한 사람 15,061명 가운데 2,794명이 무슨 이유에선지 학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머지 12,267명은 자신들의 학력을 밝혀 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어 보았다.

(표 4-8)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 등록 교인의 학력별 조사표

학력 \ 년도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중 졸 이 하	38	21	32	20	23	25	24	183
고 졸	209	206	217	179	161	173	146	1,291
대 졸	998	1,130	1,408	1,224	1,225	1,663	1,375	9,023
대학원졸이상	201	213	258	242	222	289	345	1,770
합 계	1,446	1,570	1,915	1,665	1,631	2,150	1,890	12,267

이상의 표에서 파악되어지는 사실은 중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83명으로 1.5%, 고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291명으로 10.5%, 대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9,023명으로 73.6% 그리고 대학원졸 이상에 속하는 사람들이 1,770명으로 14.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에 속하는 사람을 합했을 때 10,793명으로 비율로는 88%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1995년도에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대상 인구의 48.9%, 대졸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자가 14%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전국 통계의 결과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¹⁸⁾ 이는 소망 교회 교인들의 높은 학력과 교육 수준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그들을 청중으로 삼고 행해지는 설교

17) 었필형, Ibid., 222.

18) 통계청장, 생활 속의 통계 (서울: 대한민국 통계청, 1996), 200.

역시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동시에 합리적으로 납득되어질 수 있는 설교라야 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정리해 보건대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에 응답한 새 등록 교인들의 특성은, 첫째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초신자 내지는 세례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그들은 철저히 주일 예배를 중요시하여 콕션회 목사의 지성적이고도 생활 중심적인 설교를 지침으로 삼아 신앙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조사 결과 드러난 소망 교회 교인들의 특성 중 다른 한 측면, 즉 경제·문화적인 특성은 서울 강남 지역의 20대와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은 고학력, 고소득 및 최상의 직업 여건과 최고 수준의 문화 환경 속에서 소망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청중에 관하여 여러 측면에서 연구하고 또 해석해 보려는 노력과 시간을 갖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후레드 크래독(Fred Craddock)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은 결코 본문을 조심스럽게 주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반대로 본문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교와 청중에 대한 이해를 따로 떼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¹⁹⁾ 설교자들에게는 설교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준비될 수 있다. 현대 지성인들의 구미에 맞도록 요리되어진 설교집이나 최신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신학 서적들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는 주석들, 그 이외에도 훌륭한 에세이 종류나 각종 잡지 등 그 수와 종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중의 어느 것도 특정 집단의 청중들을 사로잡아 그 가슴에 와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일은 오직 그 장소에 있는 목회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²⁰⁾ 왜냐하면 개체 교회의 설교자만이 그 토양과 기후에 맞는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중 분석의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 제3장에서 행해진 설교 분석과 제4장에서 행해진 청중 분석의 관계성에 대해 생각을 계속해 보기로 하자.

19) Fred Craddock, Ibid., 118.

20) Ibid.

제 5 장 설교 분석과 청중 분석의 관계성

제1절 특수한 청중에 꼭 맞는 설교

설교에 있어서 성경 본문에만 치중하고 청중의 상황을 무시해 버릴 때 그 설교는 청중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게 되어 청중과 관계없는 독백이 되고 마는 것처럼, 반대의 경우 즉, 청중의 상황에만 빠져 들어가서 그들만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하다가 기독교의 정통성을 상실해 버릴 위험성도 있다는 것에 대해 앞 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 또한 청중들에게도 최적인 설교를 선포할 수 있을가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불행한 것은 그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것이며 그럴때 설교는 공허해지거나 왜곡되어져서 목회 자체가 곤경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루엘 하우(Reuel Howe)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행해지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만든다는 것과 따라서 그런 설교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의미와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 그리하여 말씀의 내용은 전달되었으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¹⁾

어느 젊은 설교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때때로 설교단에서 있을 때 나는 정말 혼자라는 느낌을 가진다. 때로는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고 느끼며, 또 내 말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그들은 체면상 내가 말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²⁾

설교자로서 이와같은 느낌의 나락 속에 떨어져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이지 너무나 큰 비극이다. 그러한 설교자는 자신의 존재 의의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고 그

1) Reuel Howe, Ibid., 25.

2) Ibid.

런 회의는 곧 좌절로 연결되어 설교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중에 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반대 방향으로 너무 나아가는 경우다.

이에 관한 하나의 좋은 예로써 한국 고유의 신학이라고 세계 신학계에 알려진 민중신학을 들 수 있다. 풀러 신학대학원(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김세윤 교수는 민중신학이 1970년대 중반 한국의 박정희 독재 정권의 정치적 압제와 도시 노동자 및 농촌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배경으로 생겨났으며, 출애굽 노예 탈출에 관련된 민중의 하나님 개념과 민중의 인격화이거나 상징으로서의 예수 개념이 성경적 기초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³⁾ 그는 또 민중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 비판하면서, 민중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신학을 위한 신약의 기초를 마가복음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 신약의 다른 책들을 무시하고 거기 있는 기독교론과 구원론과 교회론 등을 거부한다는 것, 마가복음은 민중신학을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중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일부분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의 부분들조차도 올바르게 해석할 때 민중신학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⁴⁾

결과적으로 김세윤 교수는 민중신학을 기독교 신학이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적 전통에서 추출한 비기독교적 요소를 기독교적 요소와 혼합시킴에 있어 그것은 통일교 같은 혼합주의의 잡탕을 만들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그에 대한 원인과 교훈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중 신학에서 성경적 특수주의(particularism)가 제대로 수호되지 않을 때 기독교 신학이 상황화의 과정에서 혼합주의로 타락하게 되는 좋은 예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복음이나 기독교 신학의 급진적 상황화를 주장하는 열광주의자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민중신학은 삶의 상황이 성경 계시의 본문을 지배하는 상황화의 좋은 보기이며, 그리하여 본문이 상황의 질문에 대해 말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의미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상황화된 신학이나 “복음”은 해방운동을 위해 민중의 의식을 일깨우는 정치적 전단으로 손쉽게 이용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기독교 복음이나 신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⁵⁾

3)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249-254.

4) Ibid., 272-273.

5) Ibid., 276.

위의 지적은 신학과 삶의 상황이 밀접한 관계를 지니지만 그것이 잘못 적용될 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와 소망 교회의 청중들 경우에는 말씀(text)과 상황(context) 사이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편견을 배제하는 조화가 존재함으로써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눈부신 교회 성장이라는 결실을 얻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선희 목사는 설교와 관련하여 말씀(Text)에의 순수성과 상황(context)에의 적합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먼저 말씀(text)에의 순수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박선희 목사는, 소위 교인들이 “잘한다”는 설교란 철학이나 윤리나 과학이나 사회학 등에 관한 지식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설교이며, 그것은 곧 성서적 복음주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 실존이 인간 존재의 가치인 것과 인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⁶⁾

그는 또 성경은 2천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만능 열쇠(masterkey)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열쇠라고 확신해야 한다면서 무슨 문제든지 성경 속에서 해답을 얻고 그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얼마나 성경에 충실한가? 가능하면 나의 말은 하지 않고 남의 말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이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성경 귀절을 다수 인용한다거나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어디까지나 내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 얼마나 깨끗하게 아주 순수한 뜻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⁸⁾

이렇게 말씀(text)에 충실할 때 설교에 있어서 두개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의 기둥이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확고히 서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최소한 그 설교는 조절되지 않은, 그리하여 복음의 투명성을 나타내 보이며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투명한 복음이 보다 더 효과있게 전달되려면 두 개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다른 하나인 청중의 적중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6) 박선희, “30호 예술보다 더 확실한 적중도를 위하여”, 신성종 외, 이렇게 설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6), 349-351.

7) Ibid., 352.

8) Ibid., 353-354.

이를 위해 설교에 대한 평신도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 보자. 루엘 하우(Reuel Howe)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인 평신도들이 나타내는 반응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⁹⁾ 첫째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하는 것은 설교가 너무 많은 관념들을, 너무 빨리 전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평신도들은 설교가 분석은 너무 많이 하면서도 대답은 너무 적다고 한다. 셋째로 설교가 너무 형식적이고 개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넷째로 설교자들이 사용하는 관념이나 용어가 청중들의 이해 수준을 넘는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설교가 너무 딱딱한 명제들로 되어 있으며 그런 설교는 예화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무도 많은 설교가 단순히 죽은 목표에나 도달했지 책임있는 행동으로 옮겨 실행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루엘 하우(Reuel Howe)의 이러한 지적은 순전히 소망 교회 주일 설교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소망 교회 주일 설교의 장점을 뒤집어서 열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의 여섯 가지 청중들의 반응을 방향전환시켜 긍정적인 진술로 바꾸면 바로 소망 교회 주일 설교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루엘 하우(Reuel Howe)는 위에 나열한 평신도들의 반응이 자신의 연구소에서 주선했던 설교에 관한 토의 내용을 담은 수백개의 테이프에서 얻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¹⁰⁾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는 텍스트와 테마에 관한 분석을 통해 설교학 구조상 본문 설교가 99.1%에 이르는 주된 유형인 것이 드러났다. 콕선희 목사의 견해에 의하면 본문 설교는 성경 본문(text)에서 하나의 테마(theme)만을 취급하는 설교이다. 따라서 그의 설교는 주제의 명료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은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¹¹⁾ 이러한 설교는 위에 기술한 평신도들의 반응 중 첫번째의 것, 즉 설교가 너무 많은 관념들을 너무 빨리 전달한다는 불평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두번째로 콕선희 목사는 대화로의 설교에 관해 설명하는 가운데 모든 교인들의 문제가 설교에서 해답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인들의 필요(need)를 잘 청취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대화적인 방법으로 할 것과, 이때 어조도 대화적으로 내용도 상담적으로 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설교 중에 이것이 문제였구나 느끼고 해답을 찾도

9) Reuel Howe, Ibid., 29-36.

10) Ibid., 29.

11) 본 논문 92. 참조.

록 하는 해결로의 설교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¹²⁾ 그는 또 목사의 수첩에는 교인들의 문제가 적혀 있어야 한다면 교인들의 기도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 기도의 공통적인 것을 취급해 나감으로써 하나씩 해답을 줄 수 있는 대화로의 설교를 강조하고 있다.¹³⁾ 이러한 입장은 평신도들의 반응 중 설교가 분석은 많이 하면서도 대답이 너무 적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셋째로, 곽선희 목사는 설교와 적중도에 관해 설명하면서, 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교인들에게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경 66권 중에서 꼭 필요한 말씀, 오늘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며 ‘아 목사님이 어찌면 그렇게 내 사정을 잘 알고 내게 말씀하실까? 어찌면 성경 가운데, 2천년 전에 기록했다는 성경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나’ 하고 응답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⁴⁾ 바로 이와같은 설교가 행해진다면 평신도들의 설교에 대한 반응 중 세번째의 것, 즉 설교가 너무 형식적이고 개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불평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넷째로, 곽선희 목사는 ‘유치하고(?) 쉬운 설교’를 행하도록 조언하면서 오늘의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기발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신학적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유식한 사람은 쉽게 말하고 시원치 않은 사람이 어렵게 말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도 모르는 소리를 하느라고 진땀을 흘리는 설교는 잘못된 것이며, 많이 알수록 쉽게 아주 편하게 설명이 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¹⁵⁾ 이것은 평신도들의 설교에 대한 불평 가운데 네번째의 것, 곧 설교자들이 사용하는 관념이나 용어가 청중들의 이해 수준을 넘는다는 반응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되고 있다. 한편 곽선희 목사의 이러한 지론은 소망 교회 청중을 분석한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일면 의아스럽게 여겨질 수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소망 교회 청중들의 경우 고학력자들이고 경제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며 또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보통 이상의 위치와 계층에 있는 사람들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는 지성적이고 높은 차원의 품위가 깃들어 있는, 하나의 완성된 예술품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설교가 청중들에게 아주 쉽고 편하게 이해되어진다는 것과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12) Sun Hee Kwak, Ibid., 5.

13) Ibid.

14) 곽선희, Ibid., 356-358.

15) Ibid., 359-361.

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바로 소망 교회 주일 설교의 특성인 것이다.

다섯째로 루올 하우(Reuel Howe)가 조사한 평신도들의 불만은 설교가 너무 딱딱한 명제들로 되어 있으며 그런 설교는 예화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를 분석한 내용 가운데 서론에 관한 분석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헨리 브라운(H.C. Brown)의 기준에 의해서 아홉가지 유형으로 소망 교회 주일 설교의 서론 부분을 분석한 결과, 그 가운데 제6 유형인 예화의 방법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¹⁶⁾ 물론 제2유형인 제목이나 주제에 의한 접근 방법도 24.6%로 두번째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같은 사실은 설교자가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를 부드럽고도 재미있게 그리고 넓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깊은 배려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콕선희 목사는 설교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잘하는 설교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권세있는 설교이며 그것은 능력을 생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설교를 듣고 깨달았다는 것보다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들은 후 마음 속에 힘이 생기고, 희열이 넘치고, 그렇게도 어두던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답답한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감격해서 교회문을 떠나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 라는 것이다.¹⁷⁾

이미 행해졌던 소망 교회 주일 설교에 관한 분석 내용 중 결론의 유형에 관한 분석 역시 위에 소개한 콕선희 목사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결론의 유형은 제6유형인 성경 귀절로서 42.5%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제3 유형인 직접적인 권고로서 19.4%로 나타났었다. 이 두가지 결론의 유형이 말해주는 것은, 설교의 결론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으로 보증하고 확신을 줄 것과 메시지에 근거한 올바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강하게 권고하는 것이 주된 결론의 방법이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¹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감격에 의한 신앙 삶의 실천! 이러한 특성이 설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때, 그동안 설교가 죽은 목표에나 도달했을 뿐 책임있는 행동으로 옮겨 실행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평신도들의 지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16) 본 논문 102 참조.

17) 콕선희, Ibid., 362.

18) 본 논문 105-107 참조.

이와같이 루올 하우(Reuel Howe)가 조사한 평신도들의 설교에 대한 불만은 소망 교회 주일 설교에서는 그 어느 것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본 논문에서 누누히 암시하고 또 강조한 것처럼 소망 교회 주일 설교가 말씀(text)과 상황(context),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대하여 온전한 파악과 철저한 구분 그러면서도 말씀을 상황에 최적하게 적용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와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설교자의 확고한 신학적 이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질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선희 목사의 신학 이해에 귀를 기울여 보자.

여기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수하게 깨달았느냐? 또 순수하게 드러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문화권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나 바르게 적용했느냐는 것이다. 신학이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오늘의 말씀되게 하는데 봉사하는 것이다.¹⁹⁾

소망 교회 주일 설교와 청중들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관계가 아니라,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는 관계로서 상호간에 동반자적인 특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화적인 관계요, 쌍방적인 관계이며 다른 말로 하면 파아트너(Partner)의 관계인 것이다. 서로 결혼하여 행복한 부부가 된 것처럼 소망 교회 주일 설교와 청중들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꼭 들어맞는 행복한 파아트너가 되었던 것이다.

제2절 새로운 청중과 새로운 설교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불변성이라면 그에 상대되는 인간의 특성은 가변성이라 하겠다. 창조되어진 이래로 오늘날까지 인간은 변화 속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인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며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원시시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이제 곧 정보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빌 게이츠(William H. Gates III)는 정보 고속도로의 시대가 얼마 있지 않아 오게 될 것이며, 그것은 인간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

19) 박선희, “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 설교”, 김지철 외 11명, 성경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한국 성서학, 1993), 125.

다.²⁰⁾ 일본의 소프트테크놀로지 그룹(Soft Technology Group)은 산업 기술, 환경, 주택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정보 사회, 문화와 풍속, 도시와 가족, 교육 그리고 전쟁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변화가 21세기에 오게 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²¹⁾ 이와같은 변화의 물결과 한국 사회가 별개일 수는 없다. 대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20년에 이르는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은 정보화, 국제화, 지방화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이와같은 변화 추이로 인하여 사회·문화적 다원성이 증대하면서 인간 존중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²⁾

그렇다면 교회는 이처럼 맹렬하게 다가오는 변화의 세계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성희 목사는 그의 저서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에서 한국 교회도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앞두고 한국의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며, 거센 파도와 같이 밀려올 미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미래 교회의 목회 형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²³⁾ 그러면서 그는 미래 사회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미래 한국 교회의 메가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그것들은 첫째, 개교회주의의 퇴조; 둘째, 출석교인의 감소와 헌금의 상승 현상; 셋째,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 넷째, 조직 교회에 대한 반대; 다섯째, 교회의 일치와 에큐메니즘의 활성화; 여섯째, 교회 마케팅 이론의 발달; 일곱째, 영성적 기능의 부활, 여덟째, 디아코니아의 발달; 아홉째, 교회 정치의 민주화; 열번째, 여성의 교회 정치 참여의 증대; 열한번째, 목회 구조의 대변혁 등이다.²⁴⁾

미래의 세계와 한국 사회에 여러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학자들이 예측한 것과 같은 일들이 하나씩 둘씩 발생하게 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 예측이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 다 들어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미래는 다양하게 변화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변화하는 세계와 한국과 문화를 마주 대하면서 오늘의 설교

20) William H. Gates III, 미래로 가는 길 (The Road Ahead), 이규행 감역(서울: 도서출판 삼성, 1995), 372-373.

21) Soft Technology Group 지음, 21세기를 준비하자 이정섭 편역 (서울: 문학과 현실사, 1995), 14-332.

22) 대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 편, 21세기의 한국 (서울: 도서출판 서울프레스, 1994), 991.

23)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70.

24) Ibid., 171-285.

자는 과연 어떤 자세와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 것일까? 세상이야 어떻게 변해 가든지 설교자는 그저 옛적부터 해오던 대로 특별한 대응없이 설교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

신약 신학자 제임스 던(J. D. G. Dunn)은 제1세기 기독교의 다양한 집단들로 유대 기독교와 헬라적 기독교(Hellenistic Christianity) 그리고 묵시적 기독교와 초기 공교회(Early Catholicism) 등 네 개의 기독교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²⁵⁾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올바르고도 깊은 이해와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스티븐 스몰리(S. S. Smalley)의 요한 공동체 이론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요한의 교회 또는 요한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삶의 자리에 대해 탐구한 결과 그 곳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두 신앙인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중 하나인 회당 출신 유대계 그리스도인 집단은 예수에 대해 온전한 신격 이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하나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집단은 예수에 대해 온전한 인격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임을 주장하였다.²⁶⁾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요한의 편지들 속에서 요한 공동체 내부의 이같은 양극화의 결과를 얼마든지 판별해 낼 수 있다는 것, 또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역시 이 논쟁의 양쪽 당사자들인 유대계 그리스도인 집단과 이방 그리스도인 집단이 마침 필요로 하던 균형잡힌 그리스도론을 바로 그 시기에 정확하게 제공했던 사실로 증거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²⁷⁾

물론 이와같은 견해에 대해 다른 이론을 가지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신약성서의 각 책들마다 삶의 자리가 각각 다른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 성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그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시공간에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그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 때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와졌다고 해서 기독교의 중심

25) J. D. G. Dunn, 신약 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The Diversity and Unity of the New Testament), 김득중·이광훈 공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5), 367-370.

26) S. S. Smalley, 요한 신학 (John: Evangelist and Interpreter), 김경신 옮김 (서울: 반석문화사, 1992), 222-226.

27) Ibid., 227.

메시지 자체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임스 던(J. D. G. Dunn)이 좋은 답변을 주고 있다. 그는 제1세기 기독교 집단의 다양함 속에서도 통합적인 중심점을 부여했던 아주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흐름을 발견했다면서, 그 통일성이란 나사렛 출신의 카리스마적인 방랑 설교가가 사역하다 죽었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확신이며 신적(神的)인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배했고 만났으며 또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던 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 생명을 주는 영 바로 예수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⁸⁾

부연하건대 제임스 던(J. D. G. Dunn)의 주장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와 교훈의 통일성(Unity)을 유지하면서도 유대 배경의 기독교인들이든지 헬라 배경의 기독교인들이든지 아니면 목시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실상이요 또한 특성이다. 족장 시대에는 족장 시대대로, 사사 시대에는 사사 시대대로, 왕국 시대에는 왕국 시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대로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는 사도들의 시대대로 하나님은 각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였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신약과 구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의 시대에는, 즉 계시의 종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시기 이후로는 누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기록된 계시, 종결된 계시인 성경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약은 신약의 뿌리가 되는 반면 신약은 구약의 재해석이 되는 것과 같이, 성경은 설교의 근거가 되고 설교는 성경의 재해석이 된다는 엄청난 의미를 명심해야 한다.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자인곽선희 목사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재해석(reinterpretation of the word of God)에 관해 설명하는 가운데 목사는 문화에 대하여 가장 익숙한 자라야 한다면서 문화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문화의 패턴(pattern)을 빨리 읽고 그 패턴으로 설교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²⁹⁾ 그의 주장 중에 일부를 아래에 인용해 보겠다

28) J. D. G. Dunn, Ibid., 572-573.

29) Sun Hee Kwak, Ibid., 16-17.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다. 사람은 자기 문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문화 속에 갇혀 있다. 하나님은 문화를 만드는 것을 지켜 보았다. 사람이 원하기에 허락하신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문화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말씀하신다. 인카네이션을 말할 때 말씀이 역사가운데 투입되었다 라고 말한다. 요즘에는 문화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문화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다. 우리와 만나기 위해, 대화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말씀하시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이 현장에 오셔서 문화의 옷을 입고 만나주신다.³⁰⁾

그리하여 20대와 30대 연령층이 중심이 되어 최고 수준의 학력과 여유있는 경제 소득,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는 청중들을 위해, 박선희 목사는 새로운 설교로 접근했고, 결국 목회의 성공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 예를 들자면 그의 설교 분석을 통해 먼저 발견되어진 것으로써 본문 선택에 관한 것을 보면 구약은 시편이, 신약은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시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배자들의 응답, 또는 제의적 공동체의 응답이며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데 이 제의적인 응답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찬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³¹⁾ 이와 같은 시편의 본질적 특성은 박선희 목사와 소망 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적절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박선희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되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 응답하게 했고 삶을 통해 긍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 구원의 문제는 물론이요, 신앙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목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로버트 프란스(R. T. France)는 마태복음을 일컬어 “마태의 책은 그의 동료들, 그의 영역 내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전문적인 교사에 의해 고안되었다”³²⁾고 말할 정도이다.

이렇게 하여 박선희 목사는 인간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쉬운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고, 구원만을 외치는 교회들 사이에서 구원 뿐 아니라 구

30) Ibid.

31) John Hargreaves, 시편의 새 해석 (A Guide to Psalms), 엄현섭 옮김 (사 1991), 19.

32) R. T. France, 마태신학 (Matthew: Evangelist and Teacher), 이한수역(엠마오, 1995), 410.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다. 사람은 자기 문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문화 속에 갇혀 있다. 하나님은 문화를 만드는 것을 지켜 보았다. 사람이 원하기에 허락하신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문화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말씀하신다. 인카네이션을 말할 때 말씀이 역사가운데 투입되었다 라고 말한다. 요즘에는 문화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문화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다. 우리와 만나기 위해, 대화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말씀하시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이 현장에 오셔서 문화의 옷을 입고 만나주신다.³⁰⁾

그리하여 20대와 30대 연령층이 중심이 되어 최고 수준의 학력과 여유있는 경제 소득,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는 청중들을 위해, 콕선희 목사는 새로운 설교로 접근했고, 결국 목회의 성공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 예를 들자면 그의 설교 분석을 통해 먼저 발견되어진 것으로써 본문 선택에 관한 것을 보면 구약은 시편이, 신약은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시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배자들의 응답, 또는 제의적 공동체의 응답이며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데 이 제의적인 응답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찬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³¹⁾ 이와 같은 시편의 본질적 특성은 콕선희 목사와 소망 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적절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콕선희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되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 응답하게 했고 삶을 통해 긍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 구원의 문제는 물론이요, 신앙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목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로버트 프란스(R. T. France)는 마태복음을 일컬어 “마태의 책은 그의 동료들, 그의 영역 내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전문적인 교사에 의해 고안되었다”³²⁾고 말할 정도이다.

이렇게 하여 콕선희 목사는 인간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쉬운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고, 구원만을 외치는 교회들 사이에서 구원 뿐 아니라 구

30) Ibid.

31) John Hargreaves, 시편의 새 해석 (A Guide to Psalms), 엄현섭 옮김 (서울: 컨콜디아사, 1991), 19.

32) R. T. France, 마태신학 (Matthew: Evangelist and Teacher), 이한수역(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5), 410.

원과 연결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여 설교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 됨을 지향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기복 신앙만을 능사로 아는 설교자들에게나 그런 설교에만 익숙해져 왔던 청중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새로운” 설교로서 인식되었고 마침내 오늘의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라 판단된다.

동시에 광선회 목사는 믿음과 행함의 분리됨이 없는 조화로운 주제 선택과 하나의 테마를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본문 설교, 간접적인 서론부의 형태와 직접적인 결론부의 형태 및 성서의 문학 유형에 따르는 설교의 전개 등을 통해, 소위 압구정 문화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만든 이 시대의 선구자적 설교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지역, 어느 교회나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와 같은 특성의 설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교회들은 그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특히 청중들의 개인적·공통적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정확히 분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새로운 청중들이 등장하고 있다. 아니 동일한 시대라 할지라도 공간적 차이에 따라 상호간에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청중이 존재하게 된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한 교회의 청중이라 할지라도 지난 주일의 청중과 오는 주일의 청중이 동일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청중은 언제나 새롭다. 오늘의 설교자들 앞에 새로운 청중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위해 새로운 설교는 언제 준비될 것인가?

제 6 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1장 서론에서는 첫째로, 특정한 상황이 전제될 때 특정한 말씀 선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가 연구 대상이 되었음을 밝혔다. 둘째로 교회성장이 침체 내지는 답보 상태에 있는 한국 교회의 현상을 확인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성장을 이룬 소망교회의 경우 그 원인이 설교에 있음을 증명한 후, 소망교회의 설교와 청중 분석이 연구의 목적인 것을 밝혔다. 셋째로 소망교회의 성장 원인과 확선회 목사의 설교에 대해 이미 연구되어진 자료들을 찾아 소개하였는 바, 대부분 단편적인 내용들이었고 일정한 분석 기준도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로 소망 교회의 설교 분석은 주일 설교로 한정하며 청중 분석은 새 등록 교인들이 작성하는 ‘개인 등록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교 분석의 기준으로는 헨리 브라운(H. C. Brown)과 토마스 롱(Thomas Long)의 이론을 중심으로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다섯째로 연구의 단계는 교회 성장과 설교의 관계성, 소망 교회 주일 설교 분석, 소망 교회 청중 분석, 그 둘 사이의 관계성의 순서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제2장 교회성장과 설교의 관계성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 곧 성경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탐구되었다. 첫째로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와 사무엘, 엘리야와 에스라, 요나와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바울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상에 나타나는 주요 설교들과 그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고찰하여, 설교가 신앙공동체나 교회의 성장에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방편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둘째로 신학적 측면에서는 성서 신학 분야보다 교회 성장학 분야와 설교학 분야에서 설교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셋째로 역사적 측면에서는 세계 교회의 경우 기독교의 초기 교회 시절인 교부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청

교도 시대와 대각성 운동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국 교회의 경우 1885년 복음이 전래된 이래 대부흥 운동을 비롯한 일제 시대의 부흥 활동들에 관한 내용을 짚어 본 후 오늘의 한경직, 조용기, 곽선희 목사에게 이르기까지 설교로 말미암아 엄청난 교회의 성장이 지속되어 왔음을 고찰하였다.

제3장 소망 교회 주일 설교 분석에서는 텍스트와 테마 분석, 설교의 형태적 특성 분석 및 설교의 문학적·수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텍스트와 테마 분석에서는 첫째로 성경 본문 사용 빈도 분석을 통해 구약의 경우 시편, 창세기, 잠언의 순서로 신약의 경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순서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로 설교의 주제는 134개의 주제를 사용함으로써 광범성을 나타내 보인 동시에 믿음, 사랑, 은혜, 감사, 성서, 자유 등과 같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는 집중성을 나타내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째로 설교학적 구조 분류로 볼 때 철저한 본문설교 중심으로써 이는 성경 본문에서 하나의 주제만을 선택하여 설교하는 특성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설교의 형태적 특성 분석에서는 첫째로 설교 제목 표현 방식 가운데 한정적 단어에 의한 방향 제시 형태가 가장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둘째로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는 예화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발견되었으며, 세째로 결론 부분에서는 성경 귀절의 사용이 단연 최다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설교의 문학적·수사적 분석은 토마스 롱(Thomas Long)의 이론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토마스 롱(Thomas Long)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선정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소망 교회 주일 설교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경 본문으로 행해진 설교를 찾아 비교 검토한 결과 시편, 잠언, 이야기, 비유, 서간문 등 모든 분야에서 일치되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는 토마스 롱(Thomas Long)이 제시하고 있는 문학적이고도 수사적인 전개 방식과 일치되는 효과적인 말씀 선포가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4장에서는 소망 교회 청중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청중에 관한 분석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행해져야 할 과제인 것을 이론적으로 논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소망 교회 청중 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밝혔다. 대상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 소망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 15,061명으로 하였으며, 방법은 그들이 기록한 “개인 등록 카드”와 “예배와 설교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분석 결과 소망 교회 교인들의 신앙적 특성은 초신자와 수세자가 90.5%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신앙 생활의 유지를 위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순서 중에는 설교를 가장 중요시하며, 지성적이고도 신앙적인 동시에 실제 생활 중심적인 객선회 목사의 설교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분석되었다. 다른 한편 그들의 경제적·문화적 특성을 보았을 때 여타 교회들에 비해서 남자의 구성비가 높았고 20~30대 젊은이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들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과 높은 월소득 그리고 고학력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강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주거 문화는 아파트 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제5장 설교 분석과 청중 분석의 관계성에서는 우선 설교가 청중과 관계없는 것이 될 때 그것은 공허한 독백이 될 뿐이요, 결코 효과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못한 책임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그 반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절대주의의 위험에 대해 민중 신학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 자체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말씀에의 순수성과 상황에의 적합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러한 설교야말로 특수한 청중에 대한 꼭 맞는 설교가 되어 설교와 청중은 행복한 파아트너(Partner)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소망 교회의 설교와 청중이 바로 그러한 관계인 것을 주장하였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선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으며, 소망 교회 설교가 압구정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교인들에게 성공적인 영향을 끼쳤듯이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새로운 청중을 위한 새로운 설교가 준비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2절 더 연구할 분야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의 주일 설교 341편과 같은 기간에 등록한 새 등록 교인 15,06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본 연구는 시간과 자료와 대상 인원에 있어서 한정된 연구였던 만큼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할 많은 분야를 과제로 남겨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시간적으로 볼 때 1990년부터 1996년 까지의 7년 기간 외에 더 많은 양의 기간들이 남아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1977년에 창립된 소망 교회는 1981년까지는

새 등록 교인의 수가 매해 평균 천 명을 넘어서지 못한 기간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2년부터 1988년 사이에는 매해 평균 1,648명의 새 교인들이 등록하였으며,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는 매해 평균 2,13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소망 교회의 역사를 등록 교인의 수에 입각해서 셋으로 구분하였을 때, 본 연구는 제3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구 대상 기간이었던 것으로, 그 기간의 설교와 청중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다룬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소망 교회 역사의 제1기와 제2기의 설교와 청중에 관한 분석이 이뤄진다면 제3기에 관한 연구인 본 논문과 비교하여 좋은 통찰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취급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볼 때, 설교분석은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를 인쇄한 “소망의 말씀”이라는 문자 자료가 중심이 되었으며 청중 분석은 새 등록 교인의 “개인 등록 카드”가 주된 자료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설교 분석의 경우 설교의 구조학적, 형태적 및 수사학적 분석 이외의 다른 분야는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교가 문자적이라기 보다는 음성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소망 교회의 주일 설교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가 중요한 연구 과제로 대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설교에 있어서 음색, 음조, 강세, 억양, 잠시 멈춤, 몸짓과 표정 등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로서 실제로 광선회 목사의 설교는 이러한 측면에서 독특성과 출중성을 인정받고 있기에 그것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청중 분석의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취급한 내용은 그들의 신앙적 특성 및 경제·문화적 특성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윤리적 관점이나 신학적 이해 정도 그리고 세계관 등 내용 영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개인 등록 카드”의 객관성 이외에 다양한 설문지와 면담(interviews), 기록들(Records) 및 관찰(Observation) 등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광범하고도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제 언

1996년 5월 18일자 한국기독교공보는 12면 목회란의 톱(Top) 기사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교회 청년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들이 감소하는 원인은 무관심에 있으며,

교회의 소극성·폐쇄성이 실망감을 부추기고 봉사 비중은 높은 반면에 예산 지원은 1% 미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³³⁾ 이러한 분석을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의 논리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이라 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또 제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떤 도움을 못 받고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한 재정 지원이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소망 교회 주일 설교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 주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새 등록 교인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20대 청년들의 비율이 전체 등록 교인의 42.9%에 이르렀던 것은 정말 기대치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물론 거기에는 소망 교회 청중의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광선희 목사는 소망 교회 청중에 관한 상황의 특수성을 정확히 포착했고 거기에 꼭 맞는 메시지로 승부를 걸었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화가 변할 때 우리도 따라 변해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된다. 젊은 사람에게 설교를 못하는 것과 같다. 두 차가 같이 가는데 같은 속도로 가면 정지한 것 같다. 그것은 동적인 안정, 생명적인 안정이다. 죽은 자의 안정이어서는 안된다. 변화하는 문화 속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나가면 안정이 온다.³⁴⁾

그는 안정된 목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망 교회 청중들은 안정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귀중한 목회적 통찰력 가운데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어떠한 현상 고착적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청중의 상황에 적중하는 최적의 설교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찬 통찰력이다. 모든 교회가 소망 교회를 닮을 필요는 없다. 아니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각 교회의 특수성을 직시하고 바르게 파악하여 거기에 최적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원리의 적용만이 있을 뿐이다. 이 일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때 그 곳에는 목회라고 하는 나무에 보람과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의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것이다.

33) 한국기독교공보 제2082호, 1996년 5월 18일자 12면 기사.

34) Sun Hee Kwak, Ibid., 17.

부 록(Appendix)

1. 설교 특성 분석표 I	165
2. 설교 특성 분석표 II	176
3. 예배와 설교에 관한 설문지	188
4. 1990년~1996년 새 교인 개인 등록 카드 통계 결과	190

부록 1. 설교 특성 분석표(1)

1990년~1996년까지 연도별 분석

년 도	주일설교 횟수	비 율	텍스트와 테마관계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1990	49회	회 %	1회 2%	48회 98%	
1991	48회	회 %		48회 100%	
1992	50회	회 %	1회 2%	49회 98%	
1993	49회	회 %	1회 2%	48회 98%	
1994	48회	회 %		48회 100%	
1995	48회	회 %		48회 100%	
1996	49회	회 %		49회 100%	

1990년~1996년까지 전체 분석

주일설교 횟수	비 율	텍스트와 테마관계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총 341회	회	3회	338회	0회
	%	0.9%	99.1%	0%

설교 특성 분석표(I)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설교주제	텍스트와 테마 관계		
년	월	일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1990	1	7	마 6:28-34	한 날의 괴로움	믿음		○	
		21	신 8:1-6	광야 사십년의 이유	훈련		○	
		28	딤후 3:1-5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	
	2	4	민 14:26-35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		○	
		11	요 5:37-47	불신의 이유	믿음		○	
		18	엡 5:1-2	이는 마땅한 바니라	불신		○	
		25	삼상 8:4-9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충성/삼일절		○	
	3	4	요 13:31-38	내 제자인줄 알리라	사랑		○	
		11	고전 12:18-31	지체의 영광	지체		○	
		18	마 10:1-8	거저 주어라	나눔		○	
		25	출 1:9	모세의 고민	믿음/모세		○	
	4	1	눅 9:51-62	예루살렘을 향한 결심	결단		○	
		8	요 16:25-33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종려주일		○	
		15	행 3:11-16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증인/부활주일		○	
		22	눅 24:24-35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믿음		○	
		29	행 3:1-10	내게 있는 것을 주노라	믿음		○	
	5	6	신 6:1-9	부지런히 가르치라	차녀교육(어린이주일)		○	
		13	잠 1:1-9	아름다운 면류관	효도(아버지주일)		○	
		20	롬 12:14-21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악)		○	
		27	대하 7:11-18	그 땅을 고칠지라	치유		○	
	6	3	요 3:1-11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성령강림주일		○	
		10	눅 18:9-14	두 예배자의 관심	의		○	
		17	고후 1:15-22	아멘의 신앙	믿음		○	
		24	창 50:15-21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		○	
	7	1	시 37:1-11	온유한 자의 권세	온유		○	
		15	롬 12:1-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		○	
		22	빌 1:19-25	살든지 죽든지	죽음		○	
		29	수 7:6-13	내일을 기다리라	좌절		○	
	8	5	마 24:37-51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달음		○	
		12	갈 5:13-18	참 자유에의 길	자유		○	
		19	고전 9:11-17	자랑이 없는 길	자랑		○	
		26	행 16:6-10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		○	
	9	2	시 73:1-17	내가 성소에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음		○	
		9	막 8:14-21	또 기억지 못하느냐	깨달음		○	
		16	사 5:1-7	하나님이 기다리심	기다림(인내)		○	

설교 특성 분석표(Ⅰ)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설교주제	텍스트와 테마 관계		
년	월	일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1990	9	23	요 14:25-31	평안을 주노라	평안(평화)		○	
		30	엡 4:1-6	하나되게 하는 비결	하나됨		○	
	10	7	사 56:1-8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창립주일		○	
		14	요 15:1-8	열매 맺는 생활의 비결	성공(열매)		○	
		21	잠 15:1-8	분노를 쉬게 하는 지혜	분노		○	
		28	롬 5:5-11	복음의 확증	종교개혁주일		○	
	11	4	벧전 2:18-25	긍정적 신앙의 표본	고난		○	
		11	출 3:1-12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소명		○	
		18	살전 1:2-7	선택받은 자의 감사	추수감사절	○		
		25	눅 17:5-10	믿음을 더 하소서	믿음		○	
	12	9	히 4:12-16	살아있는 말씀	성서주일		○	
		16	잠 4:1-9	지혜를 얻으라	지혜		○	
		23	벧후 3:8-13	약속을 기다리는 자	언약		○	
		30	행 20:17-27	받은 사명을 마치려는 사람	복음		○	
1991	1	6	엡 2:11-22	한 새 사람의 본질	신념		○	
		13	수 14:6-12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용기		○	
		20	민 14:1-12	원망하지 말라	원망		○	
	2	3	딤후 4:6-16	경건에 이르는 훈련	훈련		○	
		10	마 24:3-14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		○	
		17	요 16:16-24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부활		○	
		24	왕상 3:4-15	지혜를 구하는 지혜	선택		○	
	3	3	롬 13:1-7	위임 받은 권세	국가		○	
		10	막 9:2-8	오직 예수와 나	십자가		○	
		17	마 27:32-44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	
		24	마 21:23-27	지식을 버린 지식인	진리		○	
		31	마 28:1-10	무서움과 큰 기쁨	부활		○	
	4	7	삼하 9:1-8	은총을 아는 사람	은혜(은총)		○	
		14	행 10:9-16	하나님이 깨끗케 하신 것	편견		○	
		21	고후 4:16-17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존재		○	
		28	욥 23:10-17	오직 그가 아십니다	고난		○	
	5	5	창 22:1-22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린이주일		○	
		12	막 7:5-14	효 우선의 신앙	효도		○	
		19	롬 8:1-11	인간성 회복의 길	참인간		○	
		26	행 4:32-37	초대 성도의 윤리	윤리		○	
	6	2	눅 13:10-17	이 매임에서 푸는 것	자유		○	

설교 특성 분석표(Ⅰ)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설교주제	텍스트와 테마 관계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1991	6	9	삼상 9:1-6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지도자		○	
		16	요일 4:16-21	온전한 사랑의 능력	사랑		○	
		23	사 41:8-16	나는 네 하나님이다	축복		○	
		30	요 12:20-30	나 있는 곳에 있는 사람	행복		○	
	7	7	고전 15:29-34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명		○	
		14	눅 17:22-33	롯의 처를 생각하라	믿음		○	
		28	창 25:27-34	축복을 사기당한 자	축복		○	
	8	11	롬 6:15-23	자유 의 종	자유		○	
		18	요 4:1-14	영원한 생수	새로운 존재		○	
		25	갈 4:12-20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랑		○	
	9	1	사 60:15-22	전능자인 줄 알리라	축복		○	
		8	빌 3:1-9	가장 고상한 것	행복		○	
		15	고후 6:1-10	은혜의 생산성	은혜		○	
		22	잠 23:22-26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		○	
	10	6	요 3:16-21	교회의 생명력	교회		○	
		13	요 5:19-29	듣는자는 살아나리라	들음		○	
		20	살후 3:6-12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		○	
		27	갈 2:17-21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실제	생명		○	
	11	3	잠 30:5-9	지혜로운 소원	지혜		○	
		10	눅 7:40-50	이 여자를 보느냐	구원		○	
		17	살전 5:16-22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감사		○	
		24	마 13:24-30	주인의 궁극적 관심	기다림		○	
	12	1	창 13:1-13	선택받은 자의 선택	선택		○	
		8	딤후 4:1-5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성서		○	
		15	히 6:9-15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언약		○	
		22	눅 3:1-6	침경을 평탄케 하라	영접		○	
		29	시 30:1-5	한 신앙인의 결산	결산		○	
1992	1	5	빌 1:19-26	기대와 소망을 따라	소망		○	
		12	고전 13:8-13	어린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숙(신앙)		○	
		26	요 17:20-26	하나되게 하소서	일체(하나됨)		○	
	2	2	온 1:4-12	나를 바다에 던지라	새로운 존재		○	
		9	벧전 4:7-11	종말론적 생활 의식	종말론적 의식		○	
		16	창 32:1-12	야곱의 실존적 고민	고민		○	
		23	엡 4:25-32	일일 청산의 지혜	분노		○	
	3	1	사 37:1-7	해산의 능력을 잃은 자	승리		○	

설교 특성 분석표(I)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설교주제	텍스트와 테마 관계		
년	월	일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1992	3	8	단 1:8-17	신앙인의 용기	용기		○	
		15	잠 15:1-10	유순한 대답의 능력	말		○	
		22	히 11:24-32	믿음의 사람 모세	모세/믿음		○	
		29	마 16:21-23	고난의 당위성과 필연성	고난		○	
	4	5	마 16:24-28	자기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		○	
		12	눅 19:28-40	돌들이 외치리라	예수/찬양		○	
		19	마 28:1-10	빨리가서 전하라	부활		○	
		26	요 21:18-23	네게 무슨 상관이나	직분의식		○	
	5	3	막 10:13-16	어린이에게 축복을	어린이주일		○	
		10	눅 15:17-24	그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주일		○	
		17	시 51:9-19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봉사		○	
		24	시 119:9-16	말씀 따라 사는 청년	청년		○	
		31	롬 6:6-11	신앙인의 자기 인식	깨달음		○	
	6	7	갈 5:16-26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		○	
		14	행 16:6-10	환상에 끌려 산 사람	비전		○	
		21	시 62:5-12	참 권능의 소재	하나님	○		
		28	고후 8:8-15	사랑의 진실성	사랑		○	
	7	5	히 12:5-13	징계에 대한 신앙적 이해	징계		○	
		12	엡 5:15-21	지혜자의 시간 관리	시간		○	
		19	겔 33:10-16	생명에의 선택	생명		○	
		26	마 20:1-6	불공평의 공평	평등		○	
	8	2	마 25:23-30	게으른 자의 변명	일		○	
		9	시 51:1-10	정직한 마음의 회복	정직		○	
		23	롬 5:17-21	역설적 지혜	은혜		○	
		30	빌 2:25-30	근심 위에 근심	근심		○	
	9	6	창 33:1-10	하나님의 얼굴	화평		○	
		13	갈 2:6-10	내게 주신 은혜	은혜		○	
		20	딤후 6:11-16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승리		○	
		27	겔 37:1-6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소망		○	
	10	4	마 16:13-20	교회의 권세	교회/교회창립주일		○	
		11	고후 9:1-8	다수확의 원리	성공(열매)		○	
		18	출 3:1-12	내가 누구입니까?	참인간		○	
		25	고전 2:1-5	종교개혁자의 승리	용기		○	
	11	1	요 3:22-30	친구의 기쁨	기쁨		○	
		8	출 13:17-22	구름기둥 불기둥	신앙		○	

설교 특성 분석표(I)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설교주제	텍스트와 테마 관계		
년	월	일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1992	11	15	살전 3:6-10	감사와 보답	감사/추수감사절		○	
		22	빌 1:12-18	내 당한 현실의 의미	은혜		○	
		29	행 13:17-23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지도자/다윗		○	
	12	6	시 55:16-23	네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불신앙		○	
		13	전 5:1-7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성서)		○	
		20	눅 1:26-38	은혜를 받은 자	은혜		○	
		27	눅 16:1-8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	
1993	1	3	엡 4:17-24	새 사람됨의 윤리	새로운 존재		○	
		10	빌 3:7-16	잡힌 바된 존재	자유		○	
		24	창 28:10-22	복받은 사람의 여정	복(축복)		○	
		31	마 9:9-13	오직 긍휼의 뜻	긍휼		○	
	2	7	롬 5:1-8	항상 즐거워 하는 자	기쁨		○	
		14	시 139:1-12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지식(참지식)		○	
		21	잠 24:9-22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성공(시련)		○	
		28	행 1:6-11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이니이까	삼일절주일/해방		○	
	3	7	골 3:12-15	선택받은 자의 윤리	선택		○	
		14	마 3:5-12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	
		21	마 26:36-46	제자됨을 잃은 제자	제자	○		
		28	마 20:20-28	주려 함이나라	나눔		○	
	4	4	마 21:23-27	숨겨진 권세	종려주일/권세		○	
		11	고후 15:50-58	부활 승리의 의미	부활주일/부활		○	
		18	눅 24:36-43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평안)		○	
		25	빌 4:10-13	일체의 비결	승리		○	
	5	2	신 11:18-25	이 말씀을 가르치라	어린이주일/자녀교육		○	
		9	잠 23:22-26	내 길을 즐거워 하라	아버지주일/효도		○	
		16	빌 3:17-21	함께 나를 본받으라	가르침		○	
		23	마 7:13-14	좁은 문의 신비	시련		○	
		30	롬 8:12-17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성령강림주일		○	
	6	6	창 3:7-13	아담의 현 주소	진실		○	
		13	고전 13:1-7	신앙의 허상과 실상	사랑		○	
	7	4	고전 7:17-24	참 자유인의 자유	자유		○	
		11	마 10:16-23	나중까지 견디는 자	괴로움		○	
		18	시 62:1-8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		○	
		25	마 5:21-26	예배자의 윤리	예배		○	
	8	1	딤후 1:15-18	유쾌하게 사는 사람	대인관계		○	

설교 특성 분석표(I)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설교주제	텍스트와 테마 관계		
년	월	일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1993	8	8	고전 2:6-11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		○	
		15	민 14:20-35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	광복절주일/자유		○	
		22	눅 12:1-5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움		○	
		29	엡 2:1-10	은혜로 주어진 선물	은혜		○	
	9	5	에 4:10-17	이 때를 위한 신앙적 결단	결단		○	
		12	요 10:11-18	선한 목자상	보호		○	
		19	고전 4:1-5	비밀을 맡은 자의 궁지	일		○	
		26	골 3:1-4	감추어진 생명	생명		○	
	10	3	엡 1:15-23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교회창립주일/교회		○	
		10	잠 15:23-33	뼈를 윤택케하는 소리	건강		○	
		17	사 3:8-12	보상과 보응의 형평성	보응		○	
		24	막 1:35-39	예수님의 일과	시간		○	
		31	갈 2:17-21	자기 개혁의 의미	종교개혁주일/개혁		○	
	11	7	막 6:30-34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일/휴식		○	
		14	마 9:35-38	추수할 일꾼	일		○	
		21	요 11:33-44	예수님의 감사	추수감사절/감사		○	
		28	고후 12:1-10	은혜되게 하는 은혜	겸손/은혜		○	
	12	5	온 4:1-4	스스로 죽기를 구한 사람	요나/시기 질투		○	
		12	엡 6:10-20	내게 말씀을 주소서	성서주일/말씀		○	
		19	마 1:18-25	성탄에 헌신한 사람	성탄주일		○	
		26	딤후 4:6-8	결승점에 선 사람	승리		○	
1994	1	2	수 1:1-9	개척자의 신앙	용기		○	
		9	골 4:1-6	세월을 아끼라	시간		○	
		23	시 81:8-16	네 입을 넓게 열라	성숙		○	
		30	마 24:3-8	재난의 시작	재난		○	
	2	6	엡 3:14-21	참 경건과 참 건강	경건/건강		○	
		13	신 10:12-22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의		○	
		20	요 13:1-11	이후에는 알리라	사랑		○	
	3	6	렘 5:1-6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삼일절기념예배		○	
		13	눅 9:57-62	너는 나를 좇으라	소명		○	
		20	요 14:25-31	저는 내게 상관없다	평안/고독		○	
		27	마 16:13-20	가장 복된 사람	복		○	
	4	3	요 11:17-27	부활신앙의 진수	죽음/부활절주일		○	
		10	눅 24:13-27	실망과 소망의 기로	낙심/소망		○	
		17	히 11:13-17	한 실향민의 믿음	본향/부활절주일		○	

설교 특성 분석표(I)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설교주제	텍스트와 테마 관계		
년	월	일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1994	4	24	엡 4:11-16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		○	
	5	1	창 33:1-11	은혜로 주신 자녀	자녀(어린이주일)		○	
		8	골 3:18-24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정(아버지주일)		○	
		22	행 4:13-22	불가항적 용기	용기/성령강림주일		○	
		29	살전 4:9-12	조용히 일하라	일		○	
	6	5	시 49:6-20	깨달음이 없는 사람	생명/깨달음		○	
		12	창 4:1-13	원죄의 고향	분노		○	
		19	사 59:1-8	여호와와의 구원의 손	재난		○	
		26	눅 8:43-48	고독한 자의 신앙고백	행복한 자		○	
	7	3	롬 15:1-6	강한자의 윤리	윤리/강한 자		○	
		10	막 9:14-24	신앙인의 능력	신앙인		○	
		17	골 3:10-16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생명(회개)		○	
		24	벧후 3:14-18	어찌 죽고자 하느냐	성숙		○	
	8	7	잠 6:6-11	게으른자의 변명	게으름		○	
		14	롬 6:15-23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자유		○	
		21	마 11:12-19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친구)		○	
		28	마 24:37-44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종말		○	
	9	4	고후 13:4-7	사랑의 기쁨	사랑		○	
		11	창 39:1-6	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	요셉/삶의 자세		○	
		18	신 6:16-25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		○	
		25	벧후 1:20-25	세세토록 있는 말씀	말씀		○	
	10	2	행 9:26-31	교회의 속성	교회/교회창립주일		○	
		9	롬 12:14-21	악을 이기는 비결	악/선		○	
		16	호 6:1-6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참지식		○	
		23	마 7:15-23	열매로써 알리라	결실		○	
		30	갈 3:10-14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개혁/종교개혁주일		○	
	11	6	막 14:32-42	위기 앞에 선 신앙인	위기		○	
		13	삼상 15:17-27	제사보다 나은 순종	순종		○	
		20	눅 17:11-19	이 사람의 감사	감사/추수감사주일		○	
		27	속 4:1-16	오직 나의 신으로	승리		○	
	12	4	갈 6:1-5	네 자신을 돌아보라	자아		○	
		11	암 8:11-14	참 기근, 기갈의 뜻	말씀		○	
		18	마 7:24-29	잃은 것과 얻은 것	성취		○	
		25	빌 2:5-11	크리스마스의 마음	사랑/성탄절예배		○	
1995	1	1	마 6:25-34	형통함의 비밀	형통/신년예배		○	

설교 특성 분석표(I)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설교주제	텍스트와 테마 관계		
년	월	일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1995	1	8	요 14:1-6	예수는 그 길이시다	길		○	
		22	요 14:1-6	예수는 그 진리이시다	진리		○	
		29	요 14:1-6	예수는 그 생명이시다	생명		○	
	2	5	삼상 7:12-17	여기까지 도우셨다	평안		○	
		12	요 9:35-41	불확실한 자의 신앙	믿음		○	
		19	막 10:35-45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김		○	
		26	창 18:22-33	의인 열명의 의미	구원		○	
	3	5	롬 8:18-25	장차 나타날 영광	미래		○	
		12	고전 3:1-9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은사		○	
		19	마 19:23-30	천국을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	천국		○	
		26	눅 23:39-43	한 강도가 얻은 구원	구원		○	
	4	2	눅 9:56	결단이 있는자의 행로	결단		○	
		9	마 21:12-17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	찬양		○	
		16	행 4:1-12	부활과 부활신앙	부활/부활주일		○	
		23	행 10:23-33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고넬료/편견		○	
		30	시편 139:13-24	영원한 길로 인하소서	길		○	
	5	7	딤후 1:9-14	본받아 지키게 하라	가르침		○	
		21	마 5:38-42	대적하지 말라	(원수)사랑		○	
		28	출 32:15-20	모세의 분노	분노		○	
	6	4	행 4:5-12	성령 충만자의 고백	성령/성령강림주일		○	
		11	행 2:42-47	유무상통의 원리	소유		○	
		18	렘 10:19-25	내가 참아야 하리라	인내		○	
		25	합 2:1-4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핍박		○	
	7	2	요 8:1-11	땅에 쓴 편지	(비판) / 용서		○	
		9	눅 4:9-13	여기서 뛰어 내리라	시험 (시련)		○	
		16	창 30:25-32	복의 근원이 된 사람	복의 근원		○	
		23	고후 5:1-10	담대한 소원	소원		○	
		30	딤후 6:17-21	이 세대에 부한 자	재물(부)		○	
	8	6	대하 7:11-18	천재와 인재의 함수관계	치유		○	
		20	사 6:1-8	내가 여기있나이다.	자아		○	
	9	3	요 1:43-51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소명		○	
		10	히 12:1-8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본보기		○	
		17	창 29:21-30	원인 부정의 인간상	거짓		○	
		24	마 11:1-6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시련		○	
	10	1	골 1:19-25	교회봉사의 기쁨	일(봉사)		○	

설교 특성 분석표(1)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설교주제	텍스트와 테마 관계		
년	월	일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1995	10	15	사 49:14-21	손바닥에 새긴 이름	하나님		○	
		22	요 4:27-38	눈을 들어 받을 보라	추수하는 자		○	
		29	고전 1:18-25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	
	11	5	딤후 2:20-26	깨끗한 그릇	쓰임받는자/정결함		○	
		12	단 3:13-18	가장 담대했던 사람들	용기		○	
		19	빌 1:3-11	감사의 생활화	추수감사주일/감사		○	
		26	눅 8:16-18	숨은 것이 들어나리라	용기		○	
	12	3	잠 15:11-18	항상 잔치하는 사람	행복		○	
		10	시 119:9-16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이까	말씀		○	
		17	눅 3:1-6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대장절)/예비		○	
		24	요 3:16-21	이처럼 사랑하심	사랑		○	
		31	삼상 7:12-17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		○	
1996	1	7	겔 37:1-6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소망		○	
		14	고전 3:18-23	미련한 자의 지혜	지혜		○	
		21	눅 17:5-10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응답		○	
		28	전 7:1-4	초상집에 가는 지혜	죽음		○	
	2	4	암 5:21-27	정의를 하수같이	의(정의)		○	
		11	막 11:20-25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		○	
		18	시 127:1-5	복된 사람의 모습	행복		○	
		25	갈 1:11-17	선택의식과 소명의식	선택/소명		○	
	3	3	사 43:14-21	나의 찬송을 부르는 민족	삼일절기념예배/애국		○	
		10	눅 15:1-7	하늘의 기쁨	기쁨		○	
		17	마 8:5-13	이만한 믿음	믿음		○	
		24	눅 18:22-30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헌신		○	
		31	막 8:30-38	예수 고난의 신비	고난주간		○	
	4	7	눅 24:24-35	마음이 뜨거워 질 때	부활절주일		○	
		21	요일 4:7-11	사랑하는 자의 속성	사랑		○	
		28	전 11:1-8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선행		○	
	5	5	눅 2:41-52	아버지 집에 있는 어린이	어린이주일(가정/아버지)		○	
		11	막 7:24-30	그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주일(가정)		○	
		19	시 16:1-11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행복		○	
	6	2	요 1:14-18	은혜 위에 은혜	은혜		○	
		9	행 14:8-18	구원받을 만한 믿음	믿음		○	
		16	삼상 16:6-13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선택		○	
		23	사 5:1-7	포도원의 노래	은혜		○	

년도	설교횟수	제 목			서 론			결 론		
		유 형	횟 수	비 율	유 형	횟 수	비 율	유 형	횟 수	비 율
1994년	48개	1 2 3 4 5	8개 2개 8개 6개 24개	16.7% 4.2% 16.7% 12.5% 50%	1	10개	20.8%	1 2 3 4 5 6	2개 7개 6개 4개 8개 21개	4.2% 14.6% 12.5% 8.3% 16.7% 43.8%
					2					
					3					
					4					
					5					
					6					
					7					
					8					
					9					
1995년	48개	1 2 3 4 5	14개 2개 5개 7개 20개	29.2% 4.2% 10.4% 14.6% 41.7%	1	1개	2.1%	1 2 3 4 5 6	6개 7개 5개 1개 3개 26개	12.5% 14.6% 10.4% 2.1% 6.3% 54.2%
					2					
					3					
					4					
					5					
					6					
					7					
					8					
					9					
1996년	49개	1 2 3 4 5	13개 2개 8개 6개 20개	26.5% 4.1% 16.3% 12.2% 40.8%	1	1개	2%	1 2 3 4 5 6	7개 10개 7개 5개 1개 19개	14.3% 20.4% 14.3% 10.2% 2% 38.8%
					2					
					3					
					4					
					5					
					6					
					7					
					8					
					9					
1990년 ~ 1996년	341	1 2 3 4 5	93개 12개 53개 40개 143개	27.3% 3.5% 15.5% 11.7% 41.9%	1	11개	3.2%	1 2 3 4 5 6	35개 52개 66개 19개 24개 145개	10.3% 15.2% 19.4% 5.6% 7% 42.5%
					2					
					3					
					4					
					5					
					6					
					7					
					8					
					9					

설교 특성 분석표(Ⅱ)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제목의 유형	설교의 방법	
년	월	일				서론의 유형	결론의 유형
1990	1	7	마 6:28-34	한 날의 괴로움	5	4	6
		21	신 8:1-6	광야 사십년의 이유	1	5	3
		28	딤후 3:1-5	네가 이것을 알라	3	4	6
	2	4	민 14:26-35	들린 대로 행하리라	4	2	6
		11	요 5:37-47	불신의 이유	5	6	3
		18	엡 5:1-2	이는 마땅한 바니라	4	5	2
		25	삼상 8:4-9	우리는 다스리게 하소서	4	7	3
	3	4	요 13:31-38	내 제자인줄 알리라	3	6	3
		11	고전 12:18-31	지체의 영광	1	7	2
		18	마 10:1-8	거저 주어라	3	5	2
		25	출 1-9	모세의 고민	5	8	6
	4	1	눅 9:51-62	예루살렘을 향한 결심	1	8	1
		8	요 16:25-33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4	7	6
		15	행 3:11-16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4	2	6
		22	눅 24:24-35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5	5	3
		29	행 3:1-10	내게 있는 것을 주노라	3	5	6
	5	6	신 6:1-9	부지런히 가르치라	3	2	4
		13	잠 1:1-9	아름다운 면류관	1	6	2
		20	롬 12:14-21	선으로 악을 이기라	3	8	2
		27	대하 7:11-18	그 땅을 고칠지라	1	6	2
	6	3	요 3:1-11	성령으로 난 사람	1	6	6
		10	눅 18:9-14	두 예배자의 관심	5	6	3
		17	고후 1:15-22	아멘의 신앙	1	5	6
		24	창 50:15-21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1	8	3
	7	1	시 37:1-11	온유한 자의 권세	5	4	6
		15	롬 12:1-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5	3	2
		22	빌 1:19-25	살든지 죽든지	5	6	6
		29	수 7:6-13	내일을 기다리라	3	1	2
	8	5	마 24:37-51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	2	6
		12	갈 5:13-18	참 자유의 길	1	2	6
		19	고전 9:11-17	자랑이 없는 길	1	2	3
		26	행 16:6-10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3	6	4
	9	2	시 73:1-17	내가 성소에서 깨달았습니다	4	8	2
		9	막 8:14-21	또 기억지 못하느냐	2	1	6
		16	사 5:1-7	하나님이 기다리심	5	3	6

설교 특성 분석표(Ⅱ)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제목의 유형	설교의 방법	
년	월	일				서론의 유형	결론의 유형
1990	9	23	요 14:25-31	평안을 주노라	3	2	6
		30	엡 4:1-6	하나되게 하는 비결	1	5	3
	10	7	사 56:1-8	만민이 기도하는 집	1	7	1
		14	요 15:1-8	열매 맺는 생활의 비결	1	1	2
		21	잠 15:1-8	분노를 쉬게 하는 지혜	1	4	6
		28	롬 5:5-11	복음의 확증	5	3	6
	11	4	벧전 2:18-25	긍정적 신앙의 표본	1	6	6
		11	출 3:1-12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3	3	1
		18	살전 1:2-7	선택받은 자의 감사	5	6	3
		25	눅 17:5-10	믿음을 더 하소서	4	1	3
	12	9	히 4:12-16	살아있는 말씀	5	6	6
		16	잠 4:1-9	지혜를 얻으라	3	2	1
		23	벧후 3:8-13	약속을 기다리는 자	5	6	1
		30	행 20:17-27	받은 사명을 마치려는 사람	1	1	6
1991	1	6	엡 2:11-22	한 새 사람의 본질	5	5	3
		13	수 14:6-12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	3	1
		20	민 14:1-12	원망하지 말라	3	5	3
	2	3	딤후 4:6-16	경건에 이르는 훈련	1	6	6
		10	마 24:3-14	그제야 끝이 오리라	1	6	3
		17	요 16:16-24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1	6	6
		24	왕상 3:4-15	지혜를 구하는 지혜	5	3	6
	3	3	롬 13:1-7	위임 받은 권세	1	2	3
		10	막 9:2-8	오직 예수와 나	5	3	1
		17	마 27:32-44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	2	6
		24	마 21:23-27	지식을 버린 지식인	1	1	2
		31	마 28:1-10	무서움과 큰 기쁨	5	3	3
	4	7	삼하 9:1-8	은총을 아는 사람	1	3	6
		14	행 10:9-16	하나님이 깨끗케 하신 것	5	6	6
		21	고후 4:16-17	날로 새롭도다	4	4	6
		28	욥 23:10-17	오직 그가 아십니다	4	3	6
	5	5	창 22:1-22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3	6
		12	막 7:5-14	효 우선의 신앙	5	2	2
		19	롬 8:1-11	인간성 회복의 길	1	2	6
		26	행 4:32-37	초대 성도의 윤리	5	8	3
	6	2	눅 13:10-17	이 매임에서 푸는 것	5	3	6

설교 특성 분석표(Ⅱ)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제목의 유형	설교의 방법	
년	월	일				서론의 유형	결론의 유형
1991	6	9	삼상 9:1-6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5	8	3
		16	요일 4:16-21	온전한 사랑의 능력	1	5	1
		23	사 41:8-16	나는 네 하나님이다	4	6	6
		30	요 12:20-30	나 있는 곳에 있는 사람	5	3	6
	7	7	고전 15:29-34	나는 날마다 죽노라	4	6	3
		14	눅 17:22-33	롯의 처를 생각하라	3	3	2
		28	창 25:27-34	축복을 사기당한 자	1	6	3
	8	11	롬 6:15-23	자유 의 종	1	2	1
		18	요 4:1-14	영원한 생수	5	2	2
		25	갈 4:12-20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5	6	3
	9	1	사 60:15-22	전능자인 줄 알리라	3	3	3
		8	빌 3:1-9	가장 고상한 것	5	2	4
		15	고후 6:1-10	은혜의 생산성	1	3	6
		22	잠 23:22-26	네 부모를 공경하라	3	6	6
	10	6	요 3:16-21	교회의 생명력	1	1	6
		13	요 5:19-29	듣는자는 살아나리라	4	3	6
		20	살후 3:6-12	자기 양식을 먹으라	3	5	6
		27	갈 2:17-21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실제	5	3	2
	11	3	잠 30:5-9	지혜로운 소원	1	6	6
		10	눅 7:40-50	이 여자를 보느냐	2	1	6
		17	살전 5:16-22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5	4	5
		24	마 13:24-30	주인의 궁극적 관심	5	5	3
	12	1	창 13:1-13	선택받은 자의 선택	5	2	6
		8	딤후 4:1-5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3	2	6
		15	히 6:9-15	약속을 기쁨으로 받은 자	1	2	6
		22	눅 3:1-6	침경을 평탄케 하라	3	6	3
		29	시 30:1-5	한 신앙인의 결산	5	2	2
1992	1	5	빌 1:19-26	기대와 소망을 따라	1	2	3
		12	고전 13:8-13	어린이의 일을 버렸노라	4	2	3
		26	요 17:20-26	하나되게 하소서	4	2	6
	2	2	온 1:4-12	나를 바다에 던지라	3	4	6
		9	벤전 4:7-11	종말론적 생활 의식	1	8	6
		16	창 32:1-12	야곱의 실존적 고민	5	2	3
		23	엡 4:25-32	일일 청산의 지혜	5	6	6
	3	1	사 37:1-7	해산의 능력을 잃은 자	1	6	3

설교 특성 분석표(Ⅱ)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제목의 유형	설교의 방법	
년	월	일				서론의 유형	결론의 유형
1992	3	8	단 1:8-17	신앙인의 용기	5	6	4
		15	잠 15:1-10	유순한 대답의 능력	5	5	3
		22	히 11:24-32	믿음의 사람 모세	1	2	5
		29	마 16:21-23	고난의 당위성과 필연성	1	6	3
	4	5	마 16:24-28	자기 십자가의 신비	5	5	6
		12	눅 19:28-40	돌들이 외치리라	1	3	2
		19	마 28:1-10	빨리가서 전하라	3	4	3
		26	요 21:18-23	내게 무슨 상관이냐	2	6	6
	5	3	막 10:13-16	어린이에게 축복을	1	2	4
		10	눅 15:17-24	그 아버지의 소원	5	5	2
		17	시 51:9-19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4	5	6
		24	시 119:9-16	말씀 따라 사는 청년	5	2	6
		31	롬 6:6-11	신앙인의 자기 인식	1	2	6
	6	7	갈 5:16-26	성령을 좇아 행하라	3	8	3
		14	행 16:6-10	환상에 끌려 산 사람	1	4	6
		21	시 62:5-12	참 권능의 소재	5	2	6
		28	고후 8:8-15	사랑의 진실성	5	5	3
	7	5	히 12:5-13	징계에 대한 신앙적 이해	1	3	1
		12	엡 5:15-21	지혜자의 시간 관리	5	6	3
		19	겔 33:10-16	생명에의 선택	5	2	6
		26	마 20:1-6	불공평의 공평	5	6	3
	8	2	마 25:23-30	게으른 자의 변명	5	3	2
		9	시 51:1-10	정직한 마음의 회복	1	2	1
		23	롬 5:17-21	역설적 지혜	1	6	2
		30	빌 2:25-30	근심 위에 근심	1	6	6
	9	6	창 33:1-10	하나님의 얼굴	5	6	6
		13	갈 2:6-10	내게 주신 은혜	5	3	2
		20	딤후 6:11-16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1	4	1
		27	겔 37:1-6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2	5	3
	10	4	마 16:13-20	교회의 권세	5	2	3
		11	고후 9:1-8	다수화의 원리	5	6	6
		18	출 3:1-12	내가 누구입니까?	2	2	6
		25	고전 2:1-5	종교개혁자의 승리	1	5	4
	11	1	요 3:22-30	친구의 기쁨	5	5	3
		8	출 13:17-22	구름기둥 불기둥	1	8	3

설교 특성 분석표(Ⅱ)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제목의 유형	설교의 방법	
년	월	일				서론의 유형	결론의 유형
1992	11	15	살전 3:6-10	감사와 보답	5	2	5
		22	빌 1:12-18	내 당한 현실의 의미	5	3	6
		29	행 13:17-23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5	3	4
	12	6	시 55:16-23	네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3	5	6
		13	전 5:1-7	말씀을 듣는 사람	5	6	3
		20	눅 1:26-38	은혜를 받은 자	5	6	2
		27	눅 16:1-8	네 보던 일을 셈하라	3	5	3
1993	1	3	엡 4:17-24	새 사람됨의 윤리	5	2	2
		10	빌 3:7-16	잡힌 바된 존재	5	8	6
		24	창 28:10-22	복받은 사람의 여정	5	2	5
		31	마 9:9-13	오직 긍휼의 뜻	5	6	2
	2	7	롬 5:1-8	항상 즐거워 하는 자	5	5	1
		14	시 139:1-12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4	5	5
		21	잠 24:9-22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4	5	3
		28	행 1:6-11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이니이까	2	2	6
	3	7	골 3:12-15	선택받은 자의 윤리	5	8	2
		14	마 3:5-12	회개에 합당한 열매	1	6	6
		21	마 26:36-46	제자됨을 잃은 제자	1	2	3
		28	마 20:20-28	주려 함이니라	4	3	5
	4	4	마 21:23-27	숨겨진 권세	5	7	1
		11	고후 15:50-58	부활 승리의 의미	1	2	6
		18	눅 24:36-43	평강이 있을지어다	4	2	5
		25	빌 4:10-13	일체의 비결	5	3	1
	5	2	신 11:18-25	이 말씀을 가르치라	3	2	6
		9	잠 23:22-26	내 길을 즐거워 하라	3	6	6
		16	빌 3:17-21	함께 나를 본받으라	3	2	6
		23	마 7:13-14	좁은 문의 신비	5	6	5
		30	롬 8:12-17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1	3	6
	6	6	창 3:7-13	아담의 현 주소	1	6	1
		13	고전 13:1-7	신앙의 허상과 실상	5	2	2
	7	4	고전 7:17-24	참 자유인의 자유	5	2	2
		11	마 10:16-23	나중까지 견디는 자	5	1	6
		18	시 62:1-8	하나님만 바라라	3	5	6
		25	마 5:21-26	예배자의 윤리	5	2	1
	8	1	딤후 1:15-18	유쾌하게 사는 사람	5	6	3

설교 특성 분석표(Ⅱ)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제목의 유형	설교의 방법	
년	월	일				서론의 유형	결론의 유형
1993	8	8	고전 2:6-11	예비하시는 하나님	5	5	3
		15	민 14:20-35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	1	2	6
		22	눅 12:1-5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하라	3	2	6
		29	엡 2:1-10	은혜로 주어진 선물	1	4	5
	9	5	에 4:10-17	이 때를 위한 신앙적 결단	5	2	6
		12	요 10:11-18	선한 목자상	5	8	6
		19	고전 4:1-5	비밀을 맡은 자의 궁지	5	6	3
		26	골 3:1-4	감추어진 생명	5	2	2
	10	3	엡 1:15-23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1	6	1
		10	잠 15:23-33	뼈를 윤택케하는 소리	1	2	6
		17	사 3:8-12	보상과 보응의 형평성	1	6	1
		24	막 1:35-39	예수님의 일과	5	5	3
		31	갈 2:17-21	자기 개혁의 의미	5	6	1
	11	7	막 6:30-34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3	2	6
		14	마 9:35-38	추수할 일꾼	5	2	5
		21	요 11:33-44	예수님의 감사	5	2	5
		28	고후 12:1-10	은혜되게 하는 은혜	1	8	6
	12	5	온 4:1-4	스스로 죽기를 구한 사람	1	3	4
		12	엡 6:10-20	내게 말씀을 주소서	4	6	4
		19	마 1:18-25	성탄에 헌신한 사람	5	2	5
		26	딤후 4:6-8	결승점에 선 사람	5	2	3
1994	1	2	수 1:1-9	개척자의 신앙	5	2	4
		9	골 4:1-6	세월을 아끼라	3	2	3
		23	시 81:8-16	네 입을 넓게 열라	3	2	6
		30	마 24:3-8	재난의 시작	5	2	6
	2	6	엡 3:14-21	참 경건과 참 건강	5	4	5
		13	신 10:12-22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5	6	3
		20	요 13:1-11	이후에는 알리라	4	6	6
	3	6	렘 5:1-6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5	6	2
		13	눅 9:57-62	너는 나를 좇으라	4	5	6
		20	요 14:25-31	저는 내게 상관없다	4	5	6
		27	마 16:13-20	가장 복된 사람	5	2	6
	4	3	요 11:17-27	부활신앙의 진수	5	6	6
		10	눅 24:13-27	실망과 소망의 기로	5	2	5
		17	히 11:13-17	한 실향민의 믿음	5	6	4

설교 특성 분석표(Ⅱ)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제목의 유형	설교의 방법	
년	월	일				서론의 유형	결론의 유형
1994	4	24	엡 4:11-16	성숙한 그리스도인	1	6	6
	5	1	창 33:1-11	은혜로 주신 자녀	5	2	3
		8	골 3:18-24	부모에게 순종하라	3	6	6
		22	행 4:13-22	불가항적 용기	1	2	2
		29	살전 4:9-12	조용히 일하라	3	6	2
	6	5	시 49:6-20	깨달음이 없는 사람	5	5	5
		12	창 4:1-13	원죄의 고향	1	6	6
		19	사 59:1-8	여호와와의 구원의 손	5	6	4
		26	눅 8:43-48	고독한 자의 신앙고백	1	5	5
	7	3	롬 15:1-6	강한자의 윤리	5	2	6
		10	막 9:14-24	신앙인의 능력	5	6	2
		17	겔 33:10-16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2	6	4
		24	벧후 3:14-18	어찌 죽고자 하느냐	3	5	6
	8	7	잠 6:6-11	게으른자의 변명	5	6	6
		14	롬 6:15-23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3	5	5
		21	마 11:12-19	세리와 죄인의 친구	1	6	5
		28	마 24:37-44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3	6	2
	9	4	고후 13:4-7	사랑의 기쁨	5	6	6
		11	창 39:1-6	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	5	5	6
		18	신 6:16-25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2	6	5
		25	벧후 1:20-25	세세토록 있는 말씀	1	6	3
	10	2	행 9:26-31	교회의 속성	5	2	3
		9	롬 12:14-21	악을 이기는 비결	5	6	6
		16	호 6:1-6	힘써 여호와를 알자	4	6	2
		23	마 7:15-23	열매로써 알리라	4	4	1
		30	갈 3:10-14	믿음으로 살리라	4	7	2
	11	6	막 14:32-42	위기 앞에 선 신앙인	5	6	6
		13	삼상 15:17-27	제사보다 나은 순종	1	6	3
		20	눅 17:11-19	이 사람의 감사	5	4	6
		27	속 4:1-16	오직 나의 신으로	1	6	5
	12	4	갈 6:1-5	네 자신을 돌아보라	3	6	6
		11	암 8:11-14	참 기근, 기갈의 뜻	5	6	6
		18	마 7:24-29	잃은 것과 얻은 것	5	6	6
		25	빌 2:5-11	크리스마스의 마음	5	6	1
1995	1	1	마 6:25-34	형통함의 비밀	1	2	6

설교 특성 분석표(Ⅱ)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제목의 유형	설교의 방법	
년	월	일				서론의 유형	결론의 유형
1995	1	8	요 14:1-6	예수는 그 길이다	4	6	2
		22	요 14:1-6	예수는 그 진리이다	4	6	6
		29	요 14:1-6	예수는 그 생명이다	4	6	6
	2	5	삼상 7:12-17	여기까지 도우셨다	4	2	3
		12	요 9:35-41	불확실한 자의 신앙	5	5	6
		19	막 10:35-45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5	2	3
		26	창 18:22-33	의인 열명의 의미	5	6	6
	3	5	롬 8:18-25	장차 나타날 영광	5	6	6
		12	고전 3:1-9	자기 상을 받으리라	1	6	3
		19	마 19:23-30	천국을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	5	2	2
		26	눅 23:39-43	한 강도가 얻은 구원	1	6	1
	4	2	눅 9:56	결단이 있는자의 행로	1	2	6
		9	마 21:12-17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	4	6	1
		16	행 4:1-12	부활과 부활신앙	1	6	6
		23	행 10:23-33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5	6	5
		30	시편 139:13-24	영원한 길로 인하소서	4	6	1
	5	7	딤후 1:9-14	본받아 지키게 하라	3	2	6
		21	마 5:38-42	대적하지 말라	3	6	6
		28	출 32:15-20	모세의 분노	5	2	6
	6	4	행 4:5-12	성령 충만자의 고백	5	6	6
		11	행 2:42-47	유무상통의 원리	1	5	3
		18	렘 10:19-25	내가 참아야 하리라	1	2	6
		25	합 2:1-4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1	2	6
	7	2	요 8:1-11	땅에 쓴 편지	5	1	6
		9	눅 4:9-13	여기서 뛰어 내리라	1	6	2
		16	창 30:25-32	복의 근원이 된 사람	5	3	1
		23	고후 5:1-10	담대한 소원	5	4	6
		30	딤후 6:17-21	이 세대에 부한 자	5	6	6
	8	6	대하 7:11-18	천재와 인재의 함수관계	1	6	5
		20	사 6:1-8	내가 여기있나이다.	4	6	4
	9	3	요 1:43-51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2	6	6
		10	히 12:1-8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3	6	6
		17	창 29:21-30	원인 부정의 인간상	1	6	1
		24	마 11:1-6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5	6	6
	10	1	골 1:19-25	교회봉사의 기쁨	5	6	3

설교 특성 분석표(Ⅱ)

설 교 일 시			설교본문	설 교 제 목	제목의 유형	설교의 방법	
년	월	일				서론의 유형	결론의 유형
1995	10	15	사 49:14-21	손바닥에 새긴 이름	5	6	6
		22	요 4:27-38	눈을 들어 받을 보라	3	5	6
		29	고전 1:18-25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5	5	6
	11	5	딤후 2:20-26	깨끗한 그릇	5	5	2
		12	단 3:13-18	가장 담대했던 사람들	5	6	6
		19	빌 1:3-11	감사의 생활화	1	2	5
		26	눅 8:16-18	숨은 것이 들어나리라	1	6	6
	12	3	잠 15:11-18	항상 잔치하는 사람	5	6	6
		10	시 119:9-16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이까	2	2	2
		17	눅 3:1-6	그의 길을 곧게 하라	3	5	1
		24	요 3:16-21	이처럼 사랑하심	1	6	2
		31	삼상 7:12-17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5	6	2
1996	1	7	겔 37:1-6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2	5	2
		14	고전 3:18-23	미련한 자의 지혜	5	5	6
		21	눅 17:5-10	믿음을 더하소서	4	6	6
		28	전 7:1-4	초상집에 가는 지혜	1	4	1
	2	4	암 5:21-27	정의를 하수같이	1	6	2
		11	막 11:20-25	받은 줄로 믿으라	3	6	4
		18	시 127:1-5	복된 사람의 모습	5	8	5
		25	갈 1:11-17	선택의식과 소명의식	1	6	1
	3	3	사 43:14-21	나의 찬송을 부르는 민족	1	7	4
		10	눅 15:1-7	하늘의 기쁨	5	4	2
		17	마 8:5-13	이만한 믿음	5	6	6
		24	눅 18:22-30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4	6	1
		31	막 8:30-38	예수 고난의 신비	5	6	3
	4	7	눅 24:24-35	마음이 뜨거워 질 때	5	4	6
		21	요일 4:7-11	사랑하는 자의 속성	5	4	6
		28	전 11:1-8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3	6	6
	5	5	눅 2:41-52	아버지 집에 있는 어린이	1	2	1
		11	막 7:24-30	그 어머니의 마음	5	2	4
		19	시 16:1-11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4	6	1
	6	2	요 1:14-18	은혜 위에 은혜	1	6	6
		9	행 14:8-18	구원받을 만한 믿음	1	6	1
		16	삼상 16:6-13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1	4	6
		23	사 5:1-7	포도원의 노래	5	5	6

부록 3.

예배와 설교에 관한 설문지

※ 아래 물음에 대해서 해당되는 문항의 밑줄 위에 “V”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인의 신급은 ①_____장로 또는 권사입니다.
 ②_____집사입니다.
 ③_____세례교인입니다.
 ④_____초신자입니다.

2. 본인은 ①_____소망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②_____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③_____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소망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_____가족,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입니다.
 ②_____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입니다.
 ③_____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입니다.
 ④_____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⑤_____기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 소망교회의 주일 낮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는?
 ①_____100~91% 정도입니다.
 ②_____90~81% 정도입니다.
 ③_____80~71% 정도입니다.
 ④_____70~51% 정도입니다.
 ⑤_____50% 이하입니다.

5.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가장 중시되는 부분은?
 ①_____교인들의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②_____대표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③_____교인들의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④_____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6.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말씀은?

- ①_____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②_____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③_____ 너무 은혜로워서 소망교회로 출석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7.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가 뛰어나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1, 2, 3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①_____ 구사하는 문장과 어휘가 호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 ②_____ 억양, 손짓, 표정 등 웅변적 테크닉 때문입니다.
- ③_____ 타고난 언변의 유창함 때문입니다.
- ④_____ 광범한 지식을 소유한 이지적 설교 때문입니다.
- ⑤_____ 시대적 상황과 교인들의 일상 삶에 매우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 ⑥_____ 구체적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감화력 때문입니다.

부록4.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로인 개인 등록 카드 통계 결과

	년도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성별								
성 별	남	833	810	982	911	842	1,041	963	6,382
	여	1,140	1,149	1,357	1,128	1,135	1,317	1,305	8,531
	합 계	1,973	1,959	2,339	2,039	1,977	2,358	2,268	14,913

	구	년도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거 주 지 별	강 남 구		783	788	952	785	792	854	841	5,795
	강 동 구		55	44	28	29	21	21	60	258
	강 북 구								13	13
	강 서 구		10	10	19	14	8	14	22	97
	광 진 구							39	75	114
	금 천 구							1	1	2
	노 원 구		20	28	32	35	24	30	36	205
	도 봉 구		25	36	34	23	25	40	13	196
	동대문구		29	40	50	18	22	22	26	207
	동 작 구		47	53	53	52	45	61	105	416
	마 포 구		36	17	31	15	26	32	27	184
	서대문구		21	31	33	25	32	43	29	214
	서 초 구		283	302	340	312	267	310	323	2,137
	성 동 구		123	98	140	110	103	71	33	678
	성 북 구		33	21	33	22	34	28	36	207
	송 파 구		238	245	245	243	193	204	188	1,556
	양 천 구		15	24	24	13	14	12	16	118
	영등포구		16	19	25	21	23	25	31	160
	용 산 구		35	19	35	39	29	39	34	230
	은 평 구		15	35	32	24	21	28	22	177
	종 로 구		17	25	19	32	28	29	22	172
합	중 구		22	16	19	40	14	14	15	140
	중 랑 구		12	9	7	14	26	15	16	99
	근 교		73	74	98	140	183	290	306	1,164
	합 계		1,908	1,934	2,249	2,006	1,930	2,222	2,290	14,539

	년도 거주형태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아 파 트	1,190	1,154	1,434	1,231	1,214	1,476	1,367	9,066
주 거 형 태 별	빌 라	99	121	117	111	117	249	187	1,001
	연 립	28	14	14	15	13	4	13	101
	기 타	655	664	766	685	655	758	705	4,888
	합 계	1,972	1,953	2,331	2,042	1,999	2,487	2,272	15,056

	연령 연령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19세 이하	110	156	190	171	12	128	117	1,014
연 령 별	20~29세	593	730	988	847	875	1,111	1,072	6,216
	30~39세	451	408	428	399	370	374	445	2,875
	40~49세	439	346	343	304	245	339	265	2,281
	50~59세	195	168	195	182	217	239	211	1,407
	60~69세	66	62	77	54	78	50	76	463
	70세 이상	36	27	37	20	38	31	34	223
	합 계	1,890	1,897	2,258	1,977	1,965	2,272	2,220	14,479

	신급 신급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초 신 자	1,075	999	1,060	907	916	1,136	1,115	7,208
신 급 별	수 세 자	705	763	1,052	870	894	1,002	954	6,240
	집 사	170	181	201	172	155	205	187	1,271
	권 사	12	13	22	9	11	23	9	99
	장 로	9	4	5	2	1	6	2	29
	기 타	1							1
	합 계	1,972	1,960	2,340	1,960	1,977	2,372	2,267	14,848

	학력 학력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중 졸 이 하	38	21	32	20	23	25	24	183
학 력 별	고 졸	209	206	217	179	161	173	146	1,291
	대 졸	998	1,130	1,408	1,224	1,225	1,663	1,375	9,023
	대학원졸 이상	201	213	258	242	222	289	345	1,770
	합 계	1,446	1,570	1,915	1,665	1,631	2,150	1,890	12,267

	년도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직업									
직	교 육		75	79	94	91	35	40	30	444
	언 론		14	15	11	8	13	14	10	85
	학 원			6			40	60	62	168
	금 융		39	43	44	40	42	60	50	318
	건 설		30	20	17	25	27	31	28	178
	사 업		74	75	81	65	80	90	71	536
	자 유 업		90	73	88	99	64	83	66	563
	교 수		36	35	25	30	27	22	37	212
	회 사 원		248	255	277	248	275	313	372	1,988
	연 구 원		14	17	21	13	23	35	32	155
	의 사		40	45	44	43	43	33	38	286
	약 사		14	6	8	3	7	5	5	48
	공 무 원		34	45	45	50	39	30	35	278
	변 호 사		1	1			3	4		9
	간 호 사		1	6	7	6	3	3		26
	상 담 원								1	1
	축 구 인								1	1
	음 악 인		1	3			4	4	6	18
	병 리 사							1	1	2
	정 당 인						2		1	3
	사법연수원							2	1	3
	교 직 원							7	2	9
	작 가								1	1
	통 역 사							3	1	4
	연 예 인						3		4	7
	미 술 인		1	1				6	2	10
업	강 사			3				6	7	16
	법무, 법인							1	3	4
	회 계 사			3			1	2	3	9
	의료 직원							3		3
	법 무 사		1	1				1	2	5
	치 료 사							2		2
	장기운동본부							3		3
	침 술							1		1
	선 교 사							3		3
	한 약 사						1			1
	감 사			2						2
	외 교 관			1				1		2
	고 문		1				1			2
	군 인						1	1	2	
	주 부		49							49
	기 타									
	합 계		763	735	762	721	734	870	872	5,457

참고 문헌

성 경

- Aland, K. The Greek New Testament, Münster: United Bible Societies, 1983.
- D.C.E. of N.C.C.. The Holy Bible R.S.V. Nashville: Holman Bible Publishers, 1982.
- Jones, A. (ed). The Jerusalem Bibl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8.
- Kittel, R. Biblia Hebraica, Stuttgart: Deutsche Bibelstiftung, 1973.
- 김주병. 편집발행.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김호용. 편집발행.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89.
- _____. 편집발행.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논 문

- 김석인. “한국교회 강단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1987.
- 김지찬. “설교자는 수사학자가 되어야 한다(I)”. 신학지남. 제251호. 1997.
- 박희춘. “어거스틴의 설교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1995.
- 방관덕. “설교 제 유형에 관한 연구 비판”.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1985.
- 서정주. “한국교회 성장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1980.
- 안수길. “설교가 한국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임마누엘 신학대학원, 1989.
- 홍순우. “A Analysis of Korea Evangelical Church Preaching Relative to Church Growth”.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1982.

단행본

- Albright, W.F. The Biblical Period from Abraham to Ezra. New York: Harper & Row, 1963.
- Anderson, H. Jesus and Christian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Barclay, W. The Promise of the Spirit. London: Epworth, 1964.
- Barilli, R. Rhetoric. trans by Giuliana 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9.
- Barrett, C.K. The New Testament Background: Selected Document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1.
- Bassham, R.C. Mission Theology.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9.
- Baumann, J.D.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2.
- Blackwood, A. The Preparation of Sermons. New York: Abingdon-cokes-bury Press, 1948.
- Blair, W. and Hunt, B.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7.
- Bright, J.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 _____. The Kingdom of God. Mashioille: Abingdon Press, 1953.
- Brooks, p. Lectures on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 Clark, A.D.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C.L.S.K., 1971.
- Conzelmann, H. The Theology of St. Luke. N.Y.: Harper & Row, 1960.
- Cullmann, O.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d Early Christian Worship" in Early Christian Worship. London: SCM Press, 1953.
- Dargon, E.C. A History of Preaching.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4.
- Dodd. C.H.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0.
- _____.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58.

- Ellison, H.L.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9.
- Fant, C.E. Jr.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Waco, Texas: Words Books, 1971.
- Finegan, J. Light from the Ancient Past. Princeton: Princeton Uni. Press, 1946.
- Fisher, J.E. Pioneers of Moder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7.
- Hasel, G. Old Testament Theology. Michigan: W.B. Eerdmans Pub. Co., 1972.
- Henthorn, W.E. A history of Korea.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 Hinson, D.F.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London: S.P.C.K., 1976.
- Holand, D. Preaching in American History. New York: Abingdon Press, 1969.
- Johnson, B.C. Pastoral Spirituality-A Focus for Minist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 Kee, H.C. Community of the New Age: Studies in Mark's Gosp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7.
- Klausner, Joseph. Jesus of Nazareth, his Life, Times and Teaching.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5.
- Lawler, M.G. A Theology of Ministry. Kansas: Sheed & Ward, 1990.
- Latourette, K.S. Christianity Through the Ages. New York: Harper and Row, 1965.
- Lloyd Jones, D.M. Preaching and preacher. Hodder & Stoughton, 1971: Zondervan, 1972.
- Long, T.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 Maddox, R. The Purpose of Luke-Acts. Edinburgh: T.&T. Clark, 1982.
- Martin, R.P. Mark: Evangelist and Theologian.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3.
- Mayers, M.K. Christianity Confronts Cultur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4.
- McGavran, D.A. Church Growth and Group Conversion. South Pasadena, CA: William Carey, 1973.

- _____. Understanding Church Growth. 2nd rev.ed. by C. Peter Wagner. Grand Rapids, MI: Erdmans, 1990.
- _____. & Arm. W.C. Ten Step for Church Growth. New York: Harper & Row Pub., 1976.
- Miller, D.G. The Way to Biblical Preaching.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Moffett, S.H. The Christians of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2.
- Nouwen, H.J.M. Creative Ministry. New York: Doubleday, 1971.
- Oden, T.C. Pastor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 Payne, D.F. Kingdoms of the Lord. Grand Rapids: Eerdmans, 1981.
- Perry, Lloyd M. Biblical Preaching for Today's World. Chicago: Moody Press, 1978.
- Peters, G.W. A Theology of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1.
- Raines, J.C. and Day-Lower, D.C. Modern Work and Human Meaning.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Robinson, H.W.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0.
- Sternberg, M.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Reading and the Drama of Reading.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 Stott, J. and Coote, R.T. editors. Gospel & Culture.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9.
- Talbert, C.H. Literary Patterns, Theological Themes and the Genre of Luke-Acts. Missoula, 1974.
- Vaughan, J.N. The world's Twenty Largest Churches. Grand Rapids: Baker, 1984.
- Wagner, C. Pet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A Biblical Mandat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 _____.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Ventura, CA: Regal, 1987.
- _____. The Third Wave of the Holy Spirit. Ann Arbor, MI: Vine, 1988.
- _____. Your Church can Grow. Glendale: Regal, 1976.
- Walker, W.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Edinburgh: T.&T. Clark, 1963.

Wimberly, E.P. Prayer in Pastoral Counseling. Louisville: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90.

Wood, L.J. A Survey of Israel's History. Grand Rapids: Baker, 1979.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마가복음. 서울: 기독지혜사, 1990._

_____. 호크마 종합주석 마태복음. 서울: 기독지혜사, 1990._

_____. 호크마 종합주석 사도행전. 서울: 기독지혜사, 1991.

강정규. 한국7대 교회 그 성장과 현황. 서울: 종로서적, 1983.

곽선희. 복 받은 사람의 여정. 서울: 계몽사, 1995.

_____. 소망의 말씀 1990년 1월~6월. 서울: 소망교회, 1991.

_____. 소망의 말씀 1990년 7월~12월. 서울: 소망교회, 1991.

_____. 소망의 말씀 1991년 1월~6월. 서울: 소망교회, 1992.

_____. 소망의 말씀 1991년 7월~12월. 서울: 소망교회, 1992.

_____. 소망의 말씀 1992년 1월~6월. 서울: 소망교회, 1993.

_____. 소망의 말씀 1992년 7월~12월. 서울: 소망교회, 1993.

_____. 소망의 말씀 1993년 1월~6월. 서울: 소망교회, 1994.

_____. 소망의 말씀 1993년 7월~12월. 서울: 소망교회, 1994.

_____. 소망의 말씀 1994년 1월~6월. 서울: 소망교회, 1995.

_____. 소망의 말씀 1994년 7월~12월. 서울: 소망교회, 1995.

_____. 소망의 말씀 1995년 1월~6월. 서울: 소망교회, 1996.

_____. 소망의 말씀 1995년 7월~12월. 서울: 소망교회, 1996.

_____. 소망의 말씀 1996년 1월~6월. 서울: 소망교회, 1997.

_____. 소망의 말씀 1996년 7월~12월. 서울: 소망교회, 1997.

_____. 이 산지를 내게. 서울: 계몽사, 1993._

_____. 참회의 은총. 서울: 계몽사, 1990.

_____. 하나님의 나라. 서울: 혜선출판사, 1987.

김광수. 한국 기독교 인물사. 서울: 기독교문사, 1974.

김기동. 교회성장을 위한 설교학. 서울: 도서출판 배뢰아, 1988.

김득중. 복음서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1985.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 김양선.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김우영. 부흥회와 교회성장. 서울: 쿤란출판사, 1996.
- 김지철 외 11명. 성경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3.
- 김진환. 한국교회 부흥 운동사. 서울: 서울서적, 1993.
- 김창규. 교회성장과 설교방법론. 서울: 쿤란출판사, 1992.
-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서울: 서울프레스, 1994.
- 명성훈.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5.
- 민경배. 한국의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 박근원. 교역의 전문화교육.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5.
- 박우수. 수사학과 말의 힘. 서울: 도서출판 대흥, 1992.
- 박종순. 한국교회 설교를 조명한다 I. 서울: 신망애, 1987.
- _____. 한국교회 설교를 조명한다 II. 서울: 신망애, 1988.
- 박진환. 수사심리학. 서울: 조선문학사, 1995.
- 박창환. 신약성경해설.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0.
- 박항식. 수사학. 서울: 현대문학사, 1976.
-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1.
- 신내리.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2.
- 신성종 외 19명. 이렇게 설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4.
- 염필형. 현대 신학과 설교형성.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출판부, 1997.
- 오성준. 목회상담 사례분석.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1987.
- 이기춘.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출판부, 1989.
-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0.
-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3.
- 이종윤·전호진·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3.
- 이중표. 교회발전을 위한 설교 개발. 서울: 쿤란출판사, 1993.
- _____. 교회성장과 케리그마 설교. 서울: 쿤란 출판사.
- 이한수. 바울신학 연구. 서울: 총신대 출판부, 1993.

- 전경연. 원시 기독교와 바울.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 정근두. 로이드 존스의 설교론. 서울: 여수론, 1993.
- 정사무엘. “4대 교단 특징과 한국교회 성장”. 박사학위논문. 폴리신학대학원, 1990.
-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 _____. 설교학 개론. 서울: 세종문화사, 1991.
- _____. 한국교회 설교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86.
-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86.
- 제자원 편. 그랜드 종합 주석⑫ 마태복음·마가복음.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3.
- 조용기.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서울: 서울말씀사, 1996.
- 학원복음화협의회. 청년·대학부가 살아야 된다.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6.
- Adams, J.E. Audience Adaptation in the Sermons and Speak of Paul. 정양숙 역.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에의 적응.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2.
- _____. Studies in Preaching. 정양숙·정삼지 공역. 설교연구.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 Baxter, R. The Reformed Pastor. 박형용 역. 참 목자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0.
- Beasley-Murray, G.R.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박문재 역.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 Becker, J.C. Paul the Apostle. 장상 역. 사도바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Bornkamm, G. Paulus. 허혁 역. 바울-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 Bright, J. The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이균호. 임태수 공역. 구약성서의 권위. 서울: 컨콜디아사, 1979.
- Brown, H.C., Clinard, H.G. and Northcutt, J.J. Steps to the Sermon. 정장복 편역. 설교의 구성론. 서울: 영서각, 1987.
- Clinebell, H.J. Paster and Parish: The Pastoral Counselor in Social Action. 오성춘 역. 목회와 지역사회.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5.
- Conn, Harvie.M. Theological Perspectives on Church Growth. 김남식 역. 교회성장의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Craddock, F.B. Preaching. 김영일 옮김. 설교. 서울: 컨콜디아사, 1990.

- Donn, J.D.G. The Diversity and unity of the New Testament. 김득중·이광훈 공역. 신약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5.
- Engen, C.V. 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서울: 두란노, 1994.
- France, R.T. Matthew. 이한수 역. 마태신학. 서울: 엠마오, 1995.
- Gates, W.H. The Road Ahead. 이규행 감역. 미래로 가는 길. 서울: 도서출판 삼성, 1995.
- Goppelt, Leonhart.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I). 박문재 옮김. 신약신학 I.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 Hargreaves, J. A Guide to Psalms. 엄현섭 역. 시편의 새 해석. 서울: 컨콜디아사, 1991.
- Hasel, G.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장상익.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Howe, R. Partners in Preaching. 정장복 역. 설교의 파트너.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1982.
- Hunter, A.M. The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채위 옮김. 신약성서의 중심사상.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92.
- Huntley, M. A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 차종순 역. 한국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목양사, 1985.
- Jabusch, W.F. The Person in the Pulpit. 홍성훈 역. 강단의 설교자. 서울: 소망사, 1989.
- Jeremias, J. New Testament Theology. 정충하 역. 신약신학. 서울: 새순, 1990.
- Kim, Seyoon. The Origin of Paul's Gospel. 홍성희 역. 바울복음의 기원. 서울: 엠마오, 1994.
- _____. "The 'Son of Man' " As The Son of God. 홍성희, 정태엽 공역. "그 사람의 아들" (人子)-하나님의 아들. 서울: 엠마오, 1992.
- Ladd, G.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신성종 역. 신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8.
- Lohse, B. Epochen der Dogmen Geschichte. 구영철 역. 기독교 교회사. 서울: 컨콜디아사, 1992.

- Mack, Burton. L. Rhetoric and the New Testament. 유태엽 역. 수사학과 신약성서.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 Mccracken, R.J. the Making of the Sermon. 정장복 편역. 설교의 구성론. 서울: 양서각, 1984.
- Metzger, B.M. The New Testament-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나채운 역. 신약성서 개설.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3.
- Moffett, S. H.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isa. 김인수 역. 아시아 기독교회사. 서울: 장로회신학 대학출판부, 1996.
- Pennington, C. God has a Communication Problem. Chartier, M.R. Preaching as Communication. 정장복 편역. 말씀의 커뮤니케이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Rainer, T.S. The Book of Church Growth. 홍용표 역. 교회성장 교과서. 서울: 예찬사, 1995.
- Ridderbos, H. Paul, on Outline of His Theology. 박영희 역. 바울신학. 서울: 기독지혜사, 1985.
- Smalley, S.S. John: Evangelist and Interpreter. 김경신 역. 요한신학. 서울: 풍만, 1987.
- Soft Technology Group. 이정섭 편역. 21세기를 준비하자. 서울: 문학과 현실사, 1995.
- Stuhlmacher, P. Vom Verstehen des Neuen Testaments, Eine Hermementik. 전경연·강한표 역. 신약성서 해석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6.
- Thayer, N.S.T. Spirituality and Pastoral Care. 백상열 역. 영성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9.
- Thieliche, H. Leiden and der Kirche Ein Personliches Wort. 심일섭 역.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 Tippett, A.R. Church Growth and the Word of God. 장중열 역. 교회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서울: 보이스사, 1980.
- Young E.J.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49.
장일선. 구약성서와 설교. 서울: 전망사, 1989.

- Von Rad, 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허혁 역. 구약성서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1976.
- Wagner, C. Peter. Church Growth: State of the Art. 이재범 역. 교회성장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 Westermann, C. The Old Testament and Jesus Christ. 문희석 역. 구약성서와 예수 그리스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통계연보 및 보고서

- 서울특별시장. 제31회 서울통계연보. 서울: 서울특별시, 1991.
- _____. 제32회 서울통계연보. 서울: 서울특별시, 1992.
- _____. 제33회 서울통계연보. 서울: 서울특별시, 1993.
- _____. 제34회 서울통계연보. 서울: 서울특별시, 1994.
- _____. 제35회 서울통계연보. 서울: 서울특별시, 1995.
- _____. 제36회 서울통계연보. 서울: 서울특별시, 1996.
- 통계청장. 생활속의 통계(1996). 서울: 통계청, 1996.
- _____. 지역통계연보(1996). 서울: 통계청, 1996.
- _____.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서울: 통계청, 1995.
- _____. 통계 소재 정보안내. 서울: 통계청, 1996.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1996.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79회 총회보고서.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 _____. 제80회 총회보고서.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5.
- _____. 제81회 총회보고서.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6.
- _____. 제82회 총회보고서.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주 보

- 소망교회. 주보철(1987. 12.~1992. 9). 서울: 소망교회, 1992.
- _____. 1992년도 주보모음집. 서울: 소망교회, 1993.

- _____. 1993년도 주보모음집. 서울: 소망교회, 1994.
- _____. 1994년도 주보모음집. 서울: 소망교회, 1995.
- _____. 1995년도 주보모음집. 서울: 소망교회, 1996.
- _____. 1996년도 주보모음집. 서울: 소망교회, 1997.

일간지

- 국민일보. 1997년 9월 13일자.
- 조선일보. 1997년 2월 28일자.
- 한국기독교공보. 1996년 2월 24일자.
- _____. 1996년 5월 18일자.

사 전

- Brauer, J.C.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urch Histo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9.
- Burgess, S.M. and McGee, G.B. ed.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Grand Rapids: Regency Reference Library.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8.
- Davies, J.G. ed.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Liturgy and Wo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Douglas, J.D., Elwell, W.A. and Toon, P. The Concise Dictionary of the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9.
- Kittel, G.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64.
- Muller, R.A.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Richardson, A. and Bowden, J.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Vine, W.E., Unger, M.F. and Willian, W. Jr. Vine's Expository Dictionary of
Biblical Words. New York: Thomas Nelson Pub., 1985.

Wakefield, G.S. ed.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조선출. 그리스도교 대사전. 서울: 기독교서회, 1972.

한영제. 기독교 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3.

강의록

Kwak, Sun Hee. Contemporary Preaching. Pasadena, CA.: D. Min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5.

Vita of
Eun Man Shin

Present Position :

Associate Pastor of the Somang Presbyterian Church.

624 Sinsa-Dong Kangnam-Gu Seoul, Korea.

A Member of The Theological Examination Committee

of Seoul Kangnam Presbytery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C.K.).

683-26 Yuksam-Dong Kangnam-Gu Seoul, Korea.

Personal Data :

Birthdate : June 6, 1951

Marital Status : Married to Eun Ja Shin Choi

Home Address : Hyundai Apt. 71-801 Apgoojung-Dong
Kangnam-Gu Seoul, Korea.

Phones : Office : (02) 512-9191~6, 512-9100
Home : (02) 514-1216

Denomination : P.C.K.

Ordained : May 8, 1989

Education:

B.A.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Korea, 1984

M. 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Korea, 1987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S.A. 1998

Professional Experience :

1/90 to Present Associate Pastor of the Somang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1/87 to 12/89 Staff of the Education Department
of General Assembly of The P.C.K. Seoul, Korea.

Academic Honors :

February 23, 1984 Awarded The Graduation Dissertation Prize
in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Seoul, Korea.

3/84 to 2/87 Selected Scholar by The Rev.Kyung Chik
Han's memorial Scholarship Association
in The Younknak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